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책임 연구자 : 박재연

공동 연구자 : 박경례

이인숙

이정윤

임세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인 쇄 : 2023년 12월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인 : 윤희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83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디자인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2019년 말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를 무력하게 만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환경이라는 뉴노멀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모두가 애썼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 간 대면소통과 교류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잠시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대인신뢰도는 역대 최저였고, 사회적 고립감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심리·사회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만 3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래나 다양한 계층의 성인들 사이에서 관계를 배우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더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흔에 대한 자각과 고민은 자연스럽게 성장기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작년 초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소나무 : 소중한 나와 너 무럭무럭 자라요)을 개발하였고, 올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구의 연속선 상에서 올해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래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유능감과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들에 비해 또래집단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은 부정적인 또래경험, 교사와의 갈등경험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관계를 철회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는 요인과 심리·사회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회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사회정체감 7개의 사회성 요인을 추출하여 활동 중심의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실시 후 청소년의 사회성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효과성 척도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프로그램(더 자람 : The Grow)’은 대면

용 프로그램과 비대면용 프로그램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은 7개 주제영역을 다루는 8회기 분량의 프로그램이며, 활동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6개 주제영역을 다루는 6회기 분량의 프로그램이며,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 및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 및 부모님들,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본원 관계자와 책임연구자 대구대학교 박재연 교수님과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신 모든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희식 윤희식

초 록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따른 학습효과와 사회성 저하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퍼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중단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의 어려움, 학습능력 부족, 학교체계에 대한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등연령 청소년의 학교중단은 전년도에 비해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중등연령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로 13세에서 15세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학교를 중단하게 되면 매일 만나던 친구들과 교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등연령 시기는 발달과정에서 저연령과 달리 부모의 영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에 소속되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학교중단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사회화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특화된 사회성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이 시기에 필요한 사회성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요인을 발달적 관점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개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성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는 요인과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또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정의하고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이 깊은 사회조망이론과 사회정체감 이론을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과 중등연령 청소년 프로그램, 중등연령 사회성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개입 프로그램을 탐색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수 있었으나 중등연령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사회성에 관련한 프로그램은 더욱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연령을 중등연령에 맞추어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와 국내외 프로그램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사회정체감의 7개 사회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프로그램의 접근방법은 게임과 체험, 캠프 등 활동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7개의 사회성 요인이 반영된 체험과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이 즐겁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및 FGI를 실시하여 중등연령 학교밖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한 특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27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과 요구 사항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쳤다. 질적·양적 측면의 요구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원하며, 또래와 게임을 함께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이를 통해 자신감과 연대감을 가져 사회정체감을 높이고자 했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제한된 대인관계를 염려하며 또래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훈련과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활동 중심이 주를 이루면서 학습과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양적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학교 중단시기는 남자가 더 일찍 학교를 중단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를 더 일찍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학교를 더 일찍 중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업형 청소년은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자율성과 협동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이나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내용과 요구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면과 비대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보호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핵심구성원리를 결정하였다. 문헌연구, 질적·양적 요구조사,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줄 알며, 공감 능력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여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함으로써

써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집단의 규칙과 규범을 익혀 집단에 대한 소속감 확보를 통해 사회정체감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면 프로그램은 7개 주제영역을 기획하여 8회기를 구성하고, 각 회기는 도입(20분), 활동(60분), 마무리(10분), 총 90분으로 구성하였다. 대면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내 감정은 내가 전문가,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더 괜찮은 나로 UP, 소통 UP! GO!, 함께하면 행복해요, GO 사회 속으로’ 를 제목으로 구성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7개의 주제영역을 6회기로 구성하고 도입(10분), 활동(50분), 마무리(10분), 총 70분으로 설계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알고 싶은 나, 괜찮은 나, 잘 지내고 싶은 친구, 소통하고 싶은 친구, 함께 하는 우리, 사회 속의 우리’ 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사회성의 요인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사회성 검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와 구형성 검정을 확인하였다. 적합성이 확인된 요인들은 문항의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감(6문항), 사회정체감(6문항), 정서적 안정감(5문항), 자율성(3문항), 자기조절(9문항), 협동성(3문항), 의사소통(9문항)의 7개 하위요인 총 43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공감 .743, 사회정체감 .793, 정서적 안정감 .717, 자율성 .662, 자기조절 .758, 협동성 .689, 의사소통 .713으로 조사되었고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73이었다.

여섯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대면 집단과 비대면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제집단은 무처치하였다. 시범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회기별 만족도조사, 경험보고서, 지도자 평가를 실시하여 질적분석을 하였다. 질적분석결과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회기 초반에는 어색하지만 기대감을 나타냈고 프로그램 후반에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동아리 만들기에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다소 자기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은 감정조절을 알게 되었고, 사회성이 향상되었으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단점을 알고 보완하는 방법도 터득하였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자신을 알리는 행동도 적극적으로 되는 등 사회성과 관련된 행동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결과, 각 집단의 사전검사결과 동질성이 확인되었고,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결과, 대면집단과 비대면 집단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집단과 비대면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나, 대면집단과 통제집단, 비대면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의 청소년은 추후검사결과에서도 사전검사에 비해 프로그램 효과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 주요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목차 |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과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5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5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6
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요인과 유형	8
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과 필요한 지원	9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의 특성	11
가. 중등연령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및 특성	11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관련 이론	13
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관련 선행연구	25
3. 중등연령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선행연구 분석	27
가. 중등연령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27
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27
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34
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의 방법	35
가. 개인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효과	35
나. 집단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효과	35
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효과	36
5. 소결	37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과 주요요인	37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의 접근 방향	39
III. 연구 방법	41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41
가. 프로그램 개발 절차	41
나. 프로그램 모형	42
2. 프로그램 개발 기획	43
가. 문헌연구	43
나. 현장요구조사	44

3.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척도구성	54
가. 문항선정 및 구성	54
나. 문항 적합도 감수 및 자문	55
다. 시범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보완	55
IV. 연구 결과	56
1. 현장요구조사 결과	56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개별 면접 조사결과	56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부모 개별 면접 조사결과	63
다. 현장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 조사결과	70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80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80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검사결과	90
3. 요구조사 결과에 따른 고려사항	95
4.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타당화	96
5.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	98
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98
나. 대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적용	99
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적용	120
V.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성 검증	134
1. 시범 적용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134
가. 프로그램 시범적용 참여자 정보	134
나. 연구설계	135
다. 측정도구	136
2. 대면 프로그램 질적평가	137
가. 참여자 정보	137
나.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137
다.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139
라.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평가	141
마. 시범운영 후 지도자 논의사항	145
3. 비대면 프로그램 질적평가	149
가. 참여자 정보	149
나. 비대면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150
다.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152
라.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평가	154
마. 시범운영 후 지도자 논의사항	156

4. 시범 프로그램 양적평가	158
가.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	158
나. 집단 간 사전·사후·추후검사 차이검정결과	159
다. 집단 간 사후 검사결과 비교	160
라. 집단 간 추후 검사결과 비교	161
5. 프로그램 수정보완	162
가. 대면 프로그램	162
나. 비대면 프로그램	163
V. 요약 및 논의	164
1. 연구의 요약	164
2. 연구의 논의	168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171

참고문헌 | 174

부록 | 185

Abstract | 217

표목차

표 1. 초·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및 학업 중단율(출처: 교육부, 2022)	7
표 2. 연구자별 사회성 개념	13
표 3. 사회조망능력 단계	16
표 4. 사회성 구성요인	18
표 5. 사회성 구성요인의 개념	21
표 6.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28
표 7. 국외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31
표 8.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개발모형	42
표 9. 학교 밖 청소년 특성	45
표 10.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특성	47
표 11.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전문가 특성	49
표 1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52
표 13.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성의 특성	57
표 1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59
표 15.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	61
표 16. 보호자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특성	64
표 17. 보호자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66
표 18. 프로그램에 대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의견	69
표 19.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특성	71
표 20.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74
표 21.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	77
표 2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 경험	80
표 23. 하루일과 시간 조사결과	81
표 24. 사회성 점수 응답결과	83
표 25.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성 요인 응답결과	83
표 26. 항상시켜야 하는 사회성 요인 응답결과	84
표 27. 사회성 향상 활동 현황(중복응답)	84
표 28.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진행방법 요구조사 결과	85
표 29.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놀이와 활동 요구조사 결과	86
표 30. 성별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87
표 31. 연령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88
표 32. 거주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88
표 33.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89
표 34.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89

표 35.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90
표 36.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검사 결과	91
표 37. 성별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91
표 38. 연령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92
표 39. 거주지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93
표 40.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93
표 41.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율성과 협동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94
표 42.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94
표 43.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95
표 44. 사회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97
표 45. 프로그램 주요내용 요소	101
표 46. 대면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 주요활동	104
표 47. 대면 프로그램 1	108
표 48. 대면 프로그램 2	110
표 49. 대면 프로그램 3	111
표 50. 대면 프로그램 4	113
표 51. 대면 프로그램 5	114
표 52. 대면 프로그램 6	116
표 53. 대면 프로그램 7	117
표 54. 대면 프로그램 8	119
표 55. 비대면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 주요 활동	122
표 56. 비대면 프로그램 1	125
표 57. 비대면 프로그램 2	127
표 58. 비대면 프로그램 3	128
표 59. 비대면 프로그램 4	129
표 60. 비대면 프로그램 5	130
표 61. 비대면 프로그램 6	132
표 62.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134
표 63. 시범운영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135
표 64. 사전·사후·추후검사의 신뢰도	136
표 65. 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특성	137
표 66.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적절성 평가	138
표 67.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경험과 소감	139
표 68. 대면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 분석 결과	140
표 69.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주관식 응답	141
표 70. 대면 프로그램 지도자 회기별 만족도 평가	142

표 71. 대면 프로그램 회기별 의견 및 개선 사항	142
표 72.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특성	149
표 73.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적절성 평가	150
표 74.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경험과 소감	151
표 75. 비대면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 분석 결과	153
표 76.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주관식 응답	154
표 77. 비대면 프로그램 지도자 회기별 만족도 평가	154
표 78. 비대면 프로그램 회기별 의견 및 개선 사항	155
표 79. 집단 간 사전검사 동질성 검정결과	159
표 80. 집단 간 사전·사후·추후검사 차이검정결과	160
표 81. 집단 간 사후검사 검정결과	160
표 82. 집단 간 추후검사 검정결과	161

그림목차

그림 1. 초·중·고등학교 학교중단 변화 그래프(출처: 교육부, 2022)	7
그림 2.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회기별 사회성 점수 변화	138
그림 3.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회기별 사회성 점수변화	151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으로 ‘학교’ 라는 교육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전주희, 김혜미, 2020).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학교를 중도에 그만 두었지만 공부를 계속하려고 준비하는 진학준비 청소년과 취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취업준비 청소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발달적이고 자기실현욕구가 건강한 청소년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서정아, 권혜수, 정찬식, 2006)

2022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초·중·고학생의 전체 학교 중단율은 전 학년도 대비 0.2%(10,728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0.6%, 중학생은 0.5%, 고등학생은 1.5%로 전년 대비 각각 0.1%, 0.1%, 0.5% 상승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 학교중단자는 15,389명, 중학교 학교중단자는 7,235명, 고등학교 학교중단자는 20,131명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등연령(만13세~15세)에 해당하는 중학교의 학교중단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교 중단율은 0.6%로 전 학년도 대비 0.4%p 하락하였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0.4%, 중학생은 0.5%, 고등학생은 1.1%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학교중단율은 초등학교 0.7%, 중학교 0.8%, 고등학교 1.7%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중단율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0.4%p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수업을 진행한 결과로 보이며, 2021년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중단율은 전체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교육과정이 적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의한 학교 부적응, 학교 규칙에 대한 반발, 자퇴,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중단 후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외로움과 고립감, 심리적 압박감이 크며, 주변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친구를 사귄 기회 감소, 다양한 경험의 부재 등을 꼽았다(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나, 소속된 곳이 없어지고 사회에 적응할 특별한 기술의 부족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조아미, 이진숙, 2014).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나 생활하면서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자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대인관계 형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하면서 교육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화 과정을 익히면서 성장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변화된 현실에 적응해 가야하는 외적인 측면의 어려움과 내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관리해야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오은경, 2014; 하여진, 2022).

전주희와 김혜미(2020)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적응유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교와 또래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이후의 발전과 삶을 격려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기는 인지적 능력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Gresham, Elliott, Vance & Cook, 2011). 사회성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며(Leung, 2008; Repetti, Taylor, & Seeman, 2002), 사회성 기술 부족으로 정신적 문제 및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나타난다(강태신, 2009). 청소년기에 사회성이 원만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우호성, 책임성 있는 역할과 바람직한 가치정립 등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임수진, 2020; Durlak, Weissberg, & Pachan, 2010).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자, 유영숙, 정현주(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켰고, 회기 내 사회적 기술 행동을 변화시켰다.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중단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변화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

다. 임수진(2020)의 학교중단 위기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에서도 실험집단에서 대인관계 유능성,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관계성이 모두 향상되었다. 주희현과 서경현(2013)은 사회성 향상 단기 집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소외감이 의미있게 줄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지원과 진로탐색, 사회적 낙인, 정신건강, 가정폭력, 중독, 비행,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가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 향상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의 문제는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 및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는 2차 발달이 나타나며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인지수준에서 추상적이고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한 지적수준에 도달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심리·사회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며 정서의 급격한 발달로 감수성이 예민해져 강렬한 정서를 체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의 청소년은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독립의지를 가지면서도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지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소속집단에 대한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학교중단으로 체계적인 교육 혜택과 진로 정보, 사회성 및 사회관계적 기술 습득 등의 기회가 감소 됨으로써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금명자, 200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학교중단으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사소통 기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기술 등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성장에 필요한 대인관계 경험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려 표현할 수 있고, 경청과 공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잘 분별하며, 문제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율적이면서 주체적으로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돕고자 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중등연령(만13세~15세)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교구재,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분석,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실시 및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예비운영과 시범운영 및 평가를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달리 규모가 적고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집단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조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각급 교육청 위센터 담당자, 학교 전문상담교사 등의 도움으로 대상 학생들을 발굴하고 부모의 동의 후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발달 및 사회성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조사, 초점 집단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의 원인, 학교중단 당시의 경험, 학교를 그만둔 현재 생활, 사회적 관점과 발달적 관점에서의 사회성 탐색,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분석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원리를 도출한다.

셋째, 문헌 연구, 현장 요구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성 평가와 개선점을 찾은 후 최종 프로그램을 도출한다.

넷째,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매뉴얼, 청소년용 워크북, 교구재를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 처분을 받고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교육과정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중단한 청소년과 처음부터 학교 정규과정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신효민, 2017).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교육의 밖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학습지원, 진로정보 및 탐색,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의 제도적인 지원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중단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기회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경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서적 및 인지적, 행동적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성은모, 윤나래, 2016; 하여진, 2022).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김영희 등, 2013), 학교중단 이후 배움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배진욱, 2021; 최숙희, 2020; 하여진, 2022).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 밖 지원체계의 도움과 또래와의 소속감 형성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살아나며, 삶에서의 조절력이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도전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명소연, 조진욱, 2016). 권욱현 등(2021)의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이후에 사회적 관계 문제로 사회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기존의 소속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소속감 및 사회정체감을 획득하는 적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집단을 벗어나 혼자서 자신이 일상을 계획하고 구성해나가는 것이 과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주도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일찍 주어진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관계 및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교때부터 홈스쿨링을 계속하고 있거나, 해외입국 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례,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중단한 사례 등 사유가 다양하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보다 부모의 선택과 결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능력, 자녀에 대한 관심과 돌봄 정도에 따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을 기준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2022)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1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넓은 범위에서 만 12세부터 16세까지도 중등연령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의 적령기인 만 13세부터 15세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되, 광의의 개념으로 만 12세와 16세를 포함한 청소년 중 제도권 내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하기로 한다. 더불어 또래나 대인관계, 학습부진, 일탈이나 비행 등의 학교부적응 청소년과 신체적, 생리적인 문제로 진학하지 않거나 학교를 포기한 청소년, 학교의 교육이 청소년의 개인적인 바램이나 특성과 맞지 않아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중도입국, 해외유학 등의 문제로 학교를 중단한 모든 청소년이 포함된다.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추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교육통계자료의 ‘학교중단현황’ 보고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추산해오고 있다.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통계자료 보고에 의하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교중단율은 0.8%(42,755명)로 나타났다. 2020년은 학교중단 학생이 다소 줄어든 수치를 보였으나,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조기유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전 학년도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과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중단 학생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21년 중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학교중단자는 총 7,235명(유예: 4,952명, 면제: 2,283명)으로 전체 학교중단자의 16.9%에 해당하였다(교육부, 2022).



그림 1. 초·중·고등학교 학교중단 변화 그래프(출처: 교육부, 2022)

표 1. 초·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및 학업 중단율(출처: 교육부, 2022) (단위 : 명, %)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1년	5,323,075	42,755	0.8	2,672,340	15,389	0.6	1,350,770	7,235	0.5	1,299,965	20,131	1.5
'20년	5,346,874	32,027	0.6	2,693,716	11,612	0.4	1,315,846	5,976	0.5	1,337,312	14,439	1.1
'19년	5,452,805	52,261	1.0	2,747,219	18,366	0.7	1,294,559	10,001	0.8	1,411,027	23,894	1.7
'18년	5,584,249	52,539	0.9	2,711,385	17,797	0.7	1,334,288	9,764	0.7	1,538,576	24,978	1.6
'17년	5,725,260	50,057	0.9	2,674,227	16,422	0.6	1,381,334	9,129	0.7	1,669,699	24,506	1.5
'16년	5,882,790	47,663	0.8	2,672,843	14,998	0.6	1,457,490	8,924	0.6	1,752,457	23,741	1.4
'15년	6,088,827	47,070	0.8	2,714,610	14,555	0.5	1,585,951	9,961	0.6	1,788,266	22,554	1.3
'14년	6,285,792	51,906	0.8	2,728,509	14,886	0.5	1,717,911	11,702	0.7	1,839,372	25,318	1.4
'13년	6,481,492	60,568	0.9	2,784,000	15,908	0.6	1,804,189	14,278	0.8	1,893,303	30,382	1.6
'12년	6,721,176	68,188	1.0	2,951,995	16,828	0.6	1,849,094	16,426	0.9	1,920,087	34,934	1.8
'11년	6,986,847	74,365	1.1	3,132,477	19,163	0.6	1,910,572	17,811	0.9	1,943,798	37,391	1.9
'10년	7,236,248	76,589	1.1	3,299,094	18,836	0.6	1,974,798	18,866	1.0	1,962,356	38,887	2.0

- 주.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 100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가사, 질병,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학교중단율은 총 재적 청소년 중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교중단자 수 비율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가사, 질병, 품행,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적, 중퇴 및 휴학한 청소년들을 말한다. 중등연령인 중학교의 경우에는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등으로 유예 또는 면제된 자로 구분된다. 학교중단 변화 그래프(그림 1)를 보면 중학생들의 학교중단율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생들과 비교하여 같거나 1~3%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초등학생보다 1%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교중단율은 고등연령이 가장 높고, 초등연령과 중등연령의 중단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초등연령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요인과 유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적되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중단을 선택하고 있다(김현주, 박재연, 2019).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사회환경 등이 있다. 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부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 무기력함, 은둔형 외톨이 기질 등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불안과 우울감 등의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이 있다(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김범구 2012; Hammond, Linton, Smink, & Drew, 2007).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가족 간의 폭력과 갈등, 자녀에 대한 낮은 정서적 지지, 평소 자녀를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이숙영, 남상인, 1997). 학교 요인으로는 교사와의 갈등이 있거나(금명자, 2008), 교사의 낮은 지지,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 교칙의 엄격성,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과중한 수업량, 학교에 대한 의미 부재 등(구자경, 2003; 유성경, 이소래, 1998; Rumberger, 2004)이 있으며, 또래 요인으로는 같이 다닐만한 친구가 없거나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 주변에 학교를 그만둔 비행 성향이 높은 또래와 잦은 접촉을 하거나,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이 있다(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중단의 이유가 빈곤, 비행 등과 같은 전형적인 비자발적 학교중단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취업, 대안학교, 기술 습득을 통한 사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중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강석영 등, 2011). 이러한 학교중단 특성의 변화 추이에 의해 학교중단의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송광성(1992)은 학교 중단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가피형’으로 나누었고, 김혜영(2002)은 학교중단 의사반영 여부에 따라 ‘때려친 아이’와 ‘찢린 아이’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현재 하는 일과 상태에 따라 ‘정착노력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였고, 윤철경(2010)은 현재 하는 일을 중심으로 ‘취업·알바형’ ‘학습형’ ‘NEET’형으로 분류하였다. 오은경(2014)은 현재 주로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학업유지형’ ‘취업형’ ‘NEET’ ‘진로탐색형’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김범구와 조아미(2013)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 따라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으로 분류하였다.

중등연령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의 인지 및 심리, 신체적 발달 차이가 높은 편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신체적 질병이나 부모의 직장이동, 부모의 권유 등으로 인한 학교중단이 많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개인의 성격, 또래관계, 학업 등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단이 많이 발생한다. 학교중단 요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주로 학업과 진로에 대한 요구가 우선시 되어 사회성 발달은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권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최정원 등, 2022)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 개발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공윤정 등, 2022)에 이어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과 필요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중단 이후 각자의 진로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므로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만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의 감소로 인해 소외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김희진 등, 2020). 또한 여자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이후에 아르바이트나 취업에서 부당한 처우와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으며 타인과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임우연, 2014). 또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선입견, 편견, 무시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혼자라는 불안, 도움 받을 곳이 없음과 건강이 안 좋음 등의 응답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면담조

사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민으로는 진로와 경제적인 독립, 시간 활용의 어려움, 외로움과 고립감,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39.7%이며 그중에서 비행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6.2%로 일반 청소년 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서빙/카운터, 배달서비스, 전단지 돌리기, 건설현장 노동 등이나 유흥업소 호객, 서빙 및 접대 등도 나타나 유해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를 보면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임 등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일탈이나 위법 등의 일자리로 내몰릴 위험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해야하는 중등연령 청소년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과 노동인권 교육 등의 지원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되어 학업, 진로, 취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김영희, 최보영, 2015; 명소연, 조진옥, 2016).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에 221개소가 설치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증진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 진학정보, 진로탐색 체험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보다 현실적인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적인 생활과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더 어려워지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소외감을 더 경험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 및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거나 단절하면서 은둔형으로 갈 수도 있기에 이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내의 학교를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되기에 이를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 외적인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하여진, 202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부모의 보호와 돌봄, 감독이 필요한 시기이며,

학교중단 후 주 생활지인 가정에서의 부모, 형제 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심리정서적으로 민감한 중등연령 청소년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태도로 인하여 부모를 비롯한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이루도록 돕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심리사회적 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의 특성

가. 중등연령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및 특성

청소년기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성향과 인지적, 심리·성적으로 가장 크게 발달하여 루소는 이를 ‘제2의 탄생’이라고 하였다. 제2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심리·성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각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발달이 거의 절정에 이르는 말한다. 청소년의 단계는 저연령(만9세~12세), 중등연령(만13세~15세), 고등연령(만16세~18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연령 청소년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사회성 발달의 특징은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면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래집단을 구성하고 소속감이 무엇인지 알아간다(정옥분, 2002). 또래집단의 영향이 커지기는 하나 부모와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며 집단에 소속되어 규칙을 익히고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 중등연령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해당하며, 아동기에 비해 학교를 비롯한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발달시킨다(김경민, 최정원, 송지은, 2022).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집단을 구성하고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더 강해져 집단의 영향력이 부모나 교사보다 더 크고, 성적인 발달과 함께 자신에 대한 의식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성과 도덕성이 급격히 발달한다(Korpershoek, Canrinus, Fokkens-Bruinsma, & De-Boer, 2020). 고등연령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에 해당된다. 고등연령 청소년의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 극복, 자아정체성 확립,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 부모와 사회의 기대 부응, 진로 선택과 준비 등과 같은 발달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한다(강진령, 유형근, 2009). 고등연령 청소년은 저연령이나 중등연령의 청소년보다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

기고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보인다.

이 중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중등연령 청소년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여 타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면서, 자신에 대한 독특한 의미와 능력으로 집단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을 통합하려는 자아정체감이 발달한다(박아청, 1996). 자아정체감 발달이 주요과업인 중등연령 청소년에게 책임의식을 가질수 있는 자아정체감 교육과 또래와 협업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성취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정광희 등, 2015). 그러나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회의와 혼란방황이 길어지면 긍정적인 자아확립이 어렵게 되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막연해지는 역할혼미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면 심리·사회적으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Crespo-Molero & Sánchez-Romero, 2021). 중등연령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은 무기력을 호소하고, 가정이나 친구관계, 사회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며,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더욱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김혜영, 2000; 성은모, 윤나래, 2016).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청소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함께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여 더욱 회피적인 태도를 취한다(Crespo-Molero & Sánchez-Romero, 2021). 회피적인 사회적 태도는 고립과 소외로 인한 위축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이렇듯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사회에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래집단과 학교와 같은 사회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켜가는 방식을 배우고 유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잘못된 행동목표를 세우거나 부정적인 미래관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커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관련 이론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의 개념

사회성은 관점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로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 2022), 발달적 관점에서는 사회성을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정의하였고(Erikson, 1963; Gresham, Elliott, Vance, & Cook, 2011; Selman, 1980),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관계로 정의하였다(김동하, 2013; Caldarella & Merrel, 1997). 발달적 관점의 사회성은 인간의 발달 단계상의 개념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과 수용능력이 발달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한다(Gresham et al., 2011). 사회적 관점에서는 외부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 학습된 행동으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 즉 사회관계망을 포함하고 있다(Scheepers & Ellemers, 2019).

중등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사회성 연구에서 각각의 연구자가 사회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자별 사회성 개념

연구자	사회성 개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 관계의 원만성 따위이다.
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 (2022)	사회성이란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고 유지하려는 성격이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소속된 사회에 원할히 적응하는 정도이다.
이숙경(2023)	사회성이란 청소년이 또래 활동에서 감정을 표출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긍정적인 상호관계 속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말한다.
정관희, 조성제 (2023)	사회성이란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익혀가는 사회화의 과정이자, 사회생활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자아를 독립된 한 인격체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김종두, 정상목 (2022)	사회성이란 인간의 성숙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화와 동일시된다. 사회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 그리고 남과 잘 사귀는 성질로 정의한다.
최성미(2022)	사회성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점차 폭넓고 깊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며 인간이 성장 발달해가는 과정, 곧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	사회성 개념
김경민, 최정원, 송지원(2021)	사회성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서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의 적응정도를 말한다.
김광호(2021)	사회성이란 인성의 한 특성이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으로 타인, 사물, 공공, 법률, 습관과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다.
홍혜전(2020)	사회성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대인관계로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단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김나리(2019)	사회성은 인간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상호작용 능력이며 사회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되며, 갈등 발생 시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 충돌이 적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심민정, 문화진(2019)	인간이 사회 환경 속에서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안에서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며 적응하는 능력이다.
김태준, 이미라 (2017)	개인의 사회적응 정도 또는 대인관계의 원만성,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김현철, 황금주, 이일한(2017)	첫째,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는 인성, 성격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에 적응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김만수(2016)	사회성이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며, 관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적 결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표 2와 같이 중등연령의 사회성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성은 환경과 적응,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성은 발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소속된 집단에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정원 등(2022)은 사회성의 발달은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지·정서·행동의 양식을 학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이를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았다. 사회화는 사회적 성숙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적 태도, 지식, 문화 등을 습득하며 살아가는 사회생활 적응의 과정으로도 설명한다(채옥채, 안정화, 2020). 이에 따라 사회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 사회적 유능성, 친사회적 행동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은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사회화 과정, 사회화된 행동을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발달

적 관점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관점은 사회적 기술, 사회적 관계 등의 사회화 과정으로 정의하며,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은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포괄하되, 발달적 관점을 토대로 형성된 개인 요인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관계, 미래에 대한 탐색 등의 사회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관련 이론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이해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요인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고유의 사회성 특성을 검토하고 이해하고자 사회조망이론(Selman, 1980), 사회정체감이론(Tajfel & Turner, 1986)에서 근거를 찾아보았다.

가) 사회조망이론

사회조망이론은 타인과 관계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적·정서적 수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 주변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Selman, 1980). 사회조망능력은 사회인지 연구자들에 의해 세 가지 관점, 지각 조망, 인지적 조망, 정서적 조망으로 확대되어 연구하고 개념화되었다. 지각 조망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찰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인지적 조망은 타인의 의도, 생각, 지식 등의 사고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의 지식정도나 사고를 고려하여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추론하여 인지적 측면에서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정서적 조망은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상태를 공감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술로 공감과 이타심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여 대인관계 발달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Kim, LaRusso, Hsin, Harbaugh, Selman, & Snow, 2018).

Selman(1980)은 사회조망능력을 인지발달론과 연결하여 3세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0 단계에서 4단계에 걸쳐 다섯 단계로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Selman(1980)의 사회조망능력 단계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조망능력 단계

단계	조망수용단계	특징
0단계	자기중심적 조망 3-6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자신과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1단계	사회정보적 조망 6-8	타인의 입장이 자신의 조망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는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조망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2단계	자기반영적 조망 8-10	타인의 조망과 자신의 조망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동시 상호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3단계	상호적 조망 10-12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인과 자신의 조망을 동시에 이해가능하다.
4단계	사회적 조망 12-15	사회적 가치체계(법, 도덕)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고, 자신, 타인을 포함해 전체 사회체계의 조망을 이해할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중등연령 청소년은 사회구조적 조망능력 발달단계에 해당되어 일반화된 관점에서 사회체계를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어,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조망이 틀렸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조망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다(Selman, 1980). 사회체계를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견해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므로 사회적 합의나 타인의 견해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Fitzgerald, & White, 2003). 자기와 타인을 포함하여 개인은 물론 집단과 전체 사회체계의 조망을 이해하는 최상의 사회인지능력을 획득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심층적으로 발달한다(Kim, et al., 2018). 이러한 시기에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또래나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고 맞닥뜨리는 환경이 변화하여 사회적 조망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사회정체감이론

인간은 모두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 소속되어 소속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익히고 행동하며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체감을 형성해 간다. 사회정체감이론은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그 속에서 부여되는 가치, 자기개념 등 인지적 개념이며 목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연동이다(Tajfel & Turner, 1986). 국적, 문화, 종교와 같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며 소속된 집단에서 성취한 경험이 정체성을 더욱 강화

시킨다(Abrams & Hogg, 2006). 즉 사회정체감은 개인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집단, 학교, 직업과 같은 다양한 사회체계에서 찾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사회정체감은 외부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성한기, 2001; Tajfel & Turner, 1986). 또한 집단 속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며, 환경 속에서 개인이 행동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Scheepers & Ellemers, 2019).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 학교, 등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해 소속된 집단에서의 역할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정체감이 개인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주고(박영신, 김의철, 2005; Tajfel & Turner, 1986), 사회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 박탈 경험 수준이 낮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집단 내 편애를 적게 경험하고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하였다(박군석, 한덕웅, 2004). 공동체의식은 의사결정능력이나 사고력 등 개인적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사회적 협력이나 공익에 대한 의식이 향상된다. 특히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소년기에 소속집단인 또래의 수용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정서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박군석, 한덕웅, 2004; 진혜경, 2016), 삶의 전환을 경험할 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개인의 정서에 안정감과 수용감을 준다(Greenaway, Cruwys, & Haslam, 2016). 이렇듯 사회정체감은 집단소속감과 관련 있고,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어, 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정체감 형성은 건강한 성장의 필수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정체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부정성이 강해지며, 소속집단보다 더 나은 집단에 대한 거부반응과 경쟁심으로 인한 공격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노력이나 역할행동에 비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여 갈등을 유발한다(성한기, 2001).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사로 상호작용하여 집단구성원으로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 확장이 왕성한 중등연령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면, 이들은 소속되는 집단이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개념화하여 사회정체감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권육현, 허소정, 김영해, 이동훈, 2021). 사회정체감 위기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를 소극적으로 형성하게 되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이후 성인기 삶의 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체감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과 새롭게 소속되는 집단을 연결시켜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배양하고 집단에 가치를 부여함에서 가지는 자기개념이라고 정의한다.

3)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구성인

최정원 등(2022)은 사회성에 관한 국내 문헌 연구에서 총 13개의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조망하는 인지적 요소로 보았고, 근면성, 리더십,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은 심리·사회적 발달적 요소로 보았으며, 의사소통능력, 자기조절, 주장성, 책임감, 협동성은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 즉 행동적 요소로 보았다. 문성원(2003)은 Gresham과 Elliott(1990)의 중고생용 사회 기술척도(K-SRSS) 타당화 연구에서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협동성으로 구성요인을 구분하였다. 손수향, 김준수와 원유미(2021)의 연구에서는 활동성, 성취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으로 구분하였고, 김민경과 이근매(2013)는 준법성, 근면성, 자주성, 책임감, 협동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백봉렬(2012)은 정서적 안정감, 예절성, 근면성, 자율성, 준법성, 지도성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청소년실태조사(2008)에서는 자기표현 성취동기, 공동체성, 대인관계, 자기관리, 자아존중감, 낙관성, 행복감, 자신감, 문제해결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등연령 청소년 대상 국내 사회성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총 15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성 구성요인

연구자	요인(빈도)	공감 (12)	근면성 (3)	대인관계 (6)	사교성 (14)	수용 (2)	정서적안정감 (6)	의사소통 (2)	자기조절 (10)	자율성 (15)	리더십 (10)	주장성 (9)	준법성 (6)	책임성 (6)	협동성 (20)	활동성 (8)
김종두, 정상목(2022)				○												
신제인, 정경미(2022)		○						○				○		○	○	
김경민, 최정원, 송지은(2021)				○											○	
정숙희, 이가영, 박종석, 안기완(2021)					○		○			○	○					○
손수향, 김준수, 원유미(2021)					○					○	○					○
조미카, 구승희(2020)				○					○							
조현정, 김옥진, 강원국(2020)		○							○			○			○	
이양주, 임봉우(2020)					○		○			○						○

연구자	요인(빈도)	공감 (12)	근면성 (3)	대인관계 (6)	사교성 (14)	수용 (2)	정서적 안정감 (6)	의사소통 (2)	자기조절 (10)	자율성 (15)	리더십 (10)	주장성 (9)	준법성 (6)	책임성 (6)	협동성 (20)	활동성 (8)
정민, 김동진(2020)										○				○	○	
심민정, 문화진(2019)		○							○			○			○	
김나리(2019)			○		○						○				○	
김선희(2019)		○						○	○			○		○	○	
전애란(2019)		○							○			○			○	
김경표(2018)					○					○			○	○	○	
이병훈, 김하영(2018)					○		○				○					○
김준호, 안재식, 장경태(2017)		○								○					○	
문종숙, 최공집(2017)		○							○			○			○	
이수민, 노남숙(2017)				○					○							
조건상, 이승배(2017)			○		○					○			○		○	
김준호, 안재식, 장경태(2017)		○													○	
유화영, 이종한(2016)		○							○			○			○	
김동혁, 조선령(2016)					○	○							○			
박양규(2015)											○		○		○	
조현민, 최영준(2015)					○					○	○					
최정희, 김선웅(2015)					○					○						○
이승희(2015)					○		○			○	○					
김경은(2014)		○							○			○			○	
이재철 (2014)					○		○			○	○					○
황선환, 김홍설(2014)						○				○				○	○	
김민경, 이근매(2013)			○							○			○	○	○	
이에스더, 박미정(2013)		○							○			○			○	
윤성근(2013)					○		○			○	○					○
이인영(2013)		○		○							○					
정미경, 김갑숙(2013)					○					○			○		○	

표 4에서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성 구성요인은 사교성, 협동성, 리더십, 자율성, 근면성, 자기조절,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감, 주장성, 공감, 책임성, 활동성, 준법성,

수용, 의사소통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사회성 구성요인은 협동성이었으며 다음으로 자율성, 사교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주장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성 척도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유사한 개념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였다. 자기조절에 자기통제를 포함하였고, 대인관계에 또래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를 포함하였으며, 리더십에 지도성, 주도성, 지배성을 포함하여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성 요인을 추출하여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도구의 기초자료로 참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빈도 9이상을 나타낸 요인 중에서 협동성, 자율성, 공감, 자기조절을 추출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의사소통을 추가하였으며 사교성과 리더십은 제외하고 주장성은 의사소통 요인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사교성을 제외한 것은 사교성이 사회성의 하위요인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회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김형태(2017)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형태(2017)는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사람을 사귀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즐기지 않는 성격적인 측면을 주장하였으며, 사교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친절하고 친밀한 성격 등은 긍정적인 요소에 치우쳐 있어 그렇지 않은 성격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더십 또한 같은 맥락에서 타인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진간, 2021)을 강조하여 편향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정서적 안정감은 정서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중고 사회성 연구에서 많은 빈도로 연구되었으며, 폭발적인 내적갈등을 경험하는 중등연령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포함하였다(이재철, 2014; 조영미, 2015).

주장성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등을 나타내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Gresham & Ellitt, 1990). 이는 자신의 생각을 개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아차려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기술의 일환(김종두, 2010; Gresham & Ellitt, 1990)으로 볼 수 있어 주장성은 의사소통에 포함하였다. 또한 발달적 관점에서 중등연령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학교를 그만 두므로 인해 사회적 소속집단에 변화가 생겨 사회정체감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권옥현 등, 2021; 박영신, 김의철, 2005; Erikson, 1963) 사회정체감도 사회성 발달 구성요인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구성요인을 공감(공감과 수

용, 자기중심성, 타인에 대한 배려 필요 등), 사회정체감(소속감 강화, 위축감 완화 필요, 외로움 호소, 자존감 강화 등), 정서적 안정감(정서적 불안, 신경질, 안절부절, 과도한 부정성, 걱정 및 두려움 등), 자율성(규칙적인 생활, 책임감, 꾸준함 부족, 시간관리, 계획성 부족, 자기주도성, 외부활동 향상 필요 등), 자기조절(분노조절, 갈등해결, 스트레스관리, 끈기, 감정조절, 감정표현의 어려움, 좋아하는 것만 하고자 함, 수동성 등) 협동성(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 등), 의사소통(문제해결, 갈등회피성향, 자기주장능력, 친구 사귀는 법, 자기표현 어려움 향상 필요 등)으로 선정하고 개념을 살펴본다. 사회성 구성요인의 개념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성 구성요인의 개념

구성요인	개 념
공감	다른 사람의 느낌, 관점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으로 타인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사회정체감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그 속에서 부여되는 가치, 자기개념을 의미하며, 국적, 문화, 종교와 같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
정서적 안정감	정서적 안정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비교적 마음의 동요가 적은 특성을 뜻하며,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일을 추진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에 따른 감정을 유지함
자율성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고 스스로 행위를 제어하고,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 특성
자기조절	부모나 어른 또는 친구들과 갈등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이끌어 내며,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
협동성	타인을 돕고 자료나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행동 등을 포괄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우선적인 행동 특성을 보임
의사소통	주변 세계를 지각하고, 정보를 획득하며, 의미를 창조하는 등 개인 내적 과정과 정보를 주고받는 외적 과정으로 구성된 상호 소통과정

표5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서 다룰 사회성 요인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감은 타인의 느낌과 관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의미(Parlangeli et al., 2019)하는 것으로 조망하기, 상상하기 등을 통해 타인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김나리, 2019)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사회적

조망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공감은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자신에 대한 확신, 신념, 생각이나 평가 등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식을 뜻하는 자아정체감(박아청, 1996; Erikson, 1963)을 바탕으로 소속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을 사회정체감이라 한다(Tajfel & Turner, 1986). 개인은 긍정적인 사회정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며, 이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해 우호적이고 외부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권옥현 등, 2021; Scheepers & Ellemers, 2019; Tajfel & Turner, 1986).

셋째, 정서적 안정감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비교적 마음의 동요가 적은 것을 뜻하며, 감정의 안정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의 안정과 감정의 변화가 빈번하지 않은 것을 모두 의미한다(이재철, 2014). 인간은 정서적인 안정 없이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정서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성적인 인지와 판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서에 의해 쉽게 왜곡된다(Hills & Argyle, 2001). 정서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중등연령 청소년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쉽게 흥분하는 특성이 있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이들의 정서를 다루는데 필수요소로 판단된다.

넷째, 자율성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고 스스로 행위를 제어하고,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 특성으로 진로발달과도 관련이 있으며, 자율성은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서적 측면을 나타낸다(오은경, 2014). 자율성은 부모에게서 독립된 자율적인 존재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나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Beyers, Loeber, Wikström, & Stouthamer-Loeber, 2001; Blos, 1983). 즉 자율성은 자신을 탈부모화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행동이나 일을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청소년 스스로 하루일과와 같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섯째, 자기조절은 부모나 친구들과 갈등 장면에서 감정을 차분하게 조절하여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자신의 인지·정서·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문성원, 2003).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은 분노와 짜증, 충동과 같은 부정 감정을 조절하고 당면한 과제나 문제상황을 도전이나 위협 등으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것을 관리하는 능력이며, 억제하고 통제 조절하는 능력(김민정, 2018)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정서적 요인으로 규정한다.

여섯째, 협동성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관계기술로 볼 수 있다. 협동성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참여적이며 자기주장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해함으로써 공공을 위하여 봉사 정신을 발휘함을 뜻한다(문성원, 2003). 협동성은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개인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능력으로 청소년의 사회성을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일곱째, 의사소통은 타인과 쉽게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친해져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행동을 말하며, 관계나 환경의 상호 소통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김중두, 2010). 의사소통은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자기주장적 의사소통과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기주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김가연, 2022),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발견하게 하여(한난희, 김혜숙, 2014) 긍정적인 자기정체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등연령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더 이상 학교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없으며,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자본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을 통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 요인으로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사고와 같은 형식적인 인지적 조작이 활발해진다(서동욱, 2016). 더불어 자신이 환경에 반응하고 존재를 확인하여 개념화하는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박아청, 1996). 중등연령 청소년의 경우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쉬운 시기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에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친구관계나 학업수행에 변화가 생겨 자신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개념화와 효능감에 회의를 가지게 되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금명자, 2008). 이러한 성장 과정에 있는 중등연령 청소년이 성숙을 위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인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부모는 청소년이 태어나면서부터 보호와 지지를 받으며 신체·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사회화 과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가정 요인이라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부모의 대인관계 성향,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내·외향성 등의 성격적 특성과 자녀에 대한 애정과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같은 양육행동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부모와 가장 고민을 많이 나누고 소통하며, 향후 진로도 부모와 가장 많이 상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희진 등, 2021).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발달과정에 있고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또래나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에는 부모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칙 등을 통해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준다. 교사와 청소년 간의 관계에서 교사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지각되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회적 집단 속에서 교사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진혜경, 2016). 즉 학령기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더 이상 학교 생활을 지속하지 못함으로 인해 등교 시간이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 등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부모 외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교사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래와 어울림으로 인해 습득하는 협동과 통제, 구성원으로서의 기능 등의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권옥현 등, 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국가체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검정고시학원, 직업전문학원 등의 기관에서 비슷한 상황의 또래들과 교류하고,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매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은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어 외부활동을 줄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김경민 등, 2022).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중등연령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매우 감각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세대이며, 심각하고 따분한 것을 싫

어하고 재미있고 즉각적인 반응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풍자적이고 희화된 은어, 축약된 언어, 가볍고 빠르게 배달되는 음식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청소년의 사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한달 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휴대폰스마트폰으로 SNS, 카카오톡, 게임 등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에 사회환경적요인도 중요한 항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정체성, 사고의 발달, 부모와 가족구성원,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관계, 소셜미디어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는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과 더불어 전체 사회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관련 선행연구

중등연령 청소년은 아동기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로 부모를 비롯해 또래, 학교구성원과 주로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Hamre & Pianta, 2005). 특히 중등연령 청소년의 경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여 잠재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밖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친구와 교사들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며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등 기존의 생활에 비해 많은 변화를 준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져 사회적으로 위축된다(김혜영, 2020; 성은모, 윤나래, 2016).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가지는 선입견, 편견, 무시, 기회 박탈 등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과 불안,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김희진 등, 2021; 박동진, 김나연, 2019; 오은경, 2014; 전주희, 김혜미, 2020; 주희현, 서경현, 2013), 또래관계나 학업문제 등의 어려움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조혜정, 홍다영, 2017). 김영희와 최보영(2015)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집단소속감의 상실로 소외감과 두려움에 직면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을 때 더욱 부정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고(하여진, 2022), 가족과의 잦은 관계적 갈등은 자신의 가치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기에 무가치감과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권옥현 등, 2021; 김영희 최보영, 2015).

김희진 등(2020)은 일반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비교연구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 게임중독, 규정위반,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흡연 음주 등 지위비행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친한 친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각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업을 지원하고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연계가 되어야 하며, 또래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MZ세대 사회성 발달을 연구한 최정원 등(2022)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이 가장 낮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가장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 유형인 일반패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52%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7%만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또래나 대인 간의 교류자본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서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또래집단이나 청소년지도자들과 건강한 교류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나,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많은 중등연령 사회성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스포츠와 관련한 체육활동(김준호, 안재식, 정경태, 2017; 손수향, 김준수, 원유미, 2021; 이병훈, 김하영, 2018; 이양주, 임봉우, 2020; 정민, 김동진, 2020)과 음악을 이용하거나 연극, 인형, 문화예술활동 등 매체를 이용한 연구(김나리, 2019; 이수민, 노남숙, 2017; 전애란, 2019; 조미카, 구성희, 2020), 숲체험이나 산행, 동물, 사이버게임에 관한(김경민, 최정원, 송지은, 2021; 신제인, 정경미, 2021; 정숙희, 이가영, 박종석, 안기완, 2021; 조현정, 김옥진, 강원국, 2020) 활동중심의 집단프로그램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은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과업이며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를 움직이거나 체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활동적인 요소가 다수 첨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중등연령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선행연구 분석

가. 중등연령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은 의사소통 기술, 상호작용 기술, 친구 사귀는 기술,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한다(Walker & McConnell, 1993). 이러한 중등연령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성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사회성 프로그램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경청과 공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잘 분별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려 표현할 수 있고,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사회성 요소를 발달시킨다.

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1) 국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청소년기는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시기의 문화적, 사회적인 경험은 다른 시기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하연경, 2006). 청소년의 사회성은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가지게 하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며 책임성, 바람직한 가치관, 긍정적인 대처 등 사회생활에서 안정성과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운다(조장은, 2001).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전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박경수, 1993).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춰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최동선, 이상준, 2009). 이에 학교중단 청소년의 프로그램은 진로나 학업 복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진로 개입프로그램이 25.7%, 대인관계, 사회성을 다룬 프로그램이 17.14%,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 표현 훈련 프로그램이 2.86%, 학업복귀훈련, 캠프프로그램이 각각 5.71%로 나타나고 있어(박소현, 2019) 사회성에 관련된 집단프로그램은 한정적이다.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연구를 살펴보면 임수진(2020)의 ‘학교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이 있다. 이야기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구성 요인은 사회성, 자기효능감, 관계성이다. 회기는 8회기(회기당 80분)로 이야기를 통한 상담자와 상호작용, 문제의 해체 과정, 치료적 시각화, 재저작 대화, 대안적 이야기 구성, 대안적 이야기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 능력, 개별성-관계성, 자기효능감 등 사회기술의 모든 하위요인에 효과가 있었다. 오혜영 등(2011)은 ‘학교중단 청소년 학업 복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안전한 심리적 공간, 희망 고취, 정서 표현과 객관적 조망 능력, 자기 통제력, 구체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학업 동기에 효과가 있었다. 양미진 등(2007)은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중단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캠프 운영을 통해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재욱(2018)은 체험적 목공 프로그램이 초·중·고학년 밖 청소년의 사회기술이 향상시키고, 사회로의 복귀, 장기적인 계획 수립 능력, 원만한 교우관계, 성취감 등에 변화를 주었다고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일반청소년 모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임은실과 이세순(2018), 문화진(2019), 이경상 등(2005), 김보람 등(2015)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개입에 비해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단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연구명	연구자 (년도)	회기 (시간)	구성 요인	측정 도구	프로그램 효과
학업 중단 청소년 학업 복귀 강화 프로그램개발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이정실 (2011)	12회기 (24시간)	안전한 심리적 공간, 희망의 고취, 정서표현과 객관적 조망능력, 자기통제력, 구체적 정보와 네트워크	학업동기, 진로적응, 자아효능감, 자기통제,	효과: 학업동기, 효과없음 진로적응, 자아효능감, 자기통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개발연구	양미진 지승희 이지영 김태성 (2007)	3박 4일	성공경험 학습, 모델링, 대인관계능력 향상, 분노조절, 충동성 조절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변화척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효과없음 자기 통제력

연구명	연구자 (년도)	회기 (시간)	구성 요인	측정 도구	프로그램 효과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이야기 치료 중심으로	임수진 (2020)	8회기 (1회: 1시간 20분)	이야기를 통한 상호작용, 문제의 해체과정, 치료적 시각화, 재저작대화, 대안적 이야기 구성, 대안적 이야기 강화	대인관계능력 개별성-관계성 자기효능감	대인 관계 능력, 개별성-관계성, 자기효능감
학업 중단 청소년 기숙형 대안 캠프 프로그램개발	황순길, 정현주, 김범구, 양대회, 이은경 (2012)	9박10일	학교중단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과 같은 자아개념의 향상, 목표의식 강화, 대인관계 기술 증진, 집단응집력 강화, 규칙적인 생활 태도의 습득, 부모-자녀관계의 증진	청소년 대상 관찰	자신감회복, 희망을 노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응집력 강화, 규칙적인 일상성 체득,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
교류 분석 재결단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생애 목표에 미치는 효과	조정미 김미점 김장희 (2018)	13회기 (회기별 60분~ 70분)	사회불안, 미래목표	한국판 사회공포증 청소년용 사회불안회피척도, 수행불안불안척도, SDT의 청소년용 생애목표	사회불안 효과없음 청소년의 생애목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인문치료 프로그램개발 및 효용성 연구	김가연 (2022)	16회기 (32시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향상
체험적 목공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등고학년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재욱 (2018)	주 1회 2~3시간 4~5주	창의적 자신감 향상 흥미도 향상 적응력 향상 사회복귀	참가자들의 사례 분석	사회로의 복귀, 장기적인 계획 수립 능력, 원만한 교우관계, 성취감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일반청소년 모두 효과가 있음

연구명	연구자 (년도)	회기 (시간)	구성 요인	측정 도구	프로그램 효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여	김혜진 (2013)	12회기 (1회기: 60분~ 90분)	사이코드라마 통합예술매체 게슈탈트 치료	학교부적응 사회성	학교부적응, 사회성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주희현, 서경현 (2013)	8회기 (1회기: 50분)	변화에 대한 동기 및 도전의식 고취, 자기가치 제고, 자기인식 향상, 흥미의 파악 및 통찰, 의사소통 기술 습득	자존감 소외감 대인관계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 소외감, 사회성 발달에 효과 대인관계 불안,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보호 위탁 청소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경은 (2007)	10회기 (1회기: 50~ 60분)	사회 적응력 향상 대인관계 증진	자존감 비행	자존감, 비행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음
정서 촉진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2018)	8회기 (489분)	부정적인 정서 탐색 수용 비합리적인 신념 수정 및 긍정적인 피드백, 감정조절 자신, 타인의 감정 이해 수용 정서수용 및 표현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기술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기술

2) 국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국외의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업 복귀, 진로, 취업에 초점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상습 결석 및 학교중단 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잡고 있으며 ‘조기 경고체계’를 구축하여 상습 결석 및 학교중단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학교 출석을 의무화하여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방문 치료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그 효과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Barth, 2009). 미국에서는 학교를 중단하는 것은 저임금, 실업, 투옥 및 빈곤을 포함한 수많은 해로운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김미숙, 배화옥, 2006)

Job Corps, YouthBuild, Service and Conservation Corps, National Guard Youth Challenge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조합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Bloom, Haskins, 2010). 영국에서는 학교 밖 아동 또는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으로 지칭한다.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법적 지침인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은 학업부진, 학대나 착취 피해자,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족’이 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하였다(이코리아, 2023). 이에 학교중단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서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 특수청소년 프로그램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Bloom, Haskins, 2010). 이렇게 국외에서는 학교를 중단한 이후 학교중단 청소년이 교육을 기회를 놓치고 경제적인 빈곤층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학업 복귀나 취업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국외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국외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연구 대상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효과
JOPO 프로그램	자존감 회복 지원체계 안내 신뢰 회복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7~9학년 학생(중1~중3)	맞춤형, 소규모 학습지도, 체험활동 중심	자기 효능감 소속감, 동기부여
Social Skills Training	듣기, 지시 따르기, 문제 해결 및 말할 때 알기 등 친사회적 기능	유아, 초등, 청소년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일반화를 위한 훈련	친사회적 행동 개선
OAE program	사회적 소속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및 학교에 대한 태도, 노력, 학업 성취도	12~18세 청소년	야외 모험 (OAE); 원격야외환경, 배낭여행, 바다카약과 같은 활동 등	리더십, 사회 정체성, 자아정체성, 협동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능력
The EQUIP program	긍정적인 또래 문화를 육성	아동, 청소년	도덕적 판단, 분노 관리, 사고 오류 수정 및 친 사회적 기술. 인지 행동 치료(CBT) 원칙을 기반	도덕적 판단, 분노관리 등 사회적 상호작용, 공감 기술
The ACCEPTS Program	수락, 피어 투 피어 기술, 성인과의 관계 기술, 자기 관리	장애아동, 모든 아동 청소년	기본적인 상호 작용 기술 잘 지내는 기술 (친구 사귀기 기술, 대처 기술)	사회기술 습득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연구 대상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효과
뉴찬스	다양한 교육, 고용 및 가족 서비스	고등학교를 중단한 16~22세의 십대 어머니	학업, 취업	검정 고시 수령 증가; 노동 시장 결과에 영향 없음
second-chance	교육, 훈련, 고용, 상담 및 사회 서비스의 조합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취업	효과에 대해 부정적
mdrrc	교육(보통 GED를 대상으로 함), 직업 훈련, 업무 경험 및 청소년 개발 활동	16세에서 24세 학교중단 청소년	교육, 훈련, 졸업, 취업, 진학	취업, 졸업 등 효과적
Tim Program	자신감, 동기부여 및 기술을 향상	16~25세의 학교 밖 청소년	고용, 교육, 훈련	자신감, 동기부여, 책임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관심, 관용, 자존감

3) 국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고찰

국내외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 대인관계, 사회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표현 훈련, 학교(학업) 복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박소현, 2019). 최동선, 이상준(2009)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진로, 학업 복귀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효과성 요인은 정신병리, 문제행동, 자아개념, 자기조절, 정서, 진로, 행동, 태도 변화, 대인관계, 사회성, 학업, 음주 등으로 구분하였다(박소현, 2019).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가장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영역을 메타분석해 보니 학업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소현, 2018; 오혜영 등, 2012;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2010).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를 갖지 못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됨으로써 진로, 취업과 관련 있는 다양한 도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중단의 원인은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래 요인, 학교 요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되어(조용태, 배영태, 2003) 다양한 형태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내면에 자리잡은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

면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적응력을 갖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적절한 기간동안 구조화된 지속형 단기캠프의 형태를 띠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양미진 등, 2006; Rawson, 1973; West & Crompton, 1999).

국외에서는 학교중단은 실업률 증가, 빈곤, 범죄, 이혼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고 사회참여를 늘리며, 사회적 불평등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입을 보급하고 있다(Bloom, Haskins, 2010). 최근에는 OST 활동이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스포츠, 클럽, 예술프로그램,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다. OST 활동 중 하나인 OAE프로그램은 향상된 자신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소속감 및 인내 등에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Richmond et al., 201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업 복귀나 취업을 목표로 사회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여 동기부여와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Fairbridge Programme, Get Started, Kent Community Programme, Archway Project 및 Team Programme, JOBS프로그램(Caplan et al., 1989)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있다.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에서의 평가에 따르면 참가자의 구직기술과 개인 숙달 감각을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무력감, 불안, 우울증 및 기타 스트레스 관련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Barry et., 2006; Barry & Nic Gabhainm, 2010; Caplan et al., 1989; Price et al., 1992, Vinokur et al., 1995a, b; Vuori & Silvonen, 2005). 또한 JOPO 프로그램, OST 활동 중 하나인 OAE프로그램은 향상된 자신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소속감 및 인내 등에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Richmond et al., 2017),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회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해보면 국내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회성 하위 구성 요인 중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의 논문에서는 자아정체성, 사회정체감 등과 자율성, 자기조절, 대인관계능력 증진 등 청소년 사회성 구성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사회성 발달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구성에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자아정체감, 사회정체감 등의 인지적 영역과 자율성, 자기조절과 정서적 영역,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상호작용 기술이 요구되는 행동적 영역을 고려하여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형식 면에서는 국내외 모두 체험이나 숙박 등이 포함되어있는 프로

그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사회성 발달프로그램의 동향도 체험이나 캠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효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신체활동 등도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이상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과 어려움, 사회성 발달의 특성과 관련 요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과 국외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는 가족, 또래를 포함한 지지기반의 존재는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희진 등, 2021).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과 어려움, 사회성 발달의 특성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중등연령에 맞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둘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국내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진로, 학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로 의사소통 기법(김영옥, 장명림, 유희정, 2009), 자기표현 및 주장력 향상(한난희, 김혜숙, 2014), 자기주장 훈련(이정숙, 이현, 안운영, 유정선, 권선주, 2011) 등이 대인관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대인관계가 심각한 중등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 중등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상 자기중심성 사고와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자신과 타인, 자신이 속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는 단계이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에 몰입하고 동조하는 단계로 자아정체성이 가장 발달하는 단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의사소통 기술 등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황순길 등(2012)은 기숙형 대안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동기가 강화되어 미래에 대한 목표 의식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캠프 활동을 대인관계 기술과 집단응집력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의 방법

가. 개인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효과

개인 프로그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문적 훈련을 전문가와의 대면관계에서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와 청소년이 일대일로 직접 대면하여 활동 및 교육을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처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와 전문가 간에 수용적이고 구조화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참여자 자신과 환경에 대해 의미 있는 이해를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심리적인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참여자의 성장과 발전을 향상시킨다.

개인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문제가 위태롭거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복잡한 경우,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심한 불안, 공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미숙하거나 민감한 청소년 경우, 개인 프로그램은 일대일로 진행되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용을 경험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청소년에게는 자기만 집중 받을 수 있어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진행자와 라포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추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진행자에게 의존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프로그램은 집단프로그램과 다르게 집단원과 친밀감을 가지는 경험을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을 즉각적으로 시도할 수 없는 단점과 특히, 사회성 측면에서 청소년 또래집단 간 서로 도와주는 경험을 할 수 없으며,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프로그램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효과적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고 어려운 비밀이야기를 노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편안하게 노출 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효과적이다.

나. 집단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효과

집단 프로그램은 비슷한 부분에 관심이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집단을 이루어 집단안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집단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만남과 적응을 경험하는 것이다. 집단프로그램은 수용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집단원간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회성과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을 통해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객관적일 수 있으며, 시간과 에너지가 덜 소모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진행자와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여 좀 더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가진 하나의 작은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실험과 학습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또래집단은 청소년을 지지하는 중요한 세력을 구성하게 되고, 이들로 구성된 집단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최상의 치료공간이 된다(Shechtman, 2004).

집단 프로그램의 단점으로는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하진 않으며, 집단원 모두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면 구성원의 개성이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의 집단 경험은 또 다른 불안과 부적응 행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은 자신에게만 집중된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자신의 특수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또래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집단에 소속되는 경험을 통해 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집단 내에서 안정감을 찾아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효과

비대면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화상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진행자와 참여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 속에서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이루지기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개인적 사항들이 대면보다 쉽게 다루어지며, 물리적 거리 등으로 프로그램을 중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감소 될 수 있다. 또한 접근성과 효율성이 장점이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즉각적으로 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단점으로는 비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참여자와 진행자 서로의 상호작용이나 라포형성이 어려울 수 있고, 진행자들과 참여자들이 콘텐츠

에 숙련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며,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현실감을 높이고 참여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 접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으므로 비밀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프로그램의 장점은 집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이버 세상에 더 익숙한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비언어적 표현의 소통이 어려우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 집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5. 소결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과 주요요인

2021년 교육청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학교중단 청소년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교중단은 학교생활을 통해 교사, 또래, 선배들과 상호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형성되는 자아정체감과 사회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학교를 중단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주변의 부정적 낙인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박동진, 김나연, 2019).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 어려움, 홈스쿨링, 해외입국,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학교를 중단하고, 학교중단 후에도 이전에 형성된 또래들과의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갖거나 사회생활을 하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더 많이 고려하는 연령이며, 고등학교 진학 혹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 사회성 향상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사회화 과정, 사회화된 행동을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은 개인적 요인의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요인의 사회적 관점을 포괄하는 사회화 과정으로 보고, 청소년의 사회성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조망이론과 사회정체감이론을 탐색하였다. 중등연령 청소년은 자기와 타인, 개인과 집단, 그리고 전체 사회체계의 조망을 이해하는 사회인지능력을 획득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심층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소속집단에 변화가 생겨, 또래나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고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적 조망능력 발달에 위협을 받게 된다. 또래집단과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사로 상호작용하여 집단구성원으로서 사회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중등연령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면, 학교에 다니는 동일연령의 친구들과 소속집단이 다름을 부정적으로 개념화하여, 사회정체감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프로그램과 평가도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성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사회성 요인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성 요인의 개념을 확인하고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을 추출하였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소속감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정체감을 추가 하였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표현과 걱정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의 정서적 안정감과, 청소년 자신의 시간과 생활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 성취해 가는 과정의 개념으로 자율성을 정의하였다. 협동성은 타인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고 협력하여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조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적 요소로 본다. 사회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인관계를 증진하고 원만한 적응을 위해 타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사소통에 포함하여 개념화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장 훈련, 학교(학업) 복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결과에는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이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학업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를 갖지 못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됨으로써 진로, 취업과 관련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을 우선시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성발달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의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적·정서적 기술을 촉진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긍정적인 청소년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가치 있는 사회성 기술, 정서적 능력을 증거기반으로 청소년의 역량 클러스터를 직접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사회성 프로그램은 체험이나 각종 매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의 국내외 사회성 발달프로그램의 동향 또한 체험이나 캠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연령대에 통합적으로 접근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성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까지 중등연령 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와 학교 밖 청소년 전체 연령대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을 통합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핵심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성 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향상시켜야 할 사회성 핵심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의 접근 방향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의 방법에는 개인·집단·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계가 미숙하거나 민감한 청소년인 경우 자신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충분히 다루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 프로그램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효과적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고 어려운 비밀이야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노출이 편안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효과적이다. 집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진행자와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면서 하나의 작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실험과 학습을 경험해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특수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또래들과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또래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집단에 소속되는 경험을 통해 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집단

내에서 안정감을 찾아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 형성도 기대된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익숙한 온라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루지기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개인적 사항들이 보다 쉽게 다루어질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접근성과 효율성이 장점이며,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헌연구결과 도출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프로그램의 운영형태는 하루에 2회기 씩 주 5회를 마라톤 방식으로 운영하는 집단프로그램이나, 하루 3회기씩 3일간 운영하는 데이 캠프, 2박 3일의 기숙형 캠프 등의 형태로 사회성 프로그램을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회성과 관련하여 다루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인 프로그램보다는 집단 프로그램이, 비대면 프로그램보다는 대면 프로그램이 사회성 향상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외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의 적용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나 운영형태 역시 본 연구에서 질적, 양적조사 결과를 분석해 나가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가. 프로그램 개발 절차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첫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목표를 공유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동·청소년 사회성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문헌연구와 현장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 후 사회성 요인을 탐색한다. 이후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성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켜야 할 사회성의 핵심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해 요구조사의 내용 분석과 문헌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발달프로그램에 포함될 자료를 수집·정리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활동요소를 선정하고 조직한다.

셋째, 수정·완성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절차를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수단이 강구된다. 이때 포함될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현재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결정한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은 양적 분석과 프로그램 만족도, 소감문, 프로그램 활동 내용에 대한 경험을 수집 분석한 질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다섯째, 참여자와 전문가 감수 및 자문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매뉴얼, 워크북, 교구재 등을 제작한다.

나. 프로그램 모형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김창대 등(2011)의 4단계 개발모형을 토대로 이정운(2022)이 수정한 모델을 사용한다. 1단계 기획, 2단계 구성, 3단계 실시, 4단계 평가 및 완성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프로그램 개발 절차모형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개발모형

1단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적, 내용에 대한 이론 검토 · 목적 및 목표의 정립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내용구성, 개발 기획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연구, 조사를 통한 이론적 기초 확립 · 학교 밖 청소년 연구,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이론적 기초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부모,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청소년 설문조사 · 요구조사를 통한 자료 분석 	요구분석
2단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모형 및 내용 선정 · 프로그램 구성요소 도식화 · 효과성 평가를 위한 척도구성 및 타당화 	모형 개발, 척도구성 및 타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요소 조직 및 활동 내용구성 · 프로그램 초안 개발 · 프로그램 검토 및 자체 평가 	프로그램 내용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및 평가 (1차) ·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전문가 자문(1차)
3단계 검증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관리 체계 확립 · 프로그램 운영 준비 	프로그램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 사전·사후 검사 만족도 실시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 · 전문가 감수 및 자문에 따른 수정·보완 (2차) 	효과분석, 평가 전문가자문 (2차)
4단계 평가.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프로그램 개발 완료 (매뉴얼, 워크북, 교구재 등 포함) 	개발완료

2. 프로그램 개발 기획

가. 문헌연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사회성 관련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연령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등연령 대상 국내 사회성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장 많이 다루어진 사회성 구성요인은 협동성, 자율성, 사교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주장성이었고, 국내외에서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기표현 및 주장력 향상, 사회정체감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신체·심리·인지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진행속도가 급격한 연령이면서 학교 밖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이 경험했거나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해결,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외로운 정서 다루기와 같은 심리·정서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한계점을 종합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구성요인으로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졌다. 자율성에는 일과를 관리하고 이루어 나가는 근면성을 포함하였고, 자기조절에는 부정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요소를 포함하였으며, 의사소통에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소통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요소를 개념에 수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충분히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소년, 보호자, 현장전문가의 면접조사자료를 심층분석하여 대상에 가장 적합한 사회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사회성요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질적연구 결과, 문헌연구 결과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요인으로 사회성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종 도출된 사회성 요인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사회성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체험이나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며, 최근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의 동향 또한 체험이나 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신체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높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집단, 비대면 등 모듈별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정체감 위기를 겪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아리나 자치활동 등의 운영형태를 접목하여 사회정체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나. 현장요구조사

현장요구조사 방법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 대상 개별면담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중등연령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의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하게 된다. 꿈드림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꿈드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가족은 꿈드림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성장기의 중등연령 청소년은 가족과 밀착된 생활을 하게 되어 부모나 보호자의 간섭을 많이 받지만,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 요구조사 대상을 청소년, 보호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 면담 혹은 온라인플랫폼(ZOOM)을 활용한 비대면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과 부모는 일대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는 집단면담 방식인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면담조사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들의 다양한 관심과 심리 정서적인 요인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자료 추출을 위해 청소년과 부모, 현장전문가의 면담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하여 사회적 구성요인을 추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족한 사회적 구성요인을 파악하였다.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최종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개별 면접 조사

가) 조사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과 현재 경험하는 또래 관계 및 사회적 관계, 사회성을 탐색하기 위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사회적 관점으로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사회환경적 요소, 미래탐색과 사회성 프로그램의 요구 등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 되어 있는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첫째,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 중인 만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 중 면접 참여를 희망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 둘째,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한 비대면 면담 또는 대면 면담이 가능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개별 면담은 2023년 6월에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학교 밖 청소년 특성

유형	참여자	성별	연령	지역	학업 형태 및 소속
청소년	청소년①	여	만14세	서울	서울시구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②	여	만14세	서울	서울시구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③	남	만14세	경북	경상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④	여	만14세	경북	경북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⑤	여	만13세	부산	부산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⑥	여	만14세	부산	부산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⑦	남	만15세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⑧	남	만13세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⑨	남	만14세	강원	강원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⑩	여	만13세	인천	인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면접 질문지

본 연구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문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용어 사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합의된 연구문제의 개념과 용어를

이용하여 대상별로 연구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셋째, 합의를 통해 반구조화 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넷째, 청소년 질문 목록을 만들고, 연구진들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 후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청소년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부록 1), 각 영역은 학교중단에 대한 탐색, 사회적 관점으로 부모(보호자), 친구, 꿈드림센터 실무자, 그 밖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 중등연령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고민되는 것, 원하는 것,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탐색 질문으로 구성했다.

다)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참여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협조를 구해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일간 면접 참여자 모집 안내를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모집 공지를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대면 면접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은 보호자와 청소년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과 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직접 대면 면담을 원할 때는 녹음을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면담은 ZOOM 회의 녹화 기능(기록)으로 녹화하여 온라인 면담을 하였다. 면담 시간은 청소년 당 약 60분 내외의 개인별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종료 후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라) 분석 방법

자료 정리를 위해 개별 면담의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된 녹음 및 녹화 자료를 전사한 축어록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작성된 현장 노트를 활용하였다. 또한 각 자료는 개별 및 집단별로 연구진 각자가 심층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신이 면담을 진행하였던 자료를 1차 분석하여 의미자료를 추출했으며, 1차로 분석한 후 각각 분석한 자료를 서로 검토하여, 분석 틀에 맞추어 각 사례를 재구성하였다. 2차 분석은 연구자의 모임에서 결과 보고 및 원자료와 달라진 의미 등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개별면접조사

가) 조사 대상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실시 전 연구 참여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자료로 쓰인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솔직한 대답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다. 면담 내용에는 현재 사회성과 관련된 관계, 기술, 발달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과 과정에 관한 이야기, 이후 생활, 보호자로서 어려운 점과 도움받고 싶은 점,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바람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면담대상자는 14명이며, 인터뷰는 연구자가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10과 같다.

표 10.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특성

유형	참여자	성별	연령	지역	자녀의 학업 형태 및 소속
보호자	보호자①	여	53	서울	서울시구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②	여	49	서울	서울시구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③	여	48	서울	서울시용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④	여	48	부산	부산시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⑤	남	37	부산	부산시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⑥	여	51	부산	부산시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⑦	여	46	부산	부산시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⑧	여	41	부산	부산사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⑨	여	49	경북	경북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⑩	여	43	경북	경상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⑪	여	47	춘천	강원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⑫	여	42	춘천	강원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⑬	여	45	인천	인천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자⑭	여	47	대전	대전시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면접 질문지

면접 질문지는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용어 사용에 대해 합의한 후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반구조화로 구성하였다. 이후 각각의 대상별로 질문지를 만들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보호자 면접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학교중단에 대한 탐색으로 자녀의 학교중단의 원인 및 학교중단 당시의 경험, 학교를 그만둔 현재 생활이다. 둘째 사회적 관점으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꿈드림 센터 이용 및 실무자와의 관계, 그밖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환경적 요소, 미래에 대한 탐색이다. 셋째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사회성 영역에 대한 탐색이며, 넷째 중등연령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되는 것과 원하는 것, 다섯째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등이다.

다) 조사 방법

참여자 모집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모집 공지 후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일간 면담 참여자 모집 안내를 게시하고 안내하였다. 참여자가 모집된 후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플랫폼(ZOOM)을 통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음과 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전체 면담 과정을 녹화하였다. 면담 시간은 60분 정도 소요되며 인터뷰 종료 후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라) 분석 방법

개별 면담 분석은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개인별,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자신이 진행한 면접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추출하였다. 1차로 분석한 자료를 합의팀을 구성하여 각 의미를 검토하여 사례들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들을 2차 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때 원자료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의 개인정보, 녹음 자료, 축어록 등은 사용 후 별도 처리 과정을 거쳤다.

3) 현장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조사

가)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의 의견을 듣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운영형태, 내용,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기술 등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듣고자 하였다. 현장 전문가는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한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15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 소그룹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초점 집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전문가 특성

유형	참여자	성별	연령	지역	소속
전문가	전문가①	여	35	경기	경기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②	남	47	경기	경기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③	남	27	경기	경기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④	여	35	서울	서울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⑤	여	33	서울	서울구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⑥	여	37	서울	서울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⑦	남	43	경북	경북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⑧	여	47	경북	경북영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⑨	여	49	광주	광주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⑩	여	35	광주	광주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⑪	여	23	부산	부산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⑫	남	35	대구	대구수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⑬	여	51	경남	경남고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⑭	여	34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⑮	남	3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면접 질문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진 전체의 합의에 의해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우선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용어 사용에 대해 합의한 후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한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수정과 보완을 통해 최종적인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전문가 면접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여덟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부록 3), 질문지의 각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중단에 대한 탐색으로 중등연령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게 된 원인과 학교중단 당시의 경험, 학교를 그만 둔 현재의 생활이다. 둘째, 사회적 관점으로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친구관계, 꿈드림 센터 이용 및 실무자와의 관계, 그 밖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환경적 요소, 미래에 대한 탐색이다. 셋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 탐색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 중등연령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되는 것,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섯째,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이다. 여섯째, 부모(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이다. 일곱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었던 지원에 관한 질문이다. 여덟째, 전문가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다.

다) 조사 방법 및 인터뷰 실시

대상자 모집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모집 공지 후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일간 면담 참여자 모집 안내를 게시하였다. 모집기간 중 참여를 자원한 대상자는 총 15명이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2023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ZOOM)을 통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음과 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전체 면담 과정을 녹화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해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1 그룹당 면담 시간은 2~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종료 후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인터뷰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한 결과는 6월 말까지 축어록을 작성하고 7월 중순까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라) 분석 방법

개별 면담 분석은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자신이 진행한 면담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추출하였다. 1차로 분석한 자료를 연구진들 간 상호 검토하여 각 사례들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들을 2차 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때 원자료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의 개인정보, 녹음 자료, 축어록 등은 사용 후 별도 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가) 조사대상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심리 정서적 발달과 사회관계 및 기술 등을 알 수 있는 사회성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두게 된 원인, 생활 실태, 이용기관, 진로 계획,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도움받고 싶은 점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사회성 수준과 취약한 사회성요인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사전에 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사회성 관련 설문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응답을 완료한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은 중등연령에 해당되는 2007년에서 2011년의 학교 밖 청소년 274명이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고 누락된 항목,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수집된 설문 1부를 제외하고 273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조사결과 남자 114명(41.8%), 여자 159명(58.2%)였으며, 2008년생(30.8%), 친부모가정(83.9%)로 가장 많았고, 경제수준은 좋음(64.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중단 시기는 초등학교 때(23.8%), 중학교 1학년(22.0%), 학교에 입학하지 않음(21.2%) 순으로 나타났다. 79.8%의 청소년이 진로준비를 하고 있고 검정고시(62.3%)를 대비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53.1%)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14	41.8
	여자	159	58.2
출생연도	2007년	74	27.1
	2008년	84	30.8
	2009년	72	26.4
	2010년	29	10.6
	2011년	14	5.1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229	83.9
	재혼가정	9	3.3
	한부모가정	28	10.3
	조손가정	4	1.5
	친척	2	0.7
	기타	1	0.4
경제수준	매우어려움	8	2.9
	어려움	62	22.7
	좋음	176	64.5
	아주좋음	27	9.9
학교중단시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음	58	21.2
	초등학교 때	65	23.8
	중학교 1학년	60	22.0
	중학교 2학년	47	17.2
	중학교 3학년	43	15.8
진로준비여부	하고 있다	218	79.8
	하고 있지않다	55	20.2
진로준비방법	검정고시	170	62.3
	대안학교	80	29.3
	취업준비	16	5.9
	유학준비	12	4.4
	복교준비	4	1.5
	홈스쿨	6	2.2
거주지	대도시	97	35.5
	중소도시	145	53.1
	농어촌	31	11.4
전체		273	100

나) 설문지 구성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한 경험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첫째, 학교를 그만 둔 원인과 현재의 상황,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인구학적 설문자료를 개발하였다. 둘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증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중등연령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성관련 연구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회성 요소를 검토하여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셋째,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면접조사를 심층분석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넷째, 추출된 사회성 구성요인을 검토하여 각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설문지 문항을 선별하였다. 다섯째, 선별된 문항과 요구조사 심층분석, 문헌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여섯째, 다수의 반복적인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을 검토하고 중등연령 청소년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종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다) 조사방법 및 설문조사 실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모집 공지 후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일간 참여자 모집 안내를 게시하고 안내하였다. 설문조사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274명에게 온라인 링크와 지필검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통해 설문조사로 인해 예측가능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사전동의를 받았다. 설문실시 기간은 2023년 6월 28일에서 7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라) 분석방법

설문을 통해 조사된 자료는 설문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6.0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중단시기에 따른 차이와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문항과 문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5) 연구 윤리에 대한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권리나 안정, 복지를 위해 연구윤리 준수 사항 절차대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 모집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협조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면접조사와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목적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프로그램 내용을 밝히고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이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와 정보는 비밀보장이 됨을 알리고, 개인의 인적사항과 식별 가능한 정보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법에 의한 관리와 연구종료 시점에서 5년 뒤 모든 자료는 폐기됨을 고지하였다.

3.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척도구성

가. 문항선정 및 구성

문헌연구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성 수준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적절한 검사도구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측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척도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성 척도를 구성하는 목적은 첫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수준과 부족한 사회성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부족한 사회성 요인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것이며, 셋째, 구성된 사회성 척도로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사회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중등연령 청소년 사회성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사회성척도를 분석하고 청소년, 부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요인과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연구진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둘째, 선별된 문항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27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요구되는 사회성 구성요인과 문항을 구성하였다.

나. 문항 적합도 감수 및 자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척도 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등연령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타당성과 문항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학 교수 1인, 상담학 전공 박사 4인이 설문지를 개발하며, 설문조사 실시 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척도개발 관련 전공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내용에 따라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다. 시범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보완

문헌 연구와 요구조사를 통해 구성된 시범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및 진행방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2가지 집단을 운영하였다. 첫 번째로 대면 시범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면담에 참여했던 청소년을 포함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청소년 5명으로 진행하였으며, 운영방식은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2시간씩 총 8회로 진행하였다. 하루에 2회기 씩 총 4일간 8회기를 실시하거나, 3일간 데이캠프 형태로 8회기를 운영을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요구조사 결과 및 시범운영을 하게 될 학교밖지원센터와 논의하며 결정하였으며 비대면 시범프로그램 운영은 5명 내외의 프로그램 참여 희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학 교수 1인, 상담학 전공 박사 4인이 시범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프로그램 실시 전, 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관련 전공교수에게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였다. 또한 시범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들에게 회기마다 경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참여자 확인기법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보완 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현장요구조사 결과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개별 면접 조사결과

1) 청소년의 특성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 결과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탐색,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탐색, 미래 진로 탐색으로 나누었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탐색에서는 첫째, 개인적 특성은 잦은 이사로 인해 관계 맺기가 어려움,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질병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둘째, 학교 부적응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두려움과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달라 적응이 어려웠고, 외국에서 돌아와 낮은 학교적응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셋째, 부모 형제의 영향은 부모님의 홈스쿨 권유와 아버지의 사업관계로 인한 먼 지역으로 이동, 이미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권유나 주변의 홈스쿨링하는 사람이 많아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학교중단의 아쉬움은 친구들과의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소외감, 급식과 방과 후 수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교복을 입은 것에 대한 부러움, 수학여행과 단체활동에 대한 그리움, 또래들을 많이 접촉할 수 없는 기회의 부족함이라고 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탐색에서는 첫째, 정서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서 자기조절이 어려우며,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남의 지시나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들고, 선택에 있어 부모님의 의견을 많이 따르며, 성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 왔다 갔다하는 편이며,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다고 하였다. 둘째, 인지적 측면에서는 말을 들어주고 이해는 되나 공감하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아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셋째,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기 힘들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주장하기보다 숨길 때가 있으며, 힘든 상황이 생길 때나 이상하고 불편할 때 피하는 편이고, 협동과 관련하여 지시는 따르나 같이 잘하려고는 하지 않으며, 생각은 잘 표현할 수 있으나 감정은 표현하기 어려

우며,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성의 요소 중 공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사회정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성의 특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원인 및 이후 상황 탐색	개인적 특성	잡은 이사로 인해 관계 맺기가 어려움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필요성을 못 느낌
		질병으로 인한 학교 생활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
		친구들과 대화의 주제가 달라 적응하기가 어려움
		외국에서 돌아와 낯선 학교적응
	부모, 형제의 영향	부모님의 홈스쿨 권유
		아버지의 사업관계로 인한 먼 지역으로 이동
		형제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있었음
		오빠의 검정고시 후 대안학교 권유
		주변의 환경이 홈스쿨링이 많음
	학교 중단의 아쉬움	친구들과의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소외감
		급식과 방과 후 수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교복을 입은 것에 대한 부러움
		수학여행과 단체활동에 대한 그리움
또래들을 많이 접촉할 수 없는 기회의 부족함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탐색	정서적 측면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서 자기조절이 어려움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남의 지시나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들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 부모님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임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왔다 갔다함
	인지적 측면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는 되나 공감하기는 힘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아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모름
	행동적 측면	자신이 태어난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먼저 다가가기는 힘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기보다 숨길 때가 있음
		힘든 상황이 생길 때나 이상하고 불편할 때 피하는 편임
		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시는 따르나 먼저 적극적으로 잘하려고는 안 함
생각은 잘 표현할 수 있으나 감정은 표현하기 어려움		
또래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미래 및 진로 탐색	학업	영어, 수학 인강으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 과외선생님이 봐주심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함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학습 도움을 받음
		고졸 검정고시 패스 이후 수능을 준비 중
	진로	아직 뭘하고 싶은지 모름
		첼로, 피아노, 기타 등 다양한 것을 배우면서 탐색함
		보드선수를 꿈꾸고 성실하게 꾸준히 준비하고 있음
		꿈드림 센터 영향으로 사회복지학과나 심리상담에 관심
		꿈드림 센터 자격증 지원으로 한자, 석탄공예 등을 배우고 있음
		다양한 취미나 흥미있는 것을 배우려고 함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으로는 대인관계 탐색에서 첫째,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툼이 있으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였다. 둘째, 또래 관계에서는 학교 다니는 친구와 대화 주제가 맞지 않거나, 또래와 관계가 없어 소심해지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고 하였다. 셋째,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지받기도 하나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꿈드림 센터의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 외부에서 친해진 사람이 있으나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끝나면 만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또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 환경 탐색에서는 첫째, 사회적 환경에서 또래가 별로 없는 상황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꿈드림 센터에서 교육지원, 의료지원이 잘되는 편이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환경이 없다고 하였다. 둘째, 경제적 지원으로 부모님과 꿈드림 센터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미디어사용으로는 주로 유튜브로 드라마 시청, 취미 등을 배우고, 인스타와 카톡을 사용하며, 외국인과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 휴대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거나, 폰이 없어 친구들과 교류가 어렵다고 하였다.

꿈드림 센터 활용으로는 검정고시 학습프로그램 참여, 봉사 및 환경동아리 참여, 체육 대회 및 수학여행,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다. 꿈드림센터 이용의 장단점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친절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였다. 단점으로는 센터가 집과 먼 것과 프로그램이 너무 노는 분위기가 많으며,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표 1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대인관계 탐색	가족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깊은 대화와 초등학교 때보다 대화를 더 많이 함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관계가 나쁘지 않음
		부모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음
		아빠와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액티비티 활동을 많이 함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매간의 다툼이 있음.
	또래와의 관계	휴대폰이 없어 ZOOM으로 만나거나 손편지를 쓰며 소통함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는 없고 카톡으로만 연락함
		꿈드림 센터나 초등학교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남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대화주제가 맞지 않아 멀어짐
		친구들과 대화가 없어 소심하게 됨
		홈쿨링을 하면서 친구가 사라졌고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없음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인데 따로 만나지는 않음
	주변인들과의 관계	주변인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 처음에는 걱정하셨으나 현재는 지지해줌
		자신의 연령보다 어리거나 많으면 소통이 잘됨
		교회에서 같이 여행도 가고 친해진 사람이 있으나 연락을 하지 않음
		외국에 나갔다 와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없음
	꿈드림 센터 담당 선생님께 주기적으로 연락이 옴	
주변 환경 탐색	사회적 환경	자신에게 피해가 없었고 유해환경이 없음
		꿈드림 센터에서 교육지원, 의료지원이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함
		지역적으로 자신의 또래가 별로 없음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모두 지원함
		꿈드림센터에서 교통비와 참여수당을 받음
		꿈드림센터에서 자격증 학원비, 식비지원
	미디어 사용	폰이 없어 친구들과의 관계에 불편감이 있음
		휴대폰의 필요성을 못 느낌
		드라마, 유튜브를 통해 취미를 배움
		외국인들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눔
	숙제를 올리거나 주로 인스타, 카톡을 사용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꿈드림 센터 활용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함
		봉사 및 환경 동아리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가짐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또래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해짐
		다양한 진로체험(베이커리, 강아지 훈련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함
		경제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참여
		노래방과 농구 등 시설을 이용함
	꿈드림센터 장단점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자신을 믿어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좋았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유익함
		환경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어 좋았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음
		집과 센터의 거리가 너무 멀어 아쉬움
		프로그램이 노는 분위기와 지루함이 있었음

3)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 면담 결과, 자기 이해 프로그램으로는, 심리 검사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과 상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시스템을 원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서로 자기를 소개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그라운드처럼 게임을 할 수 있거나 또래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원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 교육에서는 공부법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대학 입시를 안내하는 매뉴얼이나 컨설팅, 문화강좌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구성되기를 원했다. 부모프로그램으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 부모님과 여행과 추억을 쌓는 등의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원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게임 형식, 상담, 대화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으로는 자연 친화적 놀이, 보드게임, 신체활동, 토론, 영화 보기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바랐다.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으로는 1박 2일 캠프, 2일간 몰아서 한꺼번에 하기, 일주일에 1~2시간, 한 번에 2~4시간 10회기 등을 원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시 걱정되는 것은 또래 관계, 소외감, 갈등과 안전 등이었다.

표 15.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	자기이해	MBTI같은 심리검사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
		상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보들이 모여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내용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음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상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상생활교육	편그라운드처럼 게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제공
		공부법 공유와 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안다니는 사람 간의 주제 토론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나 방향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매뉴얼 및 입시컨설팅
	부모 프로그램	문화강좌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해주었으면 함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부모들끼리의 자조모임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은 원하지 않음
		부모님과 함께 학습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원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	부모님과과의 여행과 추억을 쌓는 등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림을 그리고 맞추기 등과 같은 게임형식
		대화나 상담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함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 대한 요구	비대면보다 대면을 원함
		1박 2일 캠프식의 활동을 하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음
		독서 토론식으로 진행
전국 꿈드림센터를 돌아다니며 배우고 싶음		
자연 친화적인 놀이형식 프로그램 요구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운영	신체활동, 보드게임, 영화보기 등 다양한 매체로 활용
		한꺼번에 몰아서 2일
		1박 2일 캠프식 한 달에 두 번 정도
		3회기, 2시간
		일주일 1번, 한달에 4번 2시간
		10회기 이상, 일주일에 한두번 2시간~4시간
		일주일 1번, 1~2시간
	프로그램 참여 후 보상은 기프티콘, 수료증을 원함	
	참여시 염려되는 것	또래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걱정
안전에 대한 걱정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걱정

4)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 면접 조사 결과가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인 측면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정서적 안정감이 부족하여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자기 조절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감정 조절과 표현,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는 등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려워 성실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느낌,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공감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연령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소속감을 갖지만 학교에서 벗어나 있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속감을 가질 수 없어 사회정체감이 얻기가 어려운 것이 예측되는데, 본 인터뷰 결과에도 그렇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공감, 의사소통, 협동성, 사회정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에서의 시사점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다툼이 더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만 이로 인해 서로 갈등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래 관계에 있어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는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만날 기회도 자주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소심해지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조차 없어 혼자 지내거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날 때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형성되어야 할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또래 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인관계 기술들을 익히게 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는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심리검사, 상담, 조언 등을 원하고 있으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또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또래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생활 교육에서는 공부법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대학입시를 안내하는 매뉴얼, 컨설팅을 원하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길 원했다. 이는 중등연령 시기에 학업에 대한 걱정과 진로에 대한 생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상의 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프로그램에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과 여행 등을 원하였으며, 비대면 프로그램은 게임 형식, 상담, 대화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이는 대면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부모와 함께 활동적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원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상담, 대화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서도 보드게임, 신체활동, 자연 친화적 놀이, 토론, 영화 보기 등 다양한 매체로 참여하길 원하였으며, 운영 방법으로 1박 2일 캠프,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길게 하기, 한번에 2~4시간 10회기, 2일 동안 연이어 진행하기 등의 바램을 나타냈다. 이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매체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단기간에 친해지고 싶은 마음, 친해진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은 바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은 활동성이 많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캠프 형식이나 마라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후 친해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부모 개별 면접 조사결과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보호자 면접을 정리한 결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학교중단 원인, 사회성, 미래 및 진로 등으로 나타났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원인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은 크게, 자녀의 학교중단에 대한 개인적 상황, 학교 부적응, 부모, 형제의 영향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부모 형제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종교, 형제자매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이다. 개인적인 상황은 또래 관계의 어려움, 학교 다니는 것에 의미가 없거나 수업이 자신과 맞지 않고, 대안학교를 가거나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학폭, 학업 문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발적으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가 인식하는 자녀의 사회성에 있어서는 정서, 인지,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 처음에는 스케줄을 짜서 생활하려고 하지만 갈수록 생활에 있어 계획성이 없어지고 스스로 관리가 어려워 부모님이 스케줄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들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 있어 자율성, 자기조절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보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기 어렵고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부족하다고 하여 자아정체감, 사회정체감의 발달에 있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갈등 해결이나 자기주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자가 인식하는 자녀의 미래 및 진로 탐색에 있어 검정고시 준비, 진로에 대해 준비가 없음, 외국에 나갈 기회, 외국대학 준비 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업에 대한 멘토 프로그램, 진로 컨설턴트,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가 보고하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학교중단의 결정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 학교생활, 또래 관계, 청소년의 정서, 행동, 진로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결정으로 중단을 한 경우는 학교중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이후 자녀와 상의하고 결정하였다고 하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많고, 같이 공부해 나간다고 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였다. 자녀가 학교 중단을 결정했을 경우 학교 중단 이후의 준비가 없어 부모가 자녀의 교육이나 진로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시간 관리가 되지 않고, 학교 경험과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 부모, 자녀 모두 자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보고하였다. 보호자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특성은 아래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보호자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특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원인 및 이후 상황 탐색	개인적 상황	또래 관계의 어려움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
		친구, 선생님과 잘 지내고 학교생활을 잘함
		대안학교를 가기 위해
		친구가 없고 학교생활이 재미없음
		성적이 나쁘고 아이들이 무시함
		학교 다니는 것에 의미를 가지지 않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학교 부적응	왕따 경험, 학교폭력, 괴롭힘
		학업 문제 등 학교적응을 하지 못함
		학교 수업이 자신과 맞지 않음
	부모, 형제의 영향	부모들의 교육관, 공교육의 불신으로 권유
		형제자매가 홈스쿨링을 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권유
		해외에서 입국 후 일반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탐색	정서적 측면	시간 관리가 되지 않음
		감정조절이 어려움
		생활에 있어 계획성이 없고 관리가 안 됨
		해야 하는 일을 잘 하지 않음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인지적 측면	타인의 의견은 듣지 않음
		상대방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 중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
		항상 못한다고 생각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어려움
	행동적 측면	활동에 참여를 잘 하지 않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피함
		갈등 상황에서 무조건 수용하고 양보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 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말을 하지 않음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함
		자기 주장하는 것이 어려움
진로탐색과 준비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함
		진로에 대해 확실하게 계획이 없음
	외국대학을 준비	
미래 및 진로 탐색	학교 밖 교육 기회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	학업에 대한 멘토프로그램
		진로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
		부족한 학업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음
		독서, 그림, 악기 등 예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교육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길 원함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학습적인 부분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학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제공이 필요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 면담을 정리한 결과 대인관계, 주변 환경, 꿈드림 센터 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은 크게 가족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주변인들과의 관계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많고 특히 부모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청소년은 부모와 대화도 하지 않고,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관계가 협소하고 소수의 친구와는 만나지만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반면,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이나 상호작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등이 나타났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보고는 또래와의 관계는 어려워하지만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어른들이나 또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다고 하였다. 보호자가 보고하는 주변 환경은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고 있으며, 가정환경은 가족이 화목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경우와,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따라 자퇴 이후 대인관계나 진로, 미디어 사용 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원은 부족하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들은 청소년의 사회활동이나 학업 등을 위해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보다 필요할 때 이용하는 편이고 자신이 관심 있고 필요한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하며 특히 동아리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사회적관계 및 환경적 특성은 아래 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7. 보호자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대인관계 탐색	가족과의 관계	부모에 대한 이해가 많아 짐
		부모의 가치관 중심으로 자녀를 과잉보호함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
		자녀와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편안해짐
		형제자매와 다툼이 많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또래와의 관계	또래 관계가 협소한 편임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
		또래와의 관계를 어려워함
	주변인들과의 관계	또래보다 다른 연령대와 관계를 잘 형성함.
		사이버상에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과의 만남
		지지해 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함
	주변 환경 탐색	사회적 환경
가정의 문제로 자녀를 보살필 수 없음		
도시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접근성이 어려움		
유흥가 지역이라 환경이 열악함		
부모님의 맞벌이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		
사회·경제적 지원		자격증 지원 등 많은 지원이 됨
		건강 검진, 온라인 강좌지원 등이 되고 있음
		교통비, 아이들 생활비 지급 됨
		식비 등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바람
미디어 사용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학업 등을 위해 사용
		게임은 하지 않고 유튜브만 사용
		카카오톡의 과사용
		컴퓨터나 휴대폰 과사용으로 일상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함
		sns에서 만난 사람들과 상호소통을 함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불량한 태도를 보임
꿈드림 센터 활용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보다 단기적으로 참여함
		부모의 관심에 따라 참여가 달라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쉽게 접근
		견학이나 강의에 관심이 많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경우 신청
		학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음
	꿈드림 센터 활동	자신이 관심 있고, 필요한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
		오전보다 오후에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음
		동아리 활동에 대해 관심이 높음
	꿈드림 센터 장·단점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 어려워 함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면 좋겠음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함

3)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 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9와 같다.

우선, 보호자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성 관련 주제로 자기 이해, 정서, 행동, 인지, 진로에 대한 주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차리기, 자신의 강점을 찾고 강화하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법이나 자기 조절하는 방법 배우기 등을 요청하였다. 인지에 있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기를 원하였다. 정서와 관련하여서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행동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협동성,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등을 여러 가지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보호자를 위한 심리·정서적인 지원과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자녀와의 소통 방법 등을 다루어주기를 원했다. 구체적으로 심리·정서적인 지원은 부모 집단상담, 부모 개별상담,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자조 모임 등이었으며 부모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에 맞춘 교육,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사람들의 강연,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운영 방법이 도출되었는데, 여행이나 캠프,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요청하였고 중등연령 청소년 특징상 장기보다 단기 프로그램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직접 활동하는 대면과 비대면 모두 원하지만 가능하다면 대면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비대면인 경우 악기나 음악, 독서, 매체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집단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학업 공백이나 지원 등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속적이고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였으며 진로나 학업 등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표 18. 프로그램에 대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의견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자기 이해	MBTI 등 심리 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자신의 강점을 알고 강화하기	
		자신의 욕구 알아차리기	
		자기 수용하기	
	일상생활 교육	시간 관리하는 방법 배우기	
		자기 관리하는 방법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	
		친구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구성	또래 친구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영화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동아리 모임	
		글쓰기 프로그램	
		자기주장 프로그램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의 교류	
진로	미래 꿈하고 연관되는 프로그램		
	진로 컨설턴트		
	직업 체험 프로그램		
부모 프로그램	심리 정서적 지지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자조 모임	
		부모 개인 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사람들의 강연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양육 기술에 대한 교육	
		1박 2일 등 여행 프로그램	
		캠프나 체험 프로그램	
		아이들끼리 재능 기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형태 운영
			개인, 집단 프로그램 모두
			직접 활동하는 대면과 비대면 모두 원하지만 대부분 대면 프로그램을 원함.
			비대면인 경우 악기나 음악, 독서, 매체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원함.
			단기 프로그램
5~10회기 정도. 주 2회, 1~2시간			
참여 시 고려사항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4)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에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면담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는 자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수용하면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필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호자들은 대체로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가 확장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있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인 자녀가 성장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성 프로그램 중 홍보와 참여 단계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자의 인식에 따르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또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또래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협동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성 프로그램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훈련의 영역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제안한 주제는 자녀의 사회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체계나 보호자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성 프로그램은 부모의 심리 정서적 지원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의 심리 정서적 지지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다루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 현장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 조사결과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탐색, 사회성 탐색, 미래 및 진로 탐색의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탐색에서는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부정적인 성향, 자기중심적, 경계선이나 아스퍼저 등의 개인적 특성과 아토피, 빈혈 등의 질병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생활 중 비행과 학교 폭력, 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웠고, 학교 다니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학교중단의 사유가 되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유로 국제학교

진학, 해외유학 혹은 홈스쿨, 대안학교 진학을 이유로 학교를 중단하거나 형제가 먼저 학교중단을 하고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동생도 같이 학교중단을 하는 경우, 해외중도 입국으로 입학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중단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탐색에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외로움을 호소하며 부모의 주도로 움직이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등연령의 특성상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이 높거나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났다.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진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서툴고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선입견으로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연령과 중학교 3학년 연령의 인지적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공감능력이나 타인수용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또래와의 갈등 시 해결 방법을 모르거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 시 숨어버리는 회피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고, 부모의 개입이 많은 경우 부모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기 주도성이 결여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센터 내의 언니, 오빠들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 미래 및 진로 탐색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진학을 바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진로 및 직업 정보를 학교중단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인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특성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학교 중단 원인 및 상황 탐색	개인적 특성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성향, 적응하는 것 어려움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부족함
		자기중심적임
		경계선, 아스퍼거 장애로 또래관계가 어려움
		아토피, 빈혈 등 질병으로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음
	학교 부적응	비행, 학교 폭력, 따돌림
		학교 다니는 것에 의미를 가지지 않음
	부모, 형제의	부모의 교육적 가치관으로 선택함
		국제학교,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중단을 함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영향	대안학교, 홈스쿨을 위해 학교중단을 선택함
		형제가 먼저 학교중단 하면서 영향을 받음
		해외 중도 입국으로 학력 인정이 안되어 검정고시 준비를 함
청소년의 사회성 탐색	정서적 부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라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과 불안정한 아이들로 나뉘어짐
		고등연령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이 느껴짐
		검정고시 이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음
		부모에게 이끌려 다니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음
		자기 감정 조절이 안됨
		외로움을 많이 호소함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축감을 가지고 있음
	인지적 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서투름
		다른 친구와 친해져야하는 이유를 모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선입견으로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이 조금 떨어짐
		끈기있게 하는 의지나 경험이 부족함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음
		소속감이 불분명함
		중등연령은 중1과 중3 연령의 편차가 큼
	공감능력이 부족	
	행동적 부분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 갈등 해결이 안 됨
		시간관리가 안 됨/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킴
		스트레스 상황에서 숨는 경향이 있음/회피 성향
		부모의 개입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소수지만 자기관리를 하면서 계획대로 실천함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나 방법을 모름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책임감을 발휘함		
부모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많음		
센터 내의 언니, 오빠들, 지도자들의 행동을 모델링함		
부모의 과보호로 혼자 주도적으로 하지 못함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미래 및 진로 탐색	학업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함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으로 대학 입학 시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걱정함/면접관이 마이너스로 볼까 걱정됨
		고등학교에 갈지 검정고시로 대학을 갈지 고민함
		좋은 대학 진학이 목표임
	진로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동안 들어온 부정적 피드백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낮음
		학교에는 진로교사, 진로시간이 있지만 학교 밖 센터에서는 여건상 어려워서 상대적인 격차가 발생함
		초등 때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과 중등 때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접근이 다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낮음/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기회가 필요함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 특성은 대인관계, 주변 환경 탐색, 꿈드림 센터 활용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대인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주변인들과의 관계로 살펴보았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부모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보살피는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나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 과보호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비행이나 부정행위 등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꿈드림센터에 청소년을 무조건 일임하는 부모도 있었다. 그리고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만남의 기회가 적고, 지속적인 만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래관계는 주로 학원이나 교회활동 등으로 형성되거나 인터넷에서 사이버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으로 연결된 대인관계의 경우 비행으로 연결되는 일도 있었다. 간혹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중단 이후 외부 활동을 모두 접고 집에만 있는 경우 대인관계 단절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보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달라지며, 조손가정,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중단 후 일탈이나 비행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일상생활의 규모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중단으

로 여러 가지 예체능을 배울 기회가 축소됨으로써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도 있었다. 학교 밖 생활로 오는 정보의 부족은 미디어를 통해 충족하기도 하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의 참여도 활성화되는 기능적 측면도 있었다.

세 번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활용을 보면 부모의 관심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참여가 많았다. 지속적,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 연락을 끊어버리면 다시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는 제도권 내의 학교와는 달리 학교 밖 지원센터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고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선택하는 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먼저 센터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프로그램 참여 활동으로 다른 청소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 특성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대인관계 탐색	가족과의 관계	부모님이 정보력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녀를 챙김
		부모의 가치관 중심으로 자녀를 과잉보호함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무기력하고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을 방임
		부모의 권유로 학교중단 후 환경이 나빠져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이가 나빠짐
		비행, 부정 행위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손을 쓸 수 없어서 센터에 아이를 맡김
	또래와의 관계	대안학교 생활의 경우 그 안에서만 생활하므로 또래관계가 협소한 편임
		다른 사람과 친한 관계가 되면 의존성이 나타남/ 관계가 나빠지면 센터에 오지 않음
		학원, 교회, 인터넷 상으로 친구관계 형성함
		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끝나면 안 볼 사이, 친밀한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못 느낌, 장기간 함께 할 친구는 아님
	주변인들과 의 관계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기회가 별로 없음
		사이버 상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친구를 사귀고 비행으로 연결 되는 경우도 있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좁아짐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주변 환경 탐색	사회적 환경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달라짐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주변에 유흥가가 발달된 곳은 음주나 흡연을 빨리 접함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탈행동을 하기도 함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지원되는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	보호관찰, 조손가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청소년들은 지원체계가 부족함	
		부모의 경제력 부족으로 학업이나 예체능 쪽의 지원이 안 되는 등 경험의 기회가 결핍됨	
	미디어 사용	컴퓨터나 휴대폰 과사용으로 일상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함	
		맞벌이 가정이나 부모의 관여가 덜한 경우 하루종일 미디어에 노출됨	
		유해한 콘텐츠 노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함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거나 제한을 걸어 둠	
		가정 형편에 따라 디지털 활용 격차가 큼	
		센터의 활동을 홍보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함	
		디지털을 통해 센터의 기능을 알고 찾아오기도 함	
	디지털을 활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꿈드림 센터 활용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보다 단기적으로 참여함
			부모의 관심에 따라 참여가 달라짐
			프로그램 참여시키기까지가 힘이 듦
개별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다름			
10회기 참여를 끝까지 하는 것이 힘들/ 오랫동안 뭔가를 해본 경험이 부족			
프로그램 참여를 안해도 되고 늦어도 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움			
꿈드림 센터 활동		학교 밖 지원 센터가 필수가 아니어서 꿈드림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연락을 끊어버림/ 애써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안 함	
		선생님과 먼저 친해진 후 친구들 관계와 센터 적응을 함	

3)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내용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환경에 대한 요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는 자기 이해, 프로그램 내용, 일상생활 교육, 부모 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 대한 요구로 다시 분류하였다. 자기 이해 부분에서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자기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관계 맺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며 점점 늘어가는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공감, 배려심, 타인 이해 능력 향상, 감정 접촉, 자존감과 주도성, 주장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놀이 및 체험 위주의 활동, 결과물이 주어지는 매체 활동, 자격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 지원센터 특성상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연령, 중등연령, 고등연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 좋으며, 일상생활 교육에서는 기본 예의범절, 기초 소양교육, 시간관리 교육, 비속어 사용 자제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면서 나타나는 호칭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 교육에서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녀의 진로 방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을 보고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체험 활동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의 경우 참여도는 높으나 집중도가 낮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는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주는 방법, 여행이나 캠프 활용, 토론과 의견나누기, 성과위주보다는 즐거움과 적응을 돕는 방법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환경에 대한 요구는 프로그램 운영, 현장 전문가로서의 아쉬움, 현장 전문가로서의 보람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운영은 동아리 형태가 좋으며,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형태 모두 운영, 장기보다는 단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을 보고하였다. 운영회기는 8 ~ 10회기 구성, 주 1회 혹은 2회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좋으며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가 선호되며,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현장 전문가로서의 아쉬움은 저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중등연령과 고등연령 등 전체를 아우르는 역량의 한계, 부모들의 과도한 요구, 실적 위주의 행정과 낮은 처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시설 부

족, 예산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마음껏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현장 전문가로서의 보람에는 청소년들이 센터에 오고 싶어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스승의 날에 찾아와 감사하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	자기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 필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기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 알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름/대인관계 기술 필요
		온라인으로 대인관계 맺을 때의 유의 사항 교육
	프로그램 내용	공감 능력, 배려심, 타인이해 능력을 길러주는 정서적, 인지적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
		감정 접촉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
		주도성, 주장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재미있고 놀이, 체험 위주 또는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초등과 중등, 고등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음
		결과물이 주어지는 활동
		바리스타 자격증, 카페 운영 등 실제적인 활동이 도움이 됨
	모듈식으로 운영, 그다음 회기로 이어지기보다는 한 번에 완결되는 내용	
	일상생활 교육	기본적인 예의범절, 기초 소양 교육이 걸여
		시간 관리/ 일상 생활 훈련이 안 된 경우가 있음
		비속어 사용 자제, 호칭 문제 관련 교육
	부모 교육	청소년기 발달 특성/ 청소년 문화 이해 교육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 필요
		자녀 양육 방법 교육
		청소년, 부모와 함께 진로의 방향과 중요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함
	비대면 프로그램 내용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체험 활동
비대면은 참여도가 높으나 집중도는 낮음		
얼굴 보이고 목소리 내는 것을 싫어함		
학습적인 부분이나 교육은 비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 대한 요구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주면서 난이도를 높이는 활동
		수학여행이나 캠프를 활용하면 관계 형성이 잘 되고 사회성이 높아짐
		토론이나 의견을 나눠보는 활동
		성과보다 즐기고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음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환경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형태로 운영
		개인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모두 필요
		장기보다는 단기프로그램이 효과적임
		교육적인 것은 비대면, 활동하고 체험하는 것은 대면으로 운영
		8~10회기 구성, 주 2회, 2시간/4회기, 주 1회, 2시간
		오전보다는 오후에 운영해야 참여도가 높음
		프로그램을 센터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음
	현장 전문가로서의 아쉬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에 한계를 느낌
		점점 저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짐
		프로그램의 비전문가로서 한계/ 청소년 전문가이지만 세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님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의심을 받기도 함
		부모들의 과한 요구/불만과 불평이 많음
		나이가 어릴수록 손이 많이 가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함/ 부모의 간섭도 심함
		매일 학교처럼 오라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열악한 환경, 낮은 처우
		인력과 공간, 예산 부족
		실적 위주의 행정과 지원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함/ 업무 과부하
		지역별로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
	예산 부족, 공모사업으로 활동을 진행함	
현장 전문가로서의 보람	청소년들이 센터에 오고 싶어 할 때	
	검정고시 합격, 자격증 취득, 친구들 사귀는 것 보면 보람을 느낌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	
	스승의 날에 찾아와 인사할 때	

4)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

현장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 조사 결과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사유에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교육관 등에 의해 학교를 중단하고 홈스쿨이나 대안학교, 유학 등을 준비하기 위한 중단이 많았다. 또한 부모의 개입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에도 부모들의 선택과 권유가 중요하며 어린 연령일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누군가 학교중단을 하면 다른 형제도 학교중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구성 시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 등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대면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면 프로그램은 여행이나 캠프 등 신체 활동 중심, 체험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학습이나 교육 중심, 가상 체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의 선생님을 먼저 만나 친밀감이 형성된 후 센터 이용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센터 실무자들의 영향과 역할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센터의 실무자들은 저연령부터 고등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을 상대로 심리, 진로, 학습, 자립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운영이 주어진다면 실무자들에게는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현장 실무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여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 경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대체로 좋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친구와의 만남은 매일 75명(27.5%), 거의 만나지 않는다가 66명(24.2%)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좋은 편으로 인식하기는 하나, 거의 만나지 않는 청소년도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꿈드림을 이용하는 횟수는 월1-2회 89명(32.6%), 주1-2회 76명(27.8%)순으로 나타났고, 꿈드림 실무자와의 관계도 좋은편 163명(59.7%), 매우 좋은편 105명(38.5%)으로 268명(98.2%)의 청소년이 꿈드림 실무자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 경험에 대한결과는 아래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 경험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부모님과의 관계	매우나쁜편	2	0.7
	나쁜편	13	4.8
	좋은편	150	54.9
	아주좋은편	108	39.6
친구와의 관계	매우나쁜편	7	2.6
	나쁜편	26	9.5
	좋은편	163	59.7
	아주좋은편	77	28.2
친구와 만남횟수	매일	75	27.5
	2-3일에 한번	39	14.3
	1주일에 한번정도	44	16.1
	2주일에 한번정도	13	4.8
	한달에 한번정도	36	13.2
	거의만나지 않는다	66	24.2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꿈드림 이용횟수	주1-2회	76	27.8
	주3-4회	35	12.8
	월1-2회	89	32.6
	월3-4회	15	5.5
	방문이용안함	58	21.2
꿈드림 실무자와의 관계	매우나쁜편	3	1.1
	나쁜편	2	0.7
	좋은편	163	59.7
	아주좋은편	105	38.5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생활

청소년의 현재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하루일과 시간을 조사해 보았다. 8시 이전에 일어나는 청소년이 124명(45.4%), 8시에서 10시 사이 99명(36.6%),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명(1.1%)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는 97명(35.5%)이 8시 이전, 8시에서 10시 사이 88명(32.2%)순이었으며, 56명(20.5%)가 불규칙, 안 먹는다는 응답이 4명(1.5%)으로 조사되었다. 점심식사는 14시전 237명(86.8%), 저녁식사는 240명(87.9%)이 20시 전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규칙하거나 안먹음이 각각 19명(7.0%), 11명(4.0%)으로 조사되었다. 150명(54.9%)이 22시에서 24시 사이에 취침하며 24시 이후에 취침한다는 응답이 77명(28.2%)였다. 하루일과 중 주요 활동에 대해서 중복응답 조사하였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140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꿈드림프로그램참여 106명(38.8%), 직업훈련 78명(28.6%) 순으로 조사되어 직업선택을 위해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도 다수 나타났다. 청소년의 하루일과 시간 조사결과는 아래 표 23에 제시하였다.

표 23. 하루일과 시간 조사결과

구분	시간	빈도(명)	백분율(%)
기상시간	8시이전	124	45.4
	8시-10시	99	36.6
	10시-12시	47	17.2
	12시 이후	4	1.5
	불규칙	3	1.1

구분	시간	빈도(명)	백분율(%)
아침식사	8시이전	97	35.5
	8시-10시	88	32.2
	10시-12시	22	8.1
	12시 이후	6	2.2
	불규칙	56	20.5
	안먹음	4	1.5
점심식사	2시 이전	237	86.8
	2시-4시	13	4.8
	4시 이후	4	1.5
	안먹음	12	4.4
	불규칙	7	2.6
저녁식사	8시전	240	87.9
	8시-10시	19	7.0
	10시-12시	3	1.1
	안먹음	2	0.7
	불규칙	9	3.3
취침시간	10시전	40	14.7
	10시-12시	150	54.9
	12시-2시	62	22.7
	2시-4시	15	5.5
	불규칙	6	2.2
하루일과 활동 (중복응답)	검정고시학원수강	71	26.0
	꿈드림프로그램참여	106	38.8
	직업훈련	78	28.6
	아르바이트	13	4.8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140	52.3
	집안일 도움	76	27.8
	기타	34	12.5

다) 사회성 인식 조사결과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성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0점에서 10점까지 적어보게 하였다. 점수를 적어보면서 청소년 스스로 현재 사회적 관계를 되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응답한 사회성 점수는 7점으로 24.9%(68명)로 조사되었고, 8점과 10점이 각각 18.3%(5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이 응답한 자신의 사회성 점수 결과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사회성 점수 응답결과 단위: 명

사회성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명(%)	8 (2.9)	6 (2.2)	2 (0.7)	12 (4.4)	15 (5.5)	20 (7.3)	25 (9.2)	68 (24.9)	50 (18.3)	17 (6.2)	50 (18.3)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요구조사를 위해 사회성 7개 요인 중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의 순위를 조사해 보았다.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81명, 공감이 74명이었고 자기조절 33명, 정서적 안정감 2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성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 표 25에 제시하였다.

표 25.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성 요인 응답결과 단위: 명

요인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공감	74	50	51	27	18	30	32
사회정체감	20	40	42	27	38	43	62
정서적 안정감	28	29	49	40	57	45	24
자율성	19	18	17	61	47	51	59
자기조절	33	27	45	55	52	33	27
협동성	17	43	48	41	42	50	31
의사소통	81	66	30	20	18	20	37

표 25의 결과와 같이 청소년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사회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청소년기 고유의 특성인 내적인 갈등과 불안으로 인해 다양하고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표현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반영된 것(한중혜, 1997)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

여 수용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하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신이 부족하여 향상시켜야 하는 사회성에 대한 조사결과, 청소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성 요인은 공감(84명), 의사소통(55명), 사회정체감(43명), 자기 조절(3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계를 강화해 준다(Gordon & Jurkovic, 1987). 청소년들은 집단 속에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공감능력을 더욱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성 요인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 표 26에 제시하였다.

표 26. 향상시켜야 하는 사회성 요인 응답결과 단위: 명

요인 \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공감	84	34	22	26	24	28	55
사회정체감	43	60	32	40	26	38	34
정서적 안정감	17	35	73	43	49	36	20
자율성	19	27	37	64	43	40	43
자기 조절	39	31	37	44	68	26	28
협동성	16	51	34	34	39	72	27
의사소통	55	36	39	21	23	33	66

사회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자기계발활동이 13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화체육활동(113명, 41.4%), 종교활동(109명, 39.9%), 위원회 등의 청소년 자치활동(85명, 31.1%)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활동은 아래 표 27에 제시하였다.

표 27. 사회성 향상 활동 현황(중복응답)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사회성 향상 활동	동아리활동	80	29.3
	봉사활동	42	15.4
	종교활동	109	39.9
	청소년자치활동	85	31.1
	문화체육활동	113	41.4
	자기계발활동	130	47.6
	사회성발달교육	11	4.0

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

(1) 청소년의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방법 요구조사 결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조사해본결과 대면과 비대면 모두 괜찮다(121명, 44.3%)가 가장 많았고, 집단, 개인, 캠프 어떤 유형도 관계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도는 주1회(164명, 60.1%), 관계없음(64명, 23.4%) 순이었고, 1회당 시간은 2시간 101명(37.0%), 관계없음 59명(21.6%)로 나타났으며, 요일과 운영시간은 관계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방법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는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진행방법 요구조사 결과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진행방법	대면	90	33.0
	비대면	62	22.7
	모두 괜찮음	121	44.3
진행유형	개인	63	23.1
	집단	70	25.6
	캠프	50	18.3
	관계없음	90	33.0
빈도	주1회	164	60.1
	주2회	40	14.7
	주3회	4	1.5
	주4회	1	0.4
	관계없음	64	23.4
1회당 시간	1시간	65	23.8
	2시간	101	37.0
	4시간	19	7.0
	4시간이상	4	1.5
	1박2일	25	9.2
	관계없음	59	21.6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요일	월	51	18.7
	화	52	19.0
	수	44	16.1
	목	75	27.5
	금	87	31.9
	관계없음	122	44.7
운영시간	10시이후	71	26.0
	13시이후	65	23.8
	15시이후	48	17.6
	관계없음	89	32.6

(2)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의 놀이와 활동 요구조사 결과

청소년이 사회적 향상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은 활동영역이 많았다. 청소년의 요구를 활동영역과 학습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이나 만들기 등의 미술 활동과 요리, 간단한 게임, 체험이나 견학 등에 요구와 운동이나 스포츠활동, 영화관람 등의 요구가 나타났다. 또한 악기나 노래 등을 배워 합창단이나 밴드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책이나 공부를 함께하고자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래나 주변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대화하는 방법과 공감, 집단상담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청소년의 프로그램 반영놀이와 활동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는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의 놀이와 활동 요구조사 결과

영역	내용
활동	그림그리기, 만들기, 공작, 공예, 조각, 도자기
	요리, 푸드테라피, 다양한 베이킹
	보드게임, 레크레이션, 단체게임, 단체활동, 보물찾기, 오목
	견학, 놀이동산, 체험활동, 캠프, 봉사활동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농구, 축구, 탁구, 야구, 피구, 댄스, 수영, 스포츠활동, 스포츠관람
학습	영화관람, 연극관람, 뮤지컬
	악기, 노래, 합창, 밴드부결성
	공부, 독서토론, 책소개
	대화하는 법, 공감하는 법, 진로상담, 집단상담

2) 특성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가) 성별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성별에 따른 학교중단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t=-3.288(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학교중단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남자($M=2.22$)가 여자($M=3.05$)보다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등연령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를 더 일찍 그만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 중단시기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성별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구분	학교중단시기			<i>t</i>	<i>p</i>	
	<i>n</i>	<i>M</i>	<i>SD</i>			
성별	남자	114	2.51	1.325	-3.288***	.001
	여자	159	3.05	1.354		

주. * $p<.05$, ** $p<.01$ *** $p<.001$

나) 연령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연령에 따라 학교중단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20.984(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에 따라 학교 중단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생($M=3.62$)과 2008년생($M=3.12$)은 차이가 없으나 2009년생($M=2.26$), 2010년생($M=1.86$), 2011년생($M=2.82$)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생과 2008년생의 학교 중단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고, 2010년생의 학교 중단시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생과 2010년생 청소년을 비교해보면 평균의 차이가 약 2배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생 청소년의 모집단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중학교 1학년(2010년) 연령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학교중단을 가장 빨리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학교중단시기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연령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구분	학교중단시기			F	p	Scheffe'	
	n	M	SD				
연령	2007년 ^a	74	3.62	1.53	20.984***	.000	c,d,e<a
	2008년 ^b	84	3.12	1.13			
	2009년 ^c	72	2.26	1.04			
	2010년 ^d	29	1.86	.915			
	2011년 ^e	14	2.82	.725			

주. * $P<.05$, ** $P<.01$ *** $P<.001$

다) 거주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따라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하고, 8개 도의 시지역과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도시로 분류하였으며, 군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의 거주지에 따라 학교 중단시기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F=5.406(p<.0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에 따라 학교 중단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농어촌 청소년과 대도시, 중소도시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도시($M=3.16$)의 청소년이 중소도시의 청소년($M=2.59$)보다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더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교육환경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학교에 부적응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중소도시에 비해 더 많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이 중소도시에 비해 더 다양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의 차이 검정 결과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거주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구분	학교중단시기			F	p	Scheffe'	
	n	M	SD				
거주지	대도시 ^a	97	3.16	1.42	5.406**	.005	b<a
	중소도시 ^b	145	2.59	1.33			
	농어촌 ^c	31	2.82	1.11			

주. ** $P<.01$

라)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시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2.372(p<.09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의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무업형 청소년과 직업형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어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 중단시기에 차이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구분	학교중단시기			F	p
	n	M	SD		
유형	학업형 ^a	249	2.80	2.372	.095
	무업형 ^b	8	2.25		
	직업형 ^c	16	3.44		

주. ^a $p<.01$

마)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시기가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의 차이검정결과는 $F=1.883(p<.11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가족구성원과 학교중단시기의 평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구분	학교중단시기			F	p
	n	M	SD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229	2.75	1.883	.114
	재혼가정	9	2.78		
	한부모가정	28	3.32		
	조손가정	4	4.0		
	친척	2	2.50		
	기타	1	2.00		

주. ^a $p<.05$, ^b $p<.01$ ^c $p<.001$

바)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가정의 경제수준이 학교중단시기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른 차이는 Scheffé 사후검정하였다. 검정결과 $F=4.710(p<.00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는 경제수준이 아주 좋은 청소년 집단 ($M=4.13$)과 매우 어려운 집단($M=2.19$)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좋음과 어려움으로 응답한 집단과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경제수준이 어려운 청소년에 비해 학교를 중단하는 시기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5에 제시하였다.

표 35.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 차이검정 결과

구분	학교중단시기			F	p	Scheffe'	
	n	M	SD				
경제수준	아주 좋음 ^a	27	2.19	1.44	4.710**	.003	a<d
	좋음 ^b	176	2.82	1.37			
	어려움 ^c	62	2.94	1.22			
	매우어려움 ^d	8	4.13	.991			

주. * $P<.05$, ** $P<.01$ *** $P<.001$

결과를 보면 경제수준이 아주 좋은 청소년이 매우 어려운 청소년에 비해 학교중단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다수의 인원인 경제수준이 좋음과 어려움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중단시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검사결과

1) 사회성 구성요인에 검사결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답한 사회성 요인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성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협동성($M=3.00$)이었으며, 공감($M=2.95$), 의사소통($M=2.89$), 자기조절($M=2.79$), 자율성($M=2.77$), 사회정체감($M=2.57$), 정서적 안정감($M=2.57$) 순으로 나타났다. 1-4점 사이로 사회성 점수를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평균이상의 점수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왜도는 -.241~.322사이에 분포하고, 첨도는 -.221~.674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가 3미만이고 첨도가 10미만일 경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Kline, 2005).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검사 결과는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검사 결과 N=273

구성요인	M	SD	왜도	첨도
공감	2.95	.466	.119	.674
사회정체감	2.57	.530	-.241	.195
정서적 안정감	2.40	.563	.150	.212
자율성	2.71	.511	.322	.187
자기조절	2.76	.400	.133	.293
협동성	3.08	.452	.259	-.221
의사소통	2.89	.401	.049	.426

2) 특성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공감($t=-2.005, p<.046$)과 협동성($t=-2.348, p<.02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사회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감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남자($M=2.89$)가 여자($M=3.01$)보다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공감의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성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남자($M=3.08$)가 여자($M=3.1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성별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구성요인	성별	n	M	SD	t	p
공감	남자	114	2.89	.420	-2.005*	.046
	여자	159	3.01	.490		
사회정체감	남자	114	2.59	.469	.542	.588
	여자	159	2.55	.571		
정서적 안정감	남자	114	2.42	.568	.467	.641
	여자	159	2.38	.562		

구성요인	성별	<i>n</i>	<i>M</i>	<i>SD</i>	<i>t</i>	<i>p</i>
자율성	남자	114	2.66	.439	-1.427	.155
	여자	159	2.75	.555		
자기조절	남자	114	2.76	.369	-.075	.940
	여자	159	2.76	.428		
협동성	남자	114	3.01	.412	-2.348*	.020
	여자	159	3.14	.472		
의사소통	남자	114	2.87	.387	-.488	.626
	여자	159	2.90	.411		

주. **p*<.05, ***p*<.01 ****p*<.001

나) 연령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회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 사회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연령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구성요인	출생연도		<i>F</i>	<i>p</i>
	<i>M</i>	<i>SD</i>		
공감	3.04	.464	1.684	.154
사회정체감	2.57	.530	1.599	.175
정서적 안정감	2.24	.563	.564	.689
자율성	2.71	.511	1.402	.234
자기조절	2.76	.404	.286	.887
협동성	3.08	.452	.324	.862
의사소통	2.89	.401	1.952	.102

다) 거주지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

거주지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회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에 따라 사회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거주지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구성요인	거주지		F	p
	M	SD		
공감	2.96	.464	.782	.459
사회정체감	2.57	.530	.225	.798
정서적 안정감	2.40	.563	1.1.8	.332
자율성	2.71	.511	2.205	.112
자기조절	2.76	.402	.781	.459
협동성	3.08	.452	.211	.810
의사소통	2.89	.401	.135	.873

라)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기조절, 의사소통은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f=3.870, p<.022$)과 협동성($f=3.494, p<.032$)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40에 제시하였다.

표 40.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구성요인	학교 밖 청소년 유형		F	p
	M	SD		
공감	2.96	.464	1.945	.145
사회정체감	2.57	.530	.624	.537
정서적 안정감	2.40	.563	1.677	.189
자율성	2.71	.511	3.870*	.022
자기조절	2.76	.404	.841	.432
협동성	3.08	.452	3.494*	.032
의사소통	2.89	.401	.865	.422

주. * $p<.05$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자율성이 직업형 청소년($M=3.05$)과 무업형 청소년($M=2.60$)간에 평균의 차이가 $F=3.870(p<.022)$ 로 유

의하게 나타났고, 협동성 평균도 직업형 청소년($M=3.35$)과 무업형 청소년($M=2.90$)의 차이가 $F=3.494(p<.032)$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형 청소년이 무업형 청소년보다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고 스스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며 타인을 돕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협동행동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율성과 협동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41에 제시하였다.

표 41.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율성과 협동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구성요인	유형	M	SD	F	p	Scheffe'
자율성	학업형 ^a	2.69	.504	3.870*	.022	c<b
	직업형 ^b	3.05	.464			
	무업형 ^c	2.60	.614			
협동성	학업형 ^a	3.07	.455	3.494*	.032	c<b
	직업형 ^b	3.35	.354			
	무업형 ^c	2.90	.338			

주. * $p<.05$

마)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

가족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회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유형에 따라 사회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구성요인	가족유형		F	p
	M	SD		
공감	2.96	.465	.554	.696
사회정체감	2.57	.531	.298	.879
정서적 안정감	2.40	.564	1.649	.162
자율성	2.71	.511	.831	.507
자기조절	2.76	.404	.532	.712
협동성	3.08	.452	1.116	.349
의사소통	2.89	.401	.431	.786

바)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

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회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사회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아래 표 43에 제시하였다.

표 43.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성 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구성요인	경제수준		F	p
	M	SD		
공감	2.96	.464	2.101	.100
사회정체감	2.57	.530	1.542	.204
정서적 안정감	2.24	.563	.474	.700
자율성	2.71	.511	.698	.554
자기조절	2.76	.404	.395	.757
협동성	3.08	.452	2.159	.093
의사소통	2.89	.401	2.419	.067

3. 요구조사 결과에 따른 고려사항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후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질적 조사 인터뷰에서 청소년은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자신에 대한 이해, 부모는 또래관계,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현장전문가의 경우, 공감, 정서적 안정감, 의사소통의 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되기를 요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사회성은 공감, 정서적 안정감, 사회정체감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요구조사결과 각 대상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모두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사회성,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헌연구결과와 중등연령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회성 요소, 중등연령에 경험하는 강렬한 정서로 인해 불안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

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헌연구 회의, 청소년 특성 연구 회의 등을 거쳐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7가지 구성요소를 최종결정하였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 FGI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7가지 구성요소는 공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사회정체감이며, 각 구성 요소들을 회기 내에 충분히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중등연령의 역동성과 불안정한 정서들을 이완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대면의 경우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자료를 구성하였고 각 회기마다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성 관련 동영상 시청, 보드게임, 자연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하였다. 또한 미션을 통해 집단 원과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미션젠가게임, 협동 사다리게임을 개발하였다. 비대면의 경우 자기감정 알아차림을 돕는 감정 거울 만들기,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등연령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뇌 발달 변화를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자기이해를 도왔다. 또한 개인중심화가 높은 시기로 미래를 조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탐색 활동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4.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타당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질적연구, 양적연구를 통해 추출한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성 척도를 타당화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추출된 사회성의 구성요인은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으로 기존 사회성 관련 연구와 각 척도개발 연구에서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공감과 협동성은 Gresham과 Elliot(1990)이 개발한 사회적 기술 평가 체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문성원(2003)이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K-SSRS: 중고생용)에서 문항을 추출하였다. 정범모(1971)의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자율성 요인을 정숙희 등(2021)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조절은 Kendall과 Wilcox(1979)이 개발하고 송원영(1998)이 번안한 자기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를 오혜영 등(2011)이 학교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프로그램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활용하였다. 의사소통 문항은 한종혜(1997)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Bames와 Olson(1982)의 의사소통 검사의 개방적 의사소통 문항을 추출하고, 사회정체감 문항은 성한기(2001)가 제작한 사회정체감 척도에서 소속집단 내에 자신을 포함

시키고 소속된 집단의 생각이나 평가를 나에 대한 평가로 인식하는 집단범주화 문항을 참고하여, 문헌연구와 요구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추출하였다.

추출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타당화하였다. 먼저, 사회성 검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확인하였다.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다른 문항들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KMO 값이 .7이상이고,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구형성 검정 Bartlett 유의값 .05이하를 만족시키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적합성이 확인된 각 요인의 문항들의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공통성이 .5이하 일 경우 5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머지 50%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5이하일 경우 요인분석에서 제거한다. 이에 따라 공통성 추출값 .5이상으로 구성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도출된 사회성 척도는 43문항이며 공감 6문항, 사회정체감 8문항, 정서적 안정감 5문항, 자율성 3문항, 자기조절 9문항, 협동성 3문항, 의사소통 9문항이다. 1점 전혀아니다에서 4점 매우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 11개의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는 .873으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아래 표 44에 제시하였다.

표 44. 사회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공감	1, 2, 3, 4, 5, 6	6	.743
사회정체감	7, 8, 9, 10, 11, 12, 13, 14.	8	.793
정서적 안정감	15, 16, 17, 18, 19	5	.717
자율성	20, 21, 22	3	.682
자기조절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758
협동성	32, 33, 34	3	.689
의사소통	35, 36, 37, 38, 39, 40, 41, 42, 43	9	.713
전체		43	.873

주. *는 역채점 문항

5.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결과와 질적조사, 양적조사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은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사회성의 주요한 요소인 공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사회정체감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태도 대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 타인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경험한다.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셋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자기표현으로 정서적 감정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면하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기술을 습득한다.

넷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또래들과 협동을 해야하는 상황을 통해 협동성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켜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취 경험, 긍정적 자아상 회복, 자율성 증진, 친사회적 규범 습득, 소속감 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과 사회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나. 대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적용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와 어려움을 반영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가 제한적이고 그 횟수도 많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집단프로그램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중등연령의 발달적 관점에 맞게 구성하고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요소를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적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집단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실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적 관계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중등연령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로 자기중심적이며 또래에 동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보다 사회성이 부족하여(최정원 등, 2022) 관심과 흥미가 없는 일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 선호도에 대해 탐색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즐겁고 흥미로운 활동 중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는 신체활동, 미술 매체, 게임이나 놀이, 영화 매체, 연색 매체, 동·식물 매체, 요리 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중등연령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교구재를 개발하고 활용하였다.

넷째, 집단프로그램은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와 사람을 만나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므로, 집단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다만,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지역에 따라 꿈드림 센터가 거리가 멀거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여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의 활동을 개발하였다. 관련하여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대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프로그램으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부모(보호자)의 개입으로 가정에서도 프로그램이 연계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관계 즉 관계형성 역량과 바람직한 태도 함양에는 부모(보호자)의 관심과 지지, 부모(보호자)와의 상호작용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보호자)에게 안내문과 과제를 제시해서 자녀와 함께 실행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가 쉽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된 집단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집단프로그램 매뉴얼에는 자세한 진행 방법과 지도자의 멘트,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매뉴얼 그대로 쉽게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1) 프로그램 주요 주제 영역

문헌조사를 진행한 후에는 현장 전문가, 학교 밖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주요 요인은 문헌 연구와 면접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추출한 사회성 영역을 분석하여 제안되었다. 사회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와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추출된 사회성 요인은 공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사회정체감이었다. 프로그램 구성 시에는 사회성 요인과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최종 사회성 요인을 도출한 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프로그램 소개 및 관계 형성 영역에는 관계 형성, 사회성 이해로 친밀감 형성 및 집단규칙 정하기, 사회성 이해하기, 프로그램 목표 정하기로 구성하였다. 사회성 이해하기에서는 사회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서적 안정감 영역에서는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하기, 감정 알아차리기,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기 등을 세부 내용에 포함하였다.

셋째, 공감 능력 키우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공감 경험 나누기, 상대방에 시선 맞추기, 경청하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적절하게 공감하기 등을 내용 요소로 포함시켰다.

넷째,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성은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으로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자율성 영역으로 다양한 반려 생물체에 대해 알기, 스스로 선택하기, 역할에 맞는 행동 계획하고 행동 실천하기, 스스로 격려하기 등을 내용 요소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리는 능력인 자기조절 영역에서는 불편함과 인내를 견디며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는 반응을 찾아봄으로써 조절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스스로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상황에 맞게 자기조절 하기 등을 세부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여섯째,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인 의사소통은 또래 관계, 가족들과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부 내용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기, 나와 타인의 생각이 다름을 수용하기,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비폭력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비폭력 대화 연습하기 등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를 습득하여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일곱째,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협력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성은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협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협동성을 기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과 힘을 합하기,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기, 공동으로 작업하기 등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은 소속감을 가지기 어렵다. 이를 위한 사회 정체감 확립영역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동아리 구상하기, 동아리 활동 계획하기, 동아리 구성을 통한 소속감 및 사회 정체성 증진하기 등을 세부 내용에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요소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45. 프로그램 주요내용 요소

주요내용 요소	세부내용
관계형성, 사회성 이해하기	프로그램 소개 및 집단규칙 정하기
	친밀감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
	사회성 이해하기

주요내용 요소	세부내용
정서적 안정감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하기
	감정 알아차리기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기
공감 능력 키우기	다양한 공감 경험 나누기
	상대방에 시선 맞추기. 경청하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적절하게 공감하기
자율성	스스로 선택하기
	스스로 격려하기
	역할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자기조절	불편함과 인내를 견디며 감정 조절하기
	상황에 맞는 반응을 찾아봄으로써 조절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스스로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상황에 맞게 자기조절 하기
의사소통 기술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기
	나와 타인의 생각이 다름 수용하기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비폭력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비폭력 대화 연습하기
협동성 기르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과 힘을 합하기
	공동으로 작업하기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기
사회정체감 확립	내가 만들고 싶은 동아리 구상하기
	동아리 활동 계획하기
	동아리 구성을 통해 소속감과 사회정체감 증진하기

나) 부모 대상 개입

학교 밖 청소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심층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할 내용을 추출하였다. 자녀가 중등연령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되는 것, 원하는 것,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진행방법 등을 질문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사회성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가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매뉴얼에 부모용 안내문을 첨부함으로써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나 자녀와의 관계 형성 방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요소

가) 사회성 프로그램-청소년용

사회성 프로그램의 활동 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중등연령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활동은 체험, 신체활동 등 행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인지, 정서가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지, 정서적 요소를 통합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기술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배우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은 실제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회성 프로그램-부모 대상 개입

부모 대상의 개입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 외부활동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안내하여 과제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3) 대면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 및 주제별 활동 내용

가) 프로그램 구성상의 특징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은 문헌조사와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총 8회기로 구성하고, 1회기 90분을 목표로 하되 진행자가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자의 재량에 따라 회기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주제영역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되 확정된 프로그램과 순서에 고정되어 제시하기보다는 참여자의 특성과 운영하는 센터의 사정에 맞게 유연성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와 세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성 척도 설문조사 결과로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을 다루는 회기에 더 중점을 두고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시간 내에 내용 요소를 다루면서 주의집중과 흥미를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회기마다 사회성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은 전체 회기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조사와 요구조사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성 구성요소가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전보다 오후에 주로 활동한다는 보고를 참고하고, 운

영하는 센터의 사정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충분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90분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한 회기 당 사회성 구성요소 1~2 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고 각 주제 구성은 도입(20분), 활동(60분), 마무리(10분)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시범운영 후 지도자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나) 프로그램 주제별 내용 요소와 주요 활동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의 제목은 ‘더 자람(The Grow)’ 으로 하여, ‘성장을 목표로 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사회성이 성장한다’ 는 본 사회성 프로그램의 취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동시에 더 자람(The Grow)은 동아리명으로도 사용한다. 프로그램은 전체 8회기 내에 7개의 사회성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사회성과 관련된 요소는 정서적 안정감, 공감 능력 키우기, 자율성, 자기조절, 의사소통 기술, 협동성 기르기, 사회정체감 확립이다. 대면 프로그램 방법으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기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보호자, 현장전문가도 공통으로 제시한 자연 친화적 놀이, 보드게임, 신체활동, 토론, 영화 보기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면 프로그램의 주제 및 목표, 주요활동을 다음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대면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 주요활동

프로그램명	주제	목표	주요 활동
<1회기>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사회성이해)	프로그램 소개 및 규칙 정하기	- 사회성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안다. - 스스로 프로그램의 규칙을 정한다.	- 프로그램 소개 - 사전검사
	인터뷰 활동을 통한 친밀감 형성	- 인터뷰 게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고 친밀감을 형성한다.	- 인터뷰 지를 작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집단원을 찾아가서 인터뷰하여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한다.
	사회성 이해하기	- 사회성 스피드 게임을 통해 사회성을 이해한다.	- 사회성 카드를 활용하여 사회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한 사회성을 찾는다.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설정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별 목표를 설정한다. - 소속감과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개별 목표를 설정한다. - 단기 동아리 활동으로 소개하며, 집단활동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응집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명	주제	목표	주요 활동
<2회기> ‘내 감정은 내가 전문가’ (정서적 안정감)	감정 인식	-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알고 이해한다.	- 집단원 중 한 사람이 감정 카드에 있는 감정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집단원들은 맞추는 게임을 한다.
	감정 탐색	- 나와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 평소 자신의 표정을 거울 시트지에 비춰보고 그려본다. 이러한 표정들이 어떤 감정인지 나눈다.
	감정 만화 만들기	-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다.	-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상황 만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여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해보고 공감한다.
<3회기>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공감)	재미있는 공감놀이	- 서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한다.	- 학교중단 시, 중단 이후 지지와 공감받은 경험을 나눈다.
		- 친구의 경험과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	- 그림 팔빙수 활동자료를 통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 공감을 경험과 공감받았던 경험을 나누며 서로 지지해 준다.
		- 요리활동을 통해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전한다.	- 그림 팔빙수를 직접요리로 만들어 공감 팔빙수를 만든다. - 서로 나누었던 공감을 생각하면서 각종 공감 재료들을 토핑한다. - 공감 팔빙수로 자신이 공감하는 친구에게 공감을 전한다.
<4회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율성)	풍선 옮기기 게임	- 풍선 옮기기 게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함으로써 성공하는 경험을 한다.	- 자신의 풍선을 불어서 다리 사이에 끼우고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와서 오면 다른 팀원이 출발한다. - 풍선을 두 번 이상 떨어뜨리면 탈락이 된다.
	반려식물 만들기	- 다양한 반려 생물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반려 식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 다양한 반려 생물체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서로 나눈다. - 반려 식물 재료를 선택한다. - 테라리움 만드는 과정을 PPT를 보고 제작한다.

프로그램명	주제	목표	주요 활동
	반려식물 키우기	- 반려 식물을 스스로 잘 돌보고 키움으로써 자율성을 향상시킨다.	- 자신이 만든 테라리움을 반려식물로서 인식하고, 잘 키우기 위한 탐색 및 계획을 하고 집에 가져가서 잘 키우도록 한다.
<5회기> ‘더 괜찮은 나로 UP’ (자기조절)	미션 젠가게임	- 미션수행과 미션 팀 활동에서 원하지 않는 미션수행을 하는 경험을 통해 욕구, 행동을 조절하는 경험을 한다.	- 젠가에 미션이 적혀 있음을 안내하고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 자신이 뽑은 젠가에 적힌 미션을 수행하고 젠가가 무너지면 그 팀 전체가 미션을 수행한다.
	악기 만들기	- 악기 재료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양을 조절하여 악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절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 각종 곡물 및 다양한 재료를 선택한다. - 재료의 소리를 들어본다. - 양을 조절하여 악기를 만든다.
	만든 악기로 합주하기	- 팀원과 함께하는 합주를 통해 상황에 알맞은 자기조절을 할 수 있다.	- 재료별로 소리를 파악하고 합주단을 구성한다. - 다양한 재료로 만든 악기로 합주를 한다.
<6회기> ‘소통 UP! GO!’ (의사소통)	침묵의 피구	- 말을 하지 않고 피구를 하며, 소통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이해한다.	- 네트를 설치하거나 선을 그어 구분하고 말없이 풍선피구를 하여 소통의 답답함과 소중함을 느껴본다.
	영화치료 활동	- 의사소통 유형을 안다. - 영화 ‘마빈의 방’의 동영상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 ‘마빈의 방’을 시청한 후 등장인물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의사소통 활동지를 통해 짚지어 보고 나눈다. - 자신과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나눈다.
	비폭력 대화	-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고 자신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	- 의사소통 유형검사지를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본다. - 자신의 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해 가족, 타인들과의 대화에서의 문제점을 나눈다. -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연습하도록 한다.
<7회기> ‘함께 하면 행복해요’ (협동성)	협동사다리 게임을 통한 팀별 협동심 키우기	- 협동사다리게임을 통해 팀끼리 협동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심을 키운다.	- 협동사다리 게임을 하기위해 팀을 나누어 협동미션을 수행한다. - 도착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며, 모든팀이 도착지점에 협동하여 도착하면 강화물을 주어 성취감을 갖도록 한다.

프로그램명	주제	목표	주요 활동
	우리동네 맛집 탐색	- 우리동네 맛집을 탐색하고 평가함으로써 서로 간 협동하며 의견을 조율한다.	- 우리동네 맛집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조별 활동을 한다. - 다양한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검색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지역 맛집 리스트 만들기	-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서로 협력하여 검색도 하고 사진도 출력하며 맛집 리스트를 만든다.
<8회기> 'GO 사회 속으로' (사회정체감)	집단활동 동영상 감상	- 함께 했던 동아리 활동을 돌아보고 다양한 사회성을 인식한다.	- 집단활동 동영상 감상을 통해 함께 했던 시간의 소중함과 보람 등의 소감을 나눈다.
	동아리 만들기	- 그동안의 활동 중 관심사를 선택하여 동아리를 만든다.	- 그동안 활동한 내용 중 서로 토론했던 관심있는 활동(예. 미술활동, 요리활동, 악기활동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후에도 활동할 동아리를 구성한다.
	염색 손수건 선물하기	- 동아리 구성원 간 감사함을 표현하고, 소속감을 갖는다.	-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한 동아리 구성원끼리 염색 손수건을 만들어 선물해줌으로써 감사함을 표현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 마무리 격려하기	- 그동안 경험한 사회성에 대해 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마무리와 종결 감정을 나눈다. - 그동안 활동한 사회성 경험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일상생활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눈다. - 사회성 프로그램 수료증 증정, 사후검사

다)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과 세부 내용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각 회기의 주제와 프로그램의 운영 요소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제의 프로그램명은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로 서로 간 소개하고 친밀도를 높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회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사회성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집단원들이 다 함께 규칙을 정하게 함으로써 집단원의 참여도를 높인다.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인 '당신

은 누구십니까’ 는 인터뷰할 내용(좋아하는 것, 취미, 장점, 단점 등)을 작성한 이후 자신이 만나고 싶은 집단원을 만나 인터뷰한 뒤 인터뷰 한 상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활동 후 인터뷰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인상 깊은 것에 대해 나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사회성 이해를 위한 스피드게임’ 으로 사회성이 무엇인지 집단 원과 함께 나눈 이후에 사회성 카드 게임을 통해 사회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사회성에서의 자신의 강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 나눈다. 강점은 더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올려줄 나만의 사회성 문장을 만든다.

또한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어떤 면이 변화하고 싶은지 개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참여동기를 높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적 성장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목인 ‘더 자람(The Grow)’ 을 활용하여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목표와 개별 목표를 설정한다. 더 자람(The Grow) 의미부여를 통해 각각의 회기를 단기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점차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도 자율 동아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집력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자신과 가족의 장점에 대해 나누기 과제를 제시한다. 대면 프로그램 1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47에 제시하였고 사회성 카드 교구재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표 47. 대면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1. 사회성 이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친밀감을 형성한다. - 사회성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한다. - 인터뷰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 더 자람(The Grow)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향상 시킨다. 		
준비물	A4용지, 필기구, 사회성 카드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프로그램 소개 - 사회성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청소년이 인식한 사회성에 대해 알아본다. - 사회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프로그램 규칙과 목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알아본다. 	20분	A4용지 필기구

프로그램명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1. 사회성 이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활동을 통한 친밀감 형성 - 인터뷰 활동지를 활용하여 짝을 이룬 집단원을 인터뷰한다. - 인터뷰 활동에서 공감과 경청의 중요성을 알린다. -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짝을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이해를 위한 스피드게임 - 사회성 카드 게임을 활용하여 사회성 구성요인들에 대해 이해한다. - 팀을 나누어 사회성 각 구성요인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성 단어를 맞춘다. - 자신이 가장 부족한 사회성에 대해 나눈다. - 사회성을 올려줄 나만의 사회성 문장 만든다. - 프로그램을 마친 후 변화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여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제목인 더 자람(The Grow)을 활용하여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목표와 개별 목표를 설정한다. • 더 자람(The Grow) 의미부여를 통해 점차 소속감을 가지고 동아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집력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60분	A4용지 필기구 사회성카드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제시 : 가족이나 친구 장점 찾아보기 	10분	

두 번째 주제의 프로그램인 '내 감정은 내가 전문가 (정서적 안정감)' 프로그램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도입 활동에서는 '감정 카드를 활용한 몸으로 말해요' 게임으로 카드에 적혀 있는 감정들을 돌아가면서 표정과 몸으로 설명하고, 맞추면서 다양한 감정을 접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다양한 감정 목록을 제시하여 각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탐색 해 보도록 한다. 평소에 자신이 조절하기 힘들었던 감정, 조절하고 싶었던 감정이 무엇인지 나눈다. 다음으로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인 '감정 탐색'에서는 감정 카드에서 감정을 선택하여 그 감정이 들 때의 상황을 생각하고 표정을 지어보고, 그 표정을 거울 시트지에 그린 후, 그린 그림과 표정을 집단 원과 공유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두 번째 본 활동인 '감정만화 만들기'에서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어떤 감정 캐릭터들이 있는지 PPT로 설명하여 감정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에 맞는 상황을 집단원들이 설정하여

그 상황에서의 감정들을 의논하여 4절지에 만화 콘티를 작성하고, 그 콘티에 맞는 역할을 설정하고 만화를 앞에 나와 발표하며 간접적인 감정들을 표현한다. 이러한 활동은 감정 상황에 맞게 자신의 역할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될 수 있다. 마무리로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나눈다. 과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을 제시한다. 대면 프로그램 2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8. 대면 프로그램 2

프로그램명	'내 감정은 내가 전문가'- 더 자람(The Grow) 활동 주제2. 그림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카드를 활용한 게임을 통해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다. -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준비물	감정카드, 거울시트지, 보드마카펜과 지우개, 4절지, 네임펜, 연필, 지우개, 색연필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카드 게임을 통해 마음 열기 - 감정목록을 작성하여 다양한 감정 탐색한다. -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통해 감정에 대해 알아본다. - 게임 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20분	감정카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탐색 - 평소에 자신이 조절하기 힘들었던 감정, 조절하고 싶었던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나눈다. - 감정카드에서 감정단어를 선택하고 그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한다. - 자기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거울 속의 자신의 표정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 그림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그림 속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소개한다. 	60분	거울시트 보드마카 지우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만화 만들기 -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감정들을 알아본다. - 인사이드아웃 캐릭터에 맞게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일들을 만화영화 콘티로 만든다. - 자신이 만든 만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만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나눈다. - 감정조절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나누어 본다. 		4절지 네임펜 연필 지우개 색연필

프로그램명	'내 감정은 내가 전문가'- 더 자람(The Grow) 활동 주제2. 그림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제시 :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황에 맞게 조절해보는 연습하기 	10분	

세 번째 프로그램인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공감)' 프로그램 도입은 공감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입활동으로는 학교를 그만둘 때와 현재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나를 지지하고 공감해준 사람과의 공감 경험과 서로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 활동은 '공감하기, 공감팔빙수만들기'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또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나눈다. 친구들의 이야기 중 공감 가는 친구에게 팔빙수를 만들어 공감하는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공감 팔빙수 재료를 설명하고 재료들에 대해 감정을 부여하면서(예: 얼음- 행복, 젤리-달콤함, 팥- 사랑 등) 서로의 생각을 공감한다. 이후 자신이 공감하는 친구에게 줄 공감 팔빙수를 만들기 위해 재료들을 선택한다. 직접적으로 공감 팔빙수를 만드는 단계로 차례를 기다려 얼음을 갈고, 얼음 위에 공감 재료를 예쁘게 토핑하여 공감 팔빙수를 만든다. 자신이 만든 팔빙수로 친구에게 공감의 마음을 전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공감 팔빙수를 받았을 때의 느낌에 대해 나누고 타인에게 공감할 때와 공감 받았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단, 공감 요리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선택하여 할 수 있다(예: 공감 샌드위치, 공감 김밥, 공감 토스트 등). 과제로는 집에서 가족과 음식 한 가지를 만들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제시한다. 대면 프로그램 3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9에 제시하였다.

표 49. 대면 프로그램 3

프로그램명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3. 푸드테라피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해한다. - 팔빙수 나눔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능력을 증진한다. 		
준비물	빙수기, 얼음, 아이스크림, 팔빙수 팥, 연유, 과일통조림, 찰떡, 젤리, 우유, 일회용 용기, 숟가락, A4용지, 싸인펜(계절과 상황에 따라 재료 변경 가능)		

프로그램명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3. 푸드테라피 활동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둘 때 / 현재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나를 공감해 준 사람과의 공감 경험에 대해 나눈다. - 자신에게 소중한 것에 대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20분	토론 활동지 필기도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하기, 공감팔빙수 만들기 -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또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한다. - 공감 팔빙수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소개한다. - 재료를 설명하고 재료들에 대해 감정을 부여하도록 한다.(예: 얼음- 행복, 젤리-달콤함, 팔- 사랑 등). - 친구에게 주고 싶은 공감 팔빙수를 만들기 위해 공감 재료들을 구한다. - 획득한 재료로 팔빙수를 만든다. 이때 얼음갈기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진행한다.. - 그릇에 행복 얼음을 가득 담고 자신이 얻은 공감 재료로 예쁘게 토핑하여 공감 팔빙수를 만든다. - 공감 팔빙수를 친구에게 주며 공감 마음을 전한다. ※ 공감 요리의 종류는 여러가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메뉴얼에 제시한다(공감 샌드위치, 공감 주먹밥, 공감 꼬마김밥 등). 	60분	A4용지 싸인펜 빙수기 얼음 아이스크림 팔 연유 과일통조림 찰떡 젤리 우유 등 (계절과 상황에 따라 재료변경 가능)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누기 - 공감할 때와 받을 때의 느낌 나눈다. • 과제제시 :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공감 하며 음식하나 만들어 먹기 	10분	

네 번째 프로그램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은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원예치료를 응용하여 반려식물을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본 활동 실시 전 도입으로 ‘풍선 옮기기 게임’을 통해 집단원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인다. 풍선 옮기기 게임은 풍선을 다리 사이에 끼워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 옮기는 게임으로, 풍선을 많이 옮기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본 활동은 ‘반려식물에 대한 이해’, ‘테라리움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해 스스로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증가시켜 자율성을 발달하게 한다. 우선 다양한 반려 동식물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어 식물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 생명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활동에서 테라리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PPT를 통해 다양한 테라리움을 보여 준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식물과 좋아하

는 식물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고 어떤 테라리움을 만들지 생각해 본다. 테라리움을 만들 재료인 다육이, 용기, 마사토, 흙, 색모래 등을 분배하고, 식물을 세심히 관찰하며, 마사토, 흙, 색모래 등의 재료를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자신이 주도해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테라리움을 만드는 영상을 보여주고 리더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완성된 테라리움에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반려 식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반려 식물을 어떻게 돌보고 키울지에 대한 관리 방법과 계획을 나눈 후 하루 일과표 만들어 보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대면 프로그램 4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50에 제시하였다.

표 50. 대면 프로그램 4

프로그램명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4. 반려식물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주도하는 경험을 통해 자율성을 증진한다. - 반려 생명체를 키우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증진한다. -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운다. 		
준비물	용기, 다육이, 마사토, 색 모래, 배양토, PPT, 동영상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선 옮기기 게임을 통해 불편함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고, 자율성과 참을성을 키우도록 한다. - 자신의 풍선을 불어서 다리 사이에 끼우고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팀원들과 이어서 반환점을 돌아온다. 	20분	PPT 영상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식물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한다. - 다양한 반려 동식물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어 식물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 생명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반려 식물들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서로 나눈다. - PPT를 통해 테라리움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 어떤 테라리움이 좋은지 서로 나누어 보고 선택한다. • 테라리움 재료에 대한 탐구, 만들기 - 테라리움을 꾸밀 마사토와 흙 등을 나눈다. - 색모래나 흙 등을 만져보고 느낌을 나눈다. - 마사토를 바닥에 깔아준 뒤 색모래를 차례로 조심스럽게 넣는다. - 자갈을 차례로 넣은 후에 흙을 넣어 잘 다진다. - 식물을 심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다져주고 위에 장식한다. 	60분	용기 다육이 마사토 색 모래, 배양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 식물 키우기 - 테라리움의 색감을 느껴보고 나눈다. - 테라리움을 어디서 키울 것인지 나눈다. - 반려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탐색 및 계획을 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 제시 : 하루 일과표 만들기 	10분	

다섯 번째 프로그램인 ‘더 괜찮은 나로 UP’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조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평소 자기조절을 잘 했던 경험, 어려웠던 경험 등에 대해 떠올리고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본 활동 전 도입 프로그램으로는 참여자를 두 팀으로 나누어 ‘미션 젠가게임’을 한다. 미션(예; 친구 장점 2개 말하기,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이 적힌 젠가 토막을 뽑은 친구는 미션을 수행하고, 젠가를 무너뜨리면 그 팀 전체가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여 집단원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인다.

본 활동에서 첫 번째 활동은 다양한 곡물들을 이용한 ‘악기만들기’로 구성하였다. 먼저, 준비된 여러 가지 곡물들을 만지고 소리를 들어보게 하였다. 어떤 악기를 만들지 생각한 후에 도입 활동이었던 풍선 윽기기 게임에서 이긴 팀이 악기 재료를 먼저 고르게 한다. 선택한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 세기를 조절하면서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본다. 두 번째 활동은 ‘만든 악기로 합주하기’로 팀원끼리 어떤 연주를 할지 의논을 한 후에 연주한다. 상대 팀의 연주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데, 이때 피드백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지만 조절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조절해 보는 경험을 과제로 제시한다(예. 스마트폰 하는 시간의 양과 시간대를 선택하고 조절해보기). 대면 프로그램 5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51에 제시하였고 도입활동 중 활용한 젠가게임의 미션 스티커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표 51. 대면 프로그램 5

프로그램명	‘더 괜찮은 나로 UP’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5. 악기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젠가게임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한다. - 악기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기조절과 인내력을 키운다. - 악기 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며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준비물	풍선, 다양한 곡물, 페트병, 플라스틱 컵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 젠가게임 - 젠가게임의 미션들과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 팀을 나눈 후 미션이 부여된 젠가를 뽑는다. - 미션이 적힌 젠가를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고 미션을 수행한다. - 젠가가 무너지면 팀 전체가 미션을 수행한다. - 미션 수행을 어려워 할 경우 미션의 강도를 적당히 조절해 준다. 	20분	미션젠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만들기 - 다양한 곡물들의 소리를 들어본다. - 어떤 악기를 만들지 생각해본다. - 풍선 옮기기 게임에 이긴 팀부터 재료를 선택한다. - 악기를 만드는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고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양보하고 협동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 선택한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 본다. - 만든 악기로 세기와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내본다. • 만든 악기 합주하기 - 합주를 지휘할 책임자를 뽑는다. - 어떤 곡을 연주할지 서로 의논한다. - 연주할 곡을 선택한다. - 악기 합주한다. 	60분	풍선 다양한곡물 페트병 플라스틱 컵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누기 -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과 다짐을 나눈다. • 과제 제시 :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지만 조절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조절해 보는 경험 해보기(예. 스마트폰 하는 시간의 양과 시간대를 선택하고 조절해보기) 	10분	

여섯 번째 프로그램인 ‘소통 UP! GO!’ 프로그램의 주제는 영화치료를 응용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도입 활동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집단원을 두 팀으로 구성하여 풍선을 이용한 ‘침묵의 피구’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언어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본 활동은 영화 ‘마빈의 방’을 보고 난 후 영화 속 인물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활동지를 통해 연결해보고, 자신과 친구, 가족 등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서로 나누도록 한다. 다음으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법’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집단 원에게 가족 또는 친구 등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

는지 대화를 나누고 대화방식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리더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비폭력 대화법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 집단원들은 비폭력 대화법을 활용해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상황극을 만들어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 주위사람에게 비폭력 대화법으로 의사소통을 해보는 과제를 제시한다. 대면 프로그램 6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2. 대면 프로그램 6

프로그램명	‘소통 UP! GO!’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6. 영화치료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의미를 알아보고 중요성을 이해한다. -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한다. -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안다. -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준비물	풍선, 마빈의 방 영상물, 활동지, 필기구, ppt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묵의 피구 - 풍선을 활용한 침묵의 피구의 규칙과 활동방법을 설명한다. - 팀을 나누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구를 한다. - 게임 후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20분	풍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치료 활동 - 마빈의 방 동영상을 시청한다. - 다양한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장면들을 본다. - 의사소통에 대한 활동지에서 영화 장면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서 짝을 짓는다. - 활동지를 발표하면서 선택한 이유를 나눈다. -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나눈다. -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나눈다. • 비폭력 대화 - 비폭력 대화에 대해 설명한다. - 자신이나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나눈다. -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화방식에 대해 나누고 비폭력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비폭력 대화를 연습한다. 	60분	동영상 활동지 필기구 ppt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제시 : 가족이나 친구, 주위 사람 중에 비폭력 대화법으로 의사소통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비폭력 대화법으로 의사소통해 보기 	10분	

일곱 번째 프로그램인 ‘함께하면 행복해요(협동성)’ 프로그램은 협동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도입활동은 ‘협동사다리 게임’을 통하여 팀을 나누고, 팀원들 간 서로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특정구간에 도착했을 때, 팀원끼리 협력하여 미션을 수행하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한다. 미션을 잘 수행하고 도착지에 먼저 도착한 팀에게 보상물(사탕, 젤리 등)을 주고, 진 팀에게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진다. 본 활동은 집단원들의 협동작업을 통해 ‘우리 동네 맛집을 탐색’한 후 ‘우리 동네 맛집 리스트’를 만든다. 각종 검색도구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 음식점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 메뉴, 맛의 특성 등을 탐색하고, 협동으로 맛집 리스트를 작업하여 서로 소개한다. 검색이나 출력이 어려운 환경을 대비하여 그림이나 글로 소개하는 것도 제시한다. 맛집 리스트 만들기라는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기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공동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협동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마무리 단계에서 집단원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것을 나누고, 참여자들의 동네에서 사진 예쁘게 나오는 장소를 찾아보고 다음 차시에 집단원들에게 소개하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대면 프로그램 7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53에 제시하였고, 도입 활동에 활용한 협동사다리게임의 보드판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표 53. 대면 프로그램 7

프로그램명	‘함께 하면 행복해요’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7. 맛집탐방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성의 의미를 알고 이해한다. -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협동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한다. 		
준비물	협동 사다리게임 보드, 주사위, A4용지, 보상물(젤리, 사탕), 검색도구(휴대폰, 태블릿 pc등), 전지, 싸인펜, 사진, 프린터기, 가위, 풀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사다리게임을 통한 팀별 협동심 키우기 - 팀원을 나누고, 사다리게임에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하는 미션에 대해 팀별로 상의한다. - 팀원이 서로 돌아가며 주사위를 던지고 나온 숫자만큼 가고 도착한 곳의 미션 수행시 1칸 전진으로 진행한다. - 팀원끼리 잘 협력하여 미션을 수행하여 먼저 도착한 팀에게 보상물(사탕, 젤리등)을 준다. 이때 진팀에게도 보상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함께 작업할 때 힘들었던 경험들에 대해 서로 나눈다. 	20분	보드게임 주사위

<p>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맛집 탐색하고 맛집 평가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 - 좋아하는 음식이 같은 사람들끼리 조를 이루어 그 음식에 대한 우리동네 음식점을 다양한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검색한다.(2명 이상이 팀이 이루어지게 한다.) • 우리 동네 맛집 리스트 만들기 - 나누어진 팀원들끼리 검색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동네 맛집들을 탐색하고 서로 공유하여 맛집 리스트를 만들 목록들을 토론한다. - 팀원끼리 토론하여 결정한 맛집에 메뉴와 사진 등을 출력한다. - 전지에 그림, 사진, 글, 메뉴, 맛 평가 등을 다양하게 꾸며 맛집 리스트를 함께 만든다. - 만들어진 리스트를 발표하고 다른 팀이 별점을 준다. 	<p>60분</p>	<p>전지 검색도구 싸인펜 프린터 가위 풀 스티커</p>
<p>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나누기 -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것을 나눈다. • 과제 제시 : 우리 동네 사진 예쁘게 나오는 장소 찾아 보고 알려주기 	<p>10분</p>	

여덟 번째 프로그램인 ‘GO 사회속으로(사회정체감)’ 프로그램은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돌아보며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고 활동에 대한 소속감 및 사회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도입 활동으로는 앞선 7회기 동안 활동했던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시청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과 보람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좋은 마음들을 나누도록 한다. 본 활동으로는 7회기 동안 함께 했던 동아리 내 팀 활동 중 집단원과 함께하고 싶은 동아리의 활동 내용(예. 미술활동, 요리활동, 악기만들기 활동 등)에 대해 토론한 후, 선호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계획을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동아리를 통해 사회정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해 준다. 동아리를 형성하고 활동계획을 만든 이후에는 동아리원들에게 염색 손수건을 만들어 긍정 메세지와 함께 선물하도록 한다. 염색 손수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자는 PPT를 통해 색채심리에서 의미하는 색의 의미를 말해 주고, 염색 순서를 안내한 후, 팀원에게 주고 싶은 색을 선택하여 염색한 후에 선물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종결의 감정들을 나누고, ‘더 자람(The Grow) 프로그램(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동아리명 - 이중 의미)’을 이수한 수료증을 수여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노력에 대해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과제로는 추후 동아리 활

등을 하는 것을 제시하며, 동아리 활동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다. 대면 프로그램 8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54에 제시하였다.

표 54. 대면 프로그램 8

프로그램명	'GO 사회속으로'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8. 동아리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래들과 동아리활동을 계획하여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체감을 형성한다. - 염색한 손수건을 선물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인다. 		
준비물	활동 동영상, 흰손수건, 네임펜, 염료[(9가지색: 빨강, 파랑, 노랑, 주황, 초록색, 남색, 보라색, 분홍색, 마젠타색(자주색)), 투명컵 9개, 소금, 나무젓가락, 비닐장갑, 고무줄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억의 동영상 보기 - 동영상을 보고 친구들과의 좋았던 경험들을 나눈다. -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던 친구들을 떠올려 본다. 	20분	동영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 계획 만들기 - 8회기 동안 있었던 회기마다 안내되었던 활동주제에 대한 경험 중 어떤 것이 좋았는지 나눈다. - 지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활동주제가 있는지 나눈다. - 활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염색 손수건을 만들어 동아리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 선물하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며 손수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적고 꾸며본다. - 색의 의미를 설명하고 친구에게 주고 싶은 색을 선택한다. - 긍정 메시지를 적은 손수건을 염색하여 팀원에게 서로 선물한다. - 서로 받을 때와 줄 때의 기분을 나눈다. 	60분	흰손수건 네임펜 염료(9가지색) 소금 나무젓가락 투명컵 비닐장갑 고무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증 수여 및 사후검사 • 과제제시 : 추후 더 자람(The Grow)동아리 활동하기 (학교밖지원센터연계) 	10분	

라) 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풍부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교수 1명, 심리학 전공교수 1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전문가의 대부분 의견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 프로그램의 주제와 구성, 체험활동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완 의견으로는 참여동기 진작,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쉽고 구체적인 전달 방법, 참가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게 하는 방법, 활력이 동반되고 움직임이 수반되는 활동, 도입부에서 사회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회성 요소와 활동 간의 연관성, 사회성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입 부분에서 각 회기 사회성 요소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활동을 통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입부 활동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 및 공유의 경험을 확장하여 각 회기 사회성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회기 활동에 있어 모든 집단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전에 모든 팀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조장을 뽑아 다른 팀원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회기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집단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조절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회기 시간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집단원의 의견에 따라 융통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적용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며 비대면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MZ세대에게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신체적·정신적 상황이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비대면으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접촉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사회성 향상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중등연령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또래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습득하는 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에서 가족과 밀착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족 간 관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계

또한 가족으로 제한된다. 특히 제한된 대인관계를 하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은 대인관계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중등연령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대면 만남이라는 부담을 갖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를 중단한 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한적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의 프로그램 요구조사에서 비대면은 교육과 학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 회기마다 사회성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하고, 그와 관련한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사회성을 학습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중등연령 청소년들의 발달적 단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시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중심, 결과물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요구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신체활동, 매체 활용 활동 등을 요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몸으로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을 할 순 없지만 화면으로 동일한 동작을 따라하며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간단한 신체운동을 매 회기 구성하였다. 그리고 매체활동을 주요 회기마다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관심과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셋째, 비대면으로 운영할 경우 개인, 소수집단으로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혼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집단의 경우 매회기마다 소감을 나누도록 안내하고, 서로의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친화력이 생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가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를 위해 안내문을 따로 작성하였다.

다섯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용적인 비대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동영상, 활동지, 매체 활용물은 전문가들이 쉽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활용방법을 지도안에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1) 비대면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 및 주제별 활동내용

가) 프로그램 구성상의 특징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은 문헌조사와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총 6회기로 설정하고, 기본 1회기는 도입 10분, 활동 50분, 마무리 10분으로 하여 총 70분으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 2개 주제의 활동이 진행되며 주요 영역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되 고정된 프로그램과 순서에 따라 진행하기보다는 참여자의 특성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각 회기마다 사회성 구성요소를 포함하였으며, 비대면이지만 청소년들의 주의 집중력과 흥미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과 결과물이 도출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나) 프로그램 주제별 내용 요소와 주요 활동

사회성 향상 비대면 프로그램은 전체 6회기 내에 중등연령 학교밖청소년에게 주요한 사회성 요소로 밝혀진 7개의 사회성 요소를 다루고 있다. 이는 대면 프로그램과 일치한다. 비대면 접근의 특성상 길게 운영하는 것이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6회기로 압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7개의 사회성과 관련된 요소는 정서적 안정감, 공감 능력 키우기, 자율성, 자기조절, 의사소통 기술, 협동성 기르기, 사회정체감 확립이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주제 및 목표, 주요 활동을 다음 표 55에 제시하였다.

표 55. 비대면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 주요 활동

프로그램명	주제	목표	주요활동
<1회기> ‘알고 싶은 나’ (사회성 이해, 정서적 안정감)	프로그램 소개,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소개 및 규칙을 정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말한다. -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 사진 검사
		- 동영상 시청하고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신체활동 (뇌, 몸 건강 체조) - 청소년이 알면 도움이 되는 사회성 동영상을 시청한다. - 동영상을 본 후 느낌을 나눈다. - 내가 생각하는 사회성을 정의해본다.
	사회성 이해	- 사회성 카드 게임을 통해 사회성을 이해한다.	- 사회성 카드를 활용하여 사회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한 사회성을 찾는다.

프로그램명	주제	목표	주요활동
	감정 알아차림	-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할 수 있다.	- 감정 단어를 보고 자기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본다. - 느끼고 싶거나 받고 싶은 감정 단어를 찾아본다. -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한다. -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감정을 공감해본다.
		- 나와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 자신이 느끼고 싶은 긍정 감정을 거울 뒷면에 적어본다. - 감정 거울을 만들어 본다. - 다른 사람이 만든 감정 거울과 자신의 것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2회기> ‘괜찮은 나’ (자기조절, 자율성)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하기	-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도록 한다.	- 신체활동 (건강 박수 치기) - ‘거위의 꿈’을 들어본다. - 자기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 꿈을 가지게 된 동기를 말해본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탐색하기	- 과거, 현재, 미래의 꿈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	- 나의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해 본다. - 나의 현재 꿈을 생각해 본다. -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 A4용지에 과거, 현재, 미래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반려식물 만들기	- 다양한 반려생물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다. - 테라리움을 잘 돌보고 키울 수 있다.	- 다양한 반려 생물체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나눈다. - 반려 식물 재료를 선택한다. - 테라리움 만드는 과정을 보고 만들어 본다. - 자신이 만든 테라리움을 잘 키우기 위한 계획과 실천을 한다.
<3회기> ‘잘 지내고 싶은 친구’ (공감)	공감이란?	- 공감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신체 활동(간단 스트레칭) - 공감에 관한 동영상 시청한다.
	공감이 필요한 이유	- 공감이 필요한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노력한다.	- 공감받고 싶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 공감하는 대화와 공감이 되지 않는 대화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 - 우리에게 공감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본다. - 공감에 관한 마인드맵을 그려본다.
	좋은 친구	- 좋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생각해 본다. - 친구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찾아본다. - 나를 공감해주는 친구를 떠올려보고 친구의 장점을 찾아본다. - 우정 곡선을 그려본다.

프로그램명	주제	목표	주요활동
<4회기> ‘소통하고 싶은 친구’ (의사소통)	소통에 대한 이해	- 다른 사람과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신체활동 (뇌, 몸 건강 체조) - 소통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한다. - 동영상 내용을 보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의사소통 하기	-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한다. - 비폭력대화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본다. - 비폭력대화법에 대해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법을 연습한다.
	친구와 함께	- 친구와 어울리며 하는 활동을 찾을 수 있다.	- 친구와 하는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작성한다. - 버킷리스트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방법을 생각해 본다. - 스칸디나모스 액자를 만든다.
<5회기> ‘함께하는 우리’ (협동성)	협동에 대한 흥미부여	- 협동에 대한 흥미 부여와 이해를 돕는다.	- 신체활동 (건강 박수 치기) - 협동심을 일깨우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한다. - 협동과 관련한 소감을 나눈다.
	협동성 이해	- 협동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본다. - 만화나 혹은 글로 작성해 본다.
	우리 지역 소개하기 -지역별 다양한 문화 소개	-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지, 맛집 등을 소개할 수 있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친구에게 소개한다.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친구가 놀러온다면 같이 가보고 싶은 관광지, 문화, 음식 등을 소개한다. - 소개한 맛집 혹은 관광지를 추천하는 카드를 만든다.
<6회기> ‘사회 속의 우리’ (사회정체감)	동아리 활동 알아보기	- 동아리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 신체 활동(간단 스트레칭) - 청소년 동아리 활동 관련 포털을 검색하고 동아리 활동을 찾아본다.
	동아리활동 계획하기	- 동아리 활동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동아리 활동 경험을 나누어 본다. -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과 종류를 알아본다. -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이야기한다. - 실천가능한 동아리 활동 찾고 계획서를 작성한다.
	미래 모습 상상하기	- 미래 사회활동 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 하바리움 볼펜을 만들어 감사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	- 3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하바리움 볼펜을 만든다. - 만든 하바리움 볼펜을 선물한다.
	종결	- 종결에 대한 소감 나누기	- 종결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사후 검사

다)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과 세부 내용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각 회기의 주제와 프로그램의 운영 요소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1회기는 ‘알고 싶은 나’ 로 사회성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입 활동에서는 진행자가 사회성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집단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 시 지켜야 하는 규칙과 약속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와 자신이 변화하고 싶은 개인 목표를 말해보도록 한다. 참여자들의 긴장감 이완과 주의집중력 향상을 위해 간단한 신체활동을 한 후 본 활동을 시작한다.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에서는 ‘사회성 관련 동영상 시청’ 하고 느낌을 말한 후 사회성 카드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사회성이 왜 필요한지, 사회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사회성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활동은 ‘감정 알아차림’ 으로 감정 단어가 적힌 PPT 자료를 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종류를 이해하고 현재의 자기 감정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본다. 평소에 느끼고 싶거나 나에게 필요한 감정,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받고 싶은 감정을 찾아보고,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자기를 소개한다. 다른 집단원의 발표를 들으면서 경청하고 공감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56에 제시하였다.

표 56. 비대면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알고 싶은 나’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1. 사회성 / 정서적 안정감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및 규칙을 정한다. -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사회성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감정단어로 자기이해를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다. 		
준비물	ZOOM 활용매체, 동영상, 감정 단어, 사회성 카드, 감정 거울, A4용지, 필기구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뇌, 몸 건강체조) • 사회성 프로그램 소개 - 사회성 프로그램 소개한다. - 프로그램 규칙, 목표를 설정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와 원하는 변화를 말해본다. 	15분	동영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이해 - 사회성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다. - 동영상을 본 후 느낌을 말한다. - 우리에게 사회성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 사회성 카드를 보며 나에게 필요한 사회성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 사회성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찾아본다. 	45분	PPT 자료 사회성카드 A4용지 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알아차림 - 감정 단어가 적힌 PPT 자료를 보여준다. - 다양한 감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종류를 설명한다. - 감정 단어를 보고 현재의 자기 감정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본다. - 평소에 느끼고 싶거나 나에게 필요한 감정을 찾아본다. -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받고 싶은 감정 단어들을 찾아본다. -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자기를 소개한다. - 감정거울을 만들어 본다. - 다른 집단원의 발표를 들으며 경청하고 공감한다.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제시: 감정 거울을 보며 나를 응원하는 감정단어를 말해본다. 	10분	

2회기는 ‘괜찮은 나’ 로 자기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입활동으로 간단한 신체활동 후 ‘나의 꿈’ 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꿈을 가지게 된 동기를 말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탐색하기’ 에서는 어린 시절의 꿈과 현재의 꿈, 꿈을 실현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한다. 꿈을 실현하는 데에 걸림이 되는 것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6분할 생애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과거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생활, 미래는 대학생활, 20년 후, 50년 후 모습으로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주면서 표현하도록 한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반려식물 -테라리움 만들기’ 를 한다.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테라리움을 만들고 이름을 명명한 후 완성된 작품을 집단원에게 보여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감을 나누고 과제로는 테라리움에게 매일 한번 애정을 담은 말을 전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57에 제시하였다.

표 57. 비대면 프로그램 2

프로그램명	'관심은 나' - 더자람(The Grow) 활동주제 2. 자기조절과 자율성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나의 꿈을 이루는 방법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 - 반려식물인 테라리움 만들기를 통해 나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준비물	ZOOM 활용매체, 동영상, 테라리움 재료, A4 용지, 필기구, 색칠도구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건강 박수치기) •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 자기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 꿈을 가지게 된 동기를 말해본다. 	15분	동영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탐색하기 - '거위의 꿈'을 들어본다. - 지금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한 시점을 생각해본다. - 그때 가졌던 꿈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나의 현재 생활을 생각해본다. - 지금 나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본다. - 나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 나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A4 용지에 과거, 현재, 미래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45분	A4 용지 필기구 색칠도구 테라리움 만들기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리움 반려식물 만들기 - 다양한 반려 생물체에 대해 알아본다. - 반려식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본다. - 테라리움을 만들고 나의 반려식물을 어떻게 키울지 생각해본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제시 : 반려식물에게 하루 한번 애정을 담아 대화한다. 	10분	

3회기는 '잘 지내고 싶은 친구' 이며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입부분에서 간단한 신체운동으로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한 후 동영상을 보고 느낀 것을 나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고 싶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감받았을 때와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말해본다. 얼굴표정 그림으로 어떤 감정인지 추측하는 활동, 공감하는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 구별하기, 우리에게 공감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고 공감에 관한 마인드맵을 그려본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생각해보기’ 를 통해 나의 친구관계를 돌아보고 친구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찾아본다. 활동지로 친구의 감정을 얼마나 공감하는지 체크해보고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찾아본다.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보여지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듣고 강점으로 바꾸어 피드백해준다. 모든 집단원에게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우정 곡선을 그려보는 활동을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과제로는 친구와 관련된 영화 찾아보기를 제시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58에 제시하였다.

표 58. 비대면 프로그램 3

프로그램명	‘잘 지내고 싶은 친구’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3. 공감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좋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준비물	ZOOM 활용매체, 동영상,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스트레칭) • 공감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우리에게 공감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본다. 	15분	동영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이 필요한 이유 - 공감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한다. - 동영상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한다. -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고 싶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 공감받았을 때의 느낌을 말해본다. - 공감받지 못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말해본다. - 얼굴표정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추측해본다. - 공감이 되는 대화와 공감이 되지 않는 대화에 대한 예를 들어 본다. - 공감에 관한 마인드맵을 그려본다. 	45분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색칠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생각해보기 - 친구 관계를 돌아보고,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찾아본다. - 나는 친구의 감정을 얼마나 공감하는지 체크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찾아본다. - 나를 공감해주는 친구를 떠올려보고 친구의 장점을 찾아보기 -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우정 곡선을 그려본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제시: 공감되는 대화를 연습한다. 	10분	

4회기는 ‘소통하고 싶은 친구’이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입 활동으로는 간단한 신체활동 후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기’에서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참여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인 ‘의사소통’에서는 친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을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때 들었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생각한 후 그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표현해 본다. 다음으로 비폭력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고 비폭력대화법을 활용한 대화를 연습해 본다.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의사소통유형을 탐색해 본다. 두 번째 활동인 ‘친구와 함께 하기’에서는 친구와 함께 하는 버킷리스트를 10가지 작성하고 버킷리스트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런 후 친구와 여행가는 모습을 담은 스칸디나모스 액자를 만든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과제로는 찾아본 친구 관련 영화 중 한 개를 선택하여 보도록 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59에 제시하였다.

표 59. 비대면 프로그램 4

프로그램명	‘소통하고 싶은 친구’ - 더 자람(The Grow) 활동주제 4. 의사소통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한다. - 비폭력대화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친구와 어울리며 하는 활동을 찾을 수 있다. 		
준비물	ZOOM 활용매체, 동영상, 스칸디나모스 재료,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뇌, 몸 건강체조) •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본다. - 의사소통과 관련된 경험을 생각해본다. 	15분	동영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하기 - 친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을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려본다. 	45분	스칸디나모스 재료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그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표현해본다. - 비폭력대화와 관련된 동영상을 본다. - 비폭력 대화법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비폭력 대화법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본다. - 갈등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찾아본다. -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나는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를 작성해본다.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함께 하기 - 친구와 하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10가지) - 버킷리스트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친구와 여행가는 모습을 담은 스칸디나모스 액자를 만든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과제제시: 비폭력 대화법을 연습한다. 	10분	

5회기는 ‘함께하는 우리’이며 협동성에 대해 이해하고 협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입 활동으로는 간단한 신체활동 후 우리 생활에서 협동성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인 ‘협동성 이해’에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애니메이션을 본다. 토끼와 거북이가 따로, 함께 경주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소감을 나눈다. 그리고 개미와 베짚이, 미운 오리새끼, 콩쥐와 팥쥐 등 동화책을 떠올려 보고 협동성이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고 주인공이 주변인물과 협동을 통해 현실을 이겨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동화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내용을 재구성하고 만화 콘티로 만들어 본다. 두 번째 활동인 ‘우리 지역 소개하기’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지, 맛집 등을 소개한다. 자신이 소개한 맛집이나 관광지를 추천하는 카드를 만들어본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60에 제시하였다.

표 60. 비대면 프로그램 5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우리’ - 더자람(The Grow) 활동주제 5. 협동성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협동성을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지, 맛집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준비물	ZOOM 활용매체, 동영상,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색칠도구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활동(건강 박수치기) 협동성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생활에서 협동성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15분	동영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애니메이션을 본다. 토끼와 거북이가 따로, 함께 경주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본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개미와 베짚이, 미운 오리새끼, 공쥐와 팔쥐 등 동화책을 떠올려 보고 협동성이 필요한 내용을 찾아 본다. 주인공이 주변인물과 협동을 통해 현실을 이겨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동화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내용을 재구성한다. 재구성한 동화를 만화 콘티로 만들어 본다. 우리 지역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특성을 친구에게 소개한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지, 문화, 음식 등을 소개한다. 소개한 맛집 혹은 관광지를 추천하는 카드를 만든다. 	45분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색칠도구 색종이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감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활동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친구들이 추천한 곳을 방문해 본다. 	10분	

6회기는 ‘사회 속의 우리’이며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하고 사회정체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입 활동으로는 간단한 신체활동 후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인 ‘동아리 활동 계획하기’ 에서는 집단원 중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집단원들에게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청소년참여활동 사이트에서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동영상을 본다. 인터넷 검색으로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찾아보고 실천가능한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본다. 두 번째 활동인 ‘미래 사회활동’ 에서는 30년 후 나의 사회생활 모습을 상상해보고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한다. 지금까지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을

떠 올려보고 하바리움 볼펜을 만들어 선물하도록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61에 제시하였다.

표 61. 비대면 프로그램 6

프로그램명	'사회 속의 우리' - 더자람(The Grow) 활동주제 6. 사회정체감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미래 사회활동 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 하바리움 볼펜을 만들어 감사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 		
준비물	ZOOM 활용매체, 하바리움 볼펜 재료,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단계	내용	시간(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스트레칭) - 동영상을 보며 따라한다. • 동아리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15분	테블릿PC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 계획하기 -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면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 청소년참여활동 사이트에서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 인터넷으로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찾아본다. - 실천가능한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본다. 	45분	하바리움 볼펜 재료 A4용지 필기구 색칠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활동 - 30년 후 나의 사회생활 모습을 상상해본다. - 30년 후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한다. - 지금까지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본다. - 하바리움 볼펜을 만든다. -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바리움 볼펜을 선물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사후 검사 	10분	

라)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비대면 프로그램 초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풍부한 연구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교수 1명, 심리학 전공교수 1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의 호환성 및 연계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마지막 회기에서 봉사활동, 참여활동, 미래 사회활동 등이 한 회기 안에 구성되어 있어서 다소 복잡하고 연계성이 낮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의 문화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다른 지역의 문화를 소개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권장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을 프로그램에 수정·반영하였다.

V.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성 검증

1. 시범 적용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가. 프로그램 시범적용 참여자 정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시범적용과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면 집단과 비대면 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사전·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대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 학교밖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비대면 프로그램은 무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선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회기마다 만족도 조사와 경험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후검사 및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연구자에 의해 프로그램 구성요소, 참여자들의 반응, 현장활용성에 대한 질적평가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21명으로 대면집단 5명(23.8%), 비대면집단 5명(23.8%), 통제집단 11명(52.4%)이며, 2008년 6명(28.6%), 2009년 8명(38.1%), 2010년 7명(33.3%) 이었다. 참여자 중 남자는 9명(42.9%)이었고 여자 12명(57.1%)이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62에 제시하였다.

표 62.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N=21)

구분		대면(N)	비대면(N)	통제(N)	전체(N)
연령	2008년	1(4.8%)	2(9.5%)	3(14.3%)	6(28.6%)
	2009년	4(18.0%)	1(4.8%)	3(14.3%)	8(38.1%)
	2010년	-	2(9.5%)	5(23.8%)	7(33.3%)
	소계	5(23.8%)	5(23.8%)	11(52.4%)	21(100%)

구분		대면(N)	비대면(N)	통제(N)	전체(N)
성별	남	2(9.5%)	1(4.8%)	6(28.6%)	9(42.9%)
	여	3(14.3%)	4(19.0%)	5(23.8%)	12(57.1%)
	소계	5(23.8%)	5(23.8%)	11(52.4%)	21(100%)

나. 연구설계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또래관계와 가족관계,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요구조사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확정된 프로그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등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유사실험설계를 하여 검증하였다. 효과성 검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실험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은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며, 집단 간 사전·사후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검증하였다. 더불어 실험집단에는 회기별 만족도,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와 경험보고서 등의 질적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였다. 시범운영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는 아래 표 63에 제시하였다.

표 63. 시범운영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구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회기 및 지도자평가	추후검사	
청소년	실험집단	대면	O ₁	X ₁	O ₂	O ₃	O ₅
		비대면	O ₁	X ₁	O ₂	O ₃	O ₅
	통제집단	O ₁		O ₂		O ₅	
지도자					O ₄		

O₁: 사전검사

O₂: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O₄: 전문가용 회기별 평가지, 종합평가지

X₁: 프로그램 제공

O₃: 참여자용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O₅: 청소년: 추후평가(사전검사와 동일)

다. 측정도구

1) 사전·사후추후검사 평가도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질적조사·양적조사를 통해 추출한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성 척도를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추출된 사회성의 구성요인은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으로 기존 사회성 관련 연구와 각 척도개발 연구에서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효과성 검증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아래 표 64에 제시하였다.

표 64. 사전·사후·추후검사의 신뢰도

구분	구성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사전검사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43	.715
사후검사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43	.842
추후검사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43	.736

2) 회기별 평가 및 종합평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과 지도자의 평가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에게 회기별 만족도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회기마다 경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자에게는 진행과정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질적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는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흥미, 진행방법의 적절성과 유익성, 친구들에게 추천할 의향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도자 평가는 시의적절성, 목적성, 유익성, 실용성, 결과 기여도 등의 현장활용성에 관한 질문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지도자의 질적평가는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회기별 평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설문지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2. 대면 프로그램 질적평가

가. 참여자 정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대면집단 시범적용은 2023년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전유성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8회기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대상 청소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등록 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표 65에 제시하였다.

표 65. 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특성

연번	참여자	성별	연령	지역	소속센터
1	청소년①	남	15세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지원센터
2	청소년②	여	14세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지원센터
3	청소년③	여	14세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지원센터
4	청소년④	남	14세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지원센터
5	청소년⑤	여	14세	대전	대전유성구학교밖지원센터

나.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1) 회기별 적절성 평가

각 회기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기별 프로그램 평가 및 참여 경험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고 수합하였다. 설문지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프로그램 평가 및 참여 경험소감문을 나의 경험과 나의 소감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회기별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및 활동이 사회성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평균 3.9점(그렇다)을 획득한 1회기, 평균 3.7를 획득한 3회기 평균 3.9점을 획득한 8회기를 제외한 모든 회기에서 평균 4점(매우 그렇다)을 획득하였으며, 8회기 중 5회기가 4점을 획득하였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프로그램 회기별 적절성 평가의 평균은 아래 표 66에 제시하였다.

표 66.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적절성 평가

회기	M	회기	M	회기	M	회기	M
1	3.9	2	4.0	3	3.7	4	4.0
5	4.0	6	4.0	7	4.0	8	3.9

2) 대면 프로그램 회기별 사회성 점수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후 각 회기마다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회성 수준을 점수로 표현하도록 하는 자가평가를 실시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10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지도하였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회기별 사회성 점수를 살펴보면 1회기의 사회성 점수는 3점 1명, 5점 2명, 10점 1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가 3점, 가장 높은 점수가 10점이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자신의 사회성 점수는 상승하고, 마지막 회기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 6점 1명, 8점 1명, 10점 3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사회성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회기별 사회성 점수의 변화는 아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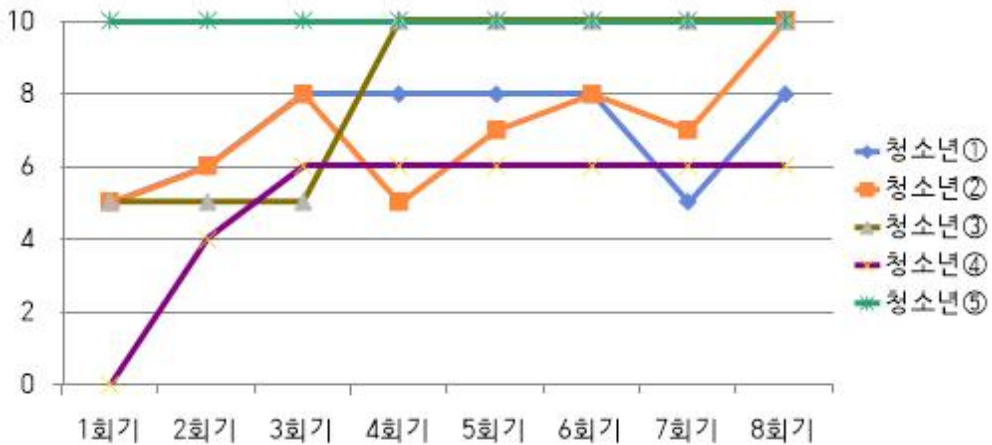


그림 2.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회기별 사회성 점수 변화

3) 회기별 경험과 소감

회기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나의 경험’ 과 ‘나의 소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였다. ‘나의 경험’에서는 사회성 활동 경험, 새롭게

알게 된 점, 도움이 된 점과 ‘나의 소감’ 은 힘들었거나 아쉬운 점, 좋았거나 즐거웠던 점, 변화한 점 등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보고한 회기별 참여 경험은 표 67에 제시하였다.

표 67.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경험과 소감

회기별 프로그램 경험 (n=5)	
나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다양한 사회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웠다. -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 테라리움을 만들면서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된 것 같다. -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그냥 아무렇게 해도 예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만들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배웠다. - 악기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었고 연주를 하면서 재미있었다. - 부모님과 나의 의사소통 방법이 비난형으로 서로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부족한 사회성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거 같다. - 감정을 만화로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밝아진 거 같다. - 감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린 만화를 보고 나누는 것이 재미있었다. - 만들기가 재미있었고 말이 많아진 거 같다. -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되어 스스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 젠가 게임에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엄마의 장점에 대해 알기위해 엄마에게 전화해 본 것이 재미있었다. - 의사소통을 배우고 난 후에 어머니와 비난하는 자칼의 대화가 아닌 기린의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다시 시도 해보려고 한다. -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했는데 생각을 하게 되었다. - 프로그램 활동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칭찬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하게 되었다.

다.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이해, 활동지, 교구재 활용성, 시간 및 횟수의 적절성, 참여에 대한 만족도, 목표달성, 추천

의향 등을 묻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응답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보통이다’ 를 빼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5명 모두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였다.

만족도 평가 결과, 항목별로 3점에서 3.8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평균 3점(그렇다)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활동지, 교구재 활용(3.8점), 참여에 대한 만족도(3.8점), 사회성 성장에 도움(3.8점), 항목에서 평균 3.8점 이상을 획득하였다. 참여자들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성 기술을 연습한 것이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참여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 평가지 분석결과는 아래 표 68에 제시하였다.

표 68. 대면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 분석 결과

단위: 명(%)

항목	대체로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용 이해도	1(20%)	2(40%)	2(40%)
활동지, 교구재 활용	-	4(80%)	1(20%)
시간, 횟수	1(20%)	2(40%)	2(40%)
참여에 대한 만족도	-	3(60%)	2(40%)
사회성 성장에 도움	-	3(60%)	2(40%)
프로그램 참여 권유	1(20%)	2(40%)	2(40%)

시범운영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한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 향상, 혼자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 올바른 의사소통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 사항은 활동시간이 너무 짧다, 활동이 많아 산만하다, 프로그램 회기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도움이 되었던 내용’ 이나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참여가 어려운 내용’ ‘건의 사항’ 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69와 같다.

표 69. 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주관식 응답

가장 도움이 되거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경험(n=5)	
<p>도움이 되었던 내용 (제목, 기억나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하는 우리라는 테라리움 만들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배웠고 함께 하는 친구들과 말이 많아졌다. - 곡물 악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연주를 하면서 적극적이 되었다. -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사회성이 좋아진 거 같다. - 공감 팔빙수를 만들면서 감정을 공감하는 것을 배웠다.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만화 만들기를 통해 내 감정을 알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의 만화를 보면서 서로 공감하였다. - 친구들과 함께 맛집을 만들면서 맛집도 많이 알게 되었고 협동할 수 있었다. - 부모님과 서로 자칼로 대화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기린의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되었다. 어머니와 기린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
<p>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참여가 어려운 내용 (제목, 기억나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집 리스트 만드는 게 어려웠다. - 영화를 보고 활동하는 것이 어려웠다.
<p>건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시간이 너무 짧다. -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고 여유롭게 천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프로그램 회기가 너무 짧아 더 길었으면 좋겠다.

라.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평가

1)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각 회기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 2명과 꿈드림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수합하였다. 설문지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한 회기 만족도 4문항과 회기 중 수정 보완 사항과 사회성에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변화를 묻는 개방형 질문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회기별 만족도

회기별 만족도 평가 결과, 평균 3.9점(그렇다)을 획득한 1회기, 평균 3.7를 획득한 3회기 평균 3.9점을 획득한 8회기를 제외한 모든 회기에서 평균 4점(매우 그렇다)을 획득하

였으며, 8회기 중 5회기가 4점을 획득하였다. 지도자의 회기별 만족도 평가 평균 및 표준편차는 아래 표 70에 제시하였다.

표 70. 대면 프로그램 지도자 회기별 만족도 평가

회기	M	회기	M	회기	M	회기	M
1	3.9	2	4	3	3.7	4	4
5	4	6	4	7	4	8	3.9

나) 회기별 의견 및 개선사항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는 각 회기마다 수정 보완사항과 사회성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보인 변화에 대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였다. 지도자들이 제시한 회기별 의견과 개선사항은 표 71에 제시하였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평가 회의를 통해 각 회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연구진과의 회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회기에 반영하였다.

표 71. 대면 프로그램 회기별 의견 및 개선 사항

(n=3)

프로그램명	의견 및 개선사항
1.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고 구조화를 할 수 있었음. -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목표를 세움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카드 게임을 통해 평소에 사회성 단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했는데, 사회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음. - 사회성이란 단어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게임을 통해 흥미 있게 다가갈 수 있었음. - 사회성 목록표가 있어 사회성에 대해 설명하고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게임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진행이 되면서 더 친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인터뷰의 질문이 있어 처음 다가서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음. - 인터뷰 게임의 항목을 더 간단히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게임규칙을 정해 모든 친구들과 인터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내 감정은 내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여 맞추는 게임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감정의 종류를 알게 됨. - 게임으로 다양한 감정을 알기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를 탐색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감정들을 다룰 수 없었음.

프로그램명	의견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자신의 표정을 알 수 없었는데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됨 - 자신이 어떤 감정일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 차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됨 - 자신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자신의 감정을 그리는 시간에 표정을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가 필요함
3.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를 그려봄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었음 -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명료화 할 수 있었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에 대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 - 학교중단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몇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경험을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이 무엇인지 알고 공감을 할 수 있었음 - 팔빙수 그림에 공감에 대해 나누면서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공감을 이해하기 쉬웠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빙수 만드는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다른 친구를 도우는 등 서로 협동하는 모습을 보임 - 서로 공감 팔빙수를 나누어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 - 만드는 과정이 너무 산만하여 활동에 몰입하기 어려움 - 간단한 메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계절에 따라 메뉴가 다르게 정해져야 하고, 시간을 고려해야 함
4.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선 게임을 통해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알게 됨 -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반려동물과 반려 식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됨 -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의 다양성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게 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됨 -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짐 - 스스로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얻음 - 테라리움을 완성하고 난 후에 성취감과 스스로 반려 식물을 키움으로써 자율성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임 - 재료들이 다양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재료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됨
5. 더 괜찮은 나로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가게임을 통해 원하지 않아도 참고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됨 - 다양한 개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만들기에서 곡물의 양을 조절하여 소리를 만들어봄으로써 조절에 대해 인식하게 됨 - 소리를 들어보면서 조절하는 모습을 보임 -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됨 - 자신이 만든 악기에 대해 만족감을 느낌

프로그램명	의견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과 소리를 맞추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배움 - 더 적극적으로 됨 -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 - 음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
6. 소통 UP! 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통해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됨 - 게임 시간이 부족함 - 말없이 눈빛으로 전하니까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게 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게 됨 - 가족들이 서로 어떤 의사소통 유형으로 대화하는지 알게 됨 -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 알게 됨 - 영화를 보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됨 - 영화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됨 -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됨 - 함께 활동하지 못했던 친구와 그룹 활동을 하며 서로 부족한 모습을 보완함 - 적극성이 생기고 소통하는 능력이 발전했음 - 비폭력 대화를 서로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함
7. 함께 하면 행복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활동하면서 서로 소통하게 됨 - 팀원끼리 서로 도우게 됨 -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 - 게임규칙으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시간이 걸림. 게임규칙의 수정이 필요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잘함 - 맛집 리스트에서 그림을 그려 꾸미는 모습을 보임 - 서로 의논해서 발표함 - 맛집 리스트를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 참여자마다 특성이 있어, 특성을 파악하여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사진을 출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장소나 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8. GO 사회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이 했던 활동들을 보면서 서로 친밀한 모습을 보임 - 전체 회기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동아리를 만드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결정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고 싶은 말을 넣어 손수건을 염색하여 선물함으로써 더 친밀하게 됨 - 염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는 등 친해진 모습을 보임 - 서로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했던 친구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손수건을 주며 돕고 도우는 모습을 보임 -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쉬운 방법이 필요함

프로그램명	의견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날 어색하고 불편해하던 친구들이 모두 친해진 모습을 보임 - 3일 동안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함 - 프로그램이 많아 전체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었음

다. 시범운영 후 지도자 논의사항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이 종료된 후, 시범운영 지도자 자체 평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범운영 자체 평가 회의는 시범운영이 종료된 직후 2023년 8월 18일 7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시범운영을 진행한 지도자 2인은 지도자의 경험과 평가자로서의 경험에 대해 나누고, 꿈드림 센터 담당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연구진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다.

1) 프로그램 장점 및 도움이 되었던 점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와 꿈드림 센터 담당자는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흥미로워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상세한 매뉴얼, 참여자의 흥미가 높고 적극적인 활동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보면 진행하기 편하고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진행하기가 편리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등연령 청소년들은 감각적 흥미와 재미의 추구하는 경향에 부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흥미와 관심을 드러내면서 참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다 빨리 친해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였다.

2)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웠던 점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3일 동안 연속으로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용이했으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을 현실 생활 속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과제를 실시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은 모든 회기가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활동 시간이 충분히 배정되어야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참여자의 인원이 5명으로 시범운영을 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숫자가 적었으며, 남자 청소년이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

여 집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중등연령 청소년의 특성으로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은 시기임을 고려하여 집단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느껴졌다.

중등연령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 시 추가적인 설명이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표정을 거울시트 지에 지어보고 그리는 것 등)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회기 동아리 구성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밖청소년들이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의 보호망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거나 시작할 때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교육 및 지도가 병행되어 동아리 활동 등 중등연령 학교밖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향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수행 및 변화 관찰

시범운영을 시작하기 전 지도자들은 먼저 도착하여 참여자들을 맞이하였다. 참여자를 맞이 하는 지도자는 참여자가 한명 한명 도착할 때마다 참여자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지도자의 행동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었다. 1회기 인터뷰 시간에 내내 쭉스러워하며 서로 다가가지 않던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였고, 참여자 중 D는 한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흥미를 보이며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두 명이 팀으로 활동하는 시간에는 서로 협의하여 역할을 분배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소 자신의 표정을 거울 시트지에 그리는 활동에서 시트지에 그려진 표정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감정 상황에 대한 만화를 직접 제작하여 발표할 때는 서로 공감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팔빙수나 테라리움 만들기에는 만들기가 어려운 친구에게 도와주거나 알려주는 등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하기 힘든 것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였다. 비폭력 대화에서 대화의 방식을 기린과 자칼로 설명하여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쉬웠고 참여자 A, B, C는 자신들은 자칼로 말을 하여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린으로 말을 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 A는 평소 어머니와 말을 할 때 서로 자칼로 말을 하여 다툼을 한다고 하면

서 오늘은 집에 가서 자갈로 말을 해보겠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프로그램이 너무 짧다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다가가기 힘들어했던 참여자들이 회기가 지날수록 편안해지고 친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리를 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직은 부모님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나 변화를 따로 측정하지는 않았고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효과를 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4)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진행에 있어 서로 도왔다. 체험활동 시간에는 참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등 지도자 참여자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였다.

5) 개선 필요 사항 및 제언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지도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회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응용해 본 후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감향상을 위한 팔빙수만들기 요리활동은 좀 더 간단한 요리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협동성 활동으로 맛집 리스트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프린터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지만, 프린터가 되지 않는 환경에 대비하여 손수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개인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등연령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의 시범 적용의 결과와 피드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첫째, 주제별 활동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일부 활동을 축소하거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1회기 쉬는 시간 10분 포함한 90분으로 도입 활동, 본 활동, 마무리 활동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에서의 모든 회기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된 활동을 없애기보다 집단이나 센터 특성에 맞추어 지도자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에서 인터뷰 게임에서 질문이 너무 많다는 의견과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질문을 줄이고 더 많은 참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와 ‘함께하면 행복해요’ 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활동 2가지를 제시하여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거나 도입 활동이나 본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할 때 계절,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의 주제별 활동 중 공감 팔빙수 만들기 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감 팔빙수의 요리 활동을 대체 할 수 있는 요리(예: 공감 샌드위치, 공감 주먹밥, 공감 꼬마김밥 등)를 제시하여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기 만들기’ 에서는 너무 다양한 악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산만해지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악기 재료를 줄이고 1~2가지 악기를 만들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함께하면 행복해요’ 에서 맛집 리스트를 만들 때 먼저 참여자들 스스로 의견을 교환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트 작성에 있어 검색은 가능하나, 환경에 따라 프린터를 할 수 없을 때 그림 도구를 이용하여 그리거나 글로 표현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셋째, 회기별 과제 활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과제를 통해 중등연령학교청소년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과제를 수행한 경험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제별 과제가 안내되고 중요한 과제일 경우에는 다음 회기 도입 활동을 생략하고 과제 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회기별 제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청소년 입장에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제목으로 변경하였다. 프로그램 시범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명이 확정되지 않아 가칭 ‘더 Grow’ 라 명칭하였다. 이후 더 자람(The Grow)로 프로그램명을 확정하였다. 각 주제별 제목에서도 다소 청소년과 친숙하지 않은 사회성 관련 용어가 일부 사용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변경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 중 ‘소통 UP! GO!’ 에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영화 전체를 볼 수 없고,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 영화 속 의사소통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지도자가 영화의 내용을 숙지하고 유튜브의 영상 속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관련된 영화를 다

양하게 안내하여 지도자가 선택하여 영화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폭력 대화를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중등 연령에 맞는 비폭력 대화 연습 활동지를 매뉴얼에 첨부하여 안내하였다.

여섯째, 기타 세부적인 주제별 내용이나 활동 운영 방식 등을 변경, 활용의 팁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감정을 찾아라’ 에서 감정카드 활용게임으로 재미있게 감정을 찾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감정을 알기에는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 목록을 첨부하였다. ‘더 괜찮은 나로 UP’ 에서 음악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최신 유행하는 음악 목록을 안내하였다.

3. 비대면 프로그램 질적평가

가. 참여자 정보

비대면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13세~16세) 5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두 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5명이 지원하였고, 학교 밖 지원센터 담당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연령별로는 만 15세 2명, 만 14세 2명, 만 13세 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 1명, 여 4명이었다. 참여자들의 구체적 특성은 표 72에 제시하였다.

표 72.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특성

유형	참여자	성별	연령	지역	학업 형태 및 소속
청소년	청소년①	여	만15세	울산시	울산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②	여	만15세	울산시	울산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③	남	만13세	울산시	울산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④	여	만14세	구미시	구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⑤	여	만14세	구미시	구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비대면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1)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각 회기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기별 프로그램 평가 및 경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회기별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및 활동이 사회성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1회기와 5회기는 평균 3.0점으로 나타났고, 2회기, 3회기, 4회기, 6회기는 3.2로 나타나 비대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사회성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프로그램 회기별 적절성 평가의 평균은 표 73에 제시하였다.

표 73.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적절성 평가

회기	M	회기	M	회기	M
1	3.0	2	3.2	3	3.2
4	3.2	5	3.0	6	3.2

2) 회기별 사회성 점수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후 각 회기마다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회성 수준을 점수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10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지도하였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회기별 사회성 점수를 살펴보면 1회기의 사회성 점수는 5점 1명, 6점 2명, 8점 1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가 5점, 가장 높은 점수가 10점이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자신의 사회성 점수는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회기에서는 점수 6점 1명, 7점 2명, 9점 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사회성이 차츰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회기별 사회성 점수변화는 아래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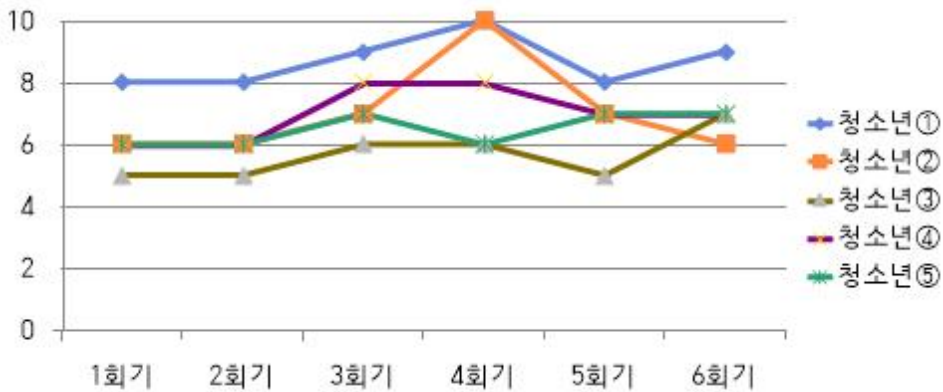


그림 3.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회기별 사회성 점수변화

3) 회기별 경험과 소감

회기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매 회기 프로그램 진행 후 참여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질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소감문은 ‘나의 경험’ 과 ‘나의 소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나의 경험’ 은 사회성 활동에 대한 경험, 활동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 ‘나의 소감’ 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점, 좋았거나 즐거웠던 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변화한 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이 작성한 회기별 참여 경험은 표 74에 제시하였다..

표 74.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회기별 경험과 소감

회기별 프로그램 경험 (n=5)	
나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단어가 많다는 것이 신기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 - 많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자기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 화가 났을 때 15초만 참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모습을 그리는 것(생애그림)이 도움이 되었다. - 동영상(사회성 관련)을 보며 사춘기는 뇌가 아직 완성이 안되었다는 것, 쉽게 화내고 예민한 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테라리움이란 식물을 알게 되었고 키우게 되어서 좋았다. - 반려식물의 좋은 점을 알게 되었다. - 동영상(공감 관련)을 보고 태어날 때부터 공감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감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 - 비폭력대화방법을 알게 되어 앞으로 의사소통을 잘하게 될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이 좋았고, 나에게 친구가 꽤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아서 좋았다. -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친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이 되었다. - 우정그래프를 통해 내가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 의사소통 유형 검사를 통해 내가 일치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 사람의 말을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많은 경험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전을 해보게 되었다. - 개인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친구란 좋은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 의사소통 검사를 하면서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 동영상 보면서 혼자보다는 같이 하면 둘 다 상을 받고 뿌듯한 것을 알게 되었다. - 협동을 항상 생각하고 활용해야된다는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나의 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옛날보다 무거워지고 행동을 조심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ZOOM이 중간에 끊기거나 동영상 소리가 안들려서 아쉬웠다. -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좋았다. - 행동하는 것이 좀 귀찮아졌다. - 동영상(공감 관련)을 보면서 재미있었고, 공감 능력이 좋아진 것 같다. - 의사소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협동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좀 더 협동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첫 회기 때 만들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좀 아쉬웠다. - 시간이 조금 길었다. - 사춘기인 사람들과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려식물이 생겨서 즐거웠다. - 동영상이 재미있었고,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해야겠다. - 만들기를 하면서 재미있었다. - 상황이 힘들어도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며 사회생활을 잘해야겠다. -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 사회정체감이 없었는데 생긴 것 같다. -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 - 앞으로 나 자신한테 더 잘해야겠다. -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다.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이해, 활동지, 교구재 활용성, 시간 및 횟수의 적절성, 참여에 대한 만족도, 목표달성, 추천의

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보통이다’ 를 빼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5명 모두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였다.

만족도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3점(그렇다)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다. 내용이 해도는 3.6점, 활동지 및 교구재 활용은 3.4점, 시간 및 횟수는 3.4점,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3.8점, 사회성 성장에 도움은 3.6점, 프로그램 참여 권유는 3.2점으로 나타났다. 참여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컴퓨터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대면 프로그램 활동이 참여자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5에 제시하였다.

표 75. 비대면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 분석 결과 단위: 5명(%)

항목	대체로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용 이해도	-	2(40%)	3(60%)
활동지, 교구재 활용	-	3(60%)	2(40%)
시간, 횟수	-	3(60%)	2(40%)
참여에 대한 만족도	-	1(20%)	4(80%)
사회성 성장에 도움	-	2(40%)	3(60%)
프로그램 참여 권유	-	4(80%)	1(20%)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감정 조절을 알게 되었고, 사회성이 성장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장점을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하면 단점이 보완되고 서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 회기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활동에서 어려운 내용으로는 동영상을 본 후 만화로 표현하는 활동이 어려웠고, 맛집 리스트 만드는 게 어려웠다고 하였다. 건의사항은 공예 만들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회기가 짧아 아쉽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76에 제시하였다.

표 76.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주관식 응답

가장 도움이 되거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경험(n=5)	
도움이 되었던 내용(제목, 기억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을 본 게 인상이 깊었다. - 화가 나면 15초 참으면 화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사회성이 성장한 것 같다. - 동영상 내용이 참 좋았다. - 모든 게 다 재미있었다.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같이 협력해서 서로의 단점을 가려주고 다 같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참여가 어려운 내용(제목, 기억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집 리스트 만드는 게 어려웠다. - 동영상을 보고 만화를 그리는 활동하는 것이 어려웠다.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다. -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라.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평가

1)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각 회기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는 각 회기를 마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한 회기 만족도 5문항과 회기 중 수정 보완 사항과 사회성에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변화를 묻는 개방형 질문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회기별 만족도

회기별 만족도 평가 결과, 1~2회기는 평균 3.4점, 3회기는 평균 3.6점, 4~6회기는 평균 3.8점으로 나타났다. 1회기와 2회기의 점수에는 초기 ZOOM사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적절하게 배열되지 못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7에 제시하였다.

표 77. 비대면 프로그램 지도자 회기별 만족도 평가

회기	M	회기	M	회기	M
1	3.4	2	3.4	3	3.6
4	3.8	5	3.8	6	3.8

나) 회기별 의견 및 개선사항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는 프로그램 실시 후 각 회기마다 수정보완할 내용과 개선점, 프로그램 진행 중 참여자들이 보인 행동과 태도 등의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기에는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78에 제시하였다.

표 78. 비대면 프로그램 회기별 의견 및 개선 사항

프로그램명	의견 및 개선사항
1. '알고 싶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에서 첫 시간이고 비대면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어색한 듯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쑥스러워하며 짧게 말을 함 - 화면을 끄지 말고 끝까지 참여해야함을 강조하였고, 모두 화면을 끄지 않고 참여를 하여 참여자의 태도를 살필 수 있었음 - 프로그램 시작을 하면서 zoom 영상이 원활하지 못해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지도자의 사전 연습과 준비가 매우 필요함을 느낌
2. '괜찮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의 사회성과 관련된 동영상 보여주자 매우 흥미를 갖고 시청하고 소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임 - 좋은 동영상 개발이 필요함을 느낌
3. '잘 지내고 싶은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은 어릴 때의 한 시점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으나 그런 활동을 통해 어린 시절을 반추해보는 경험을 함 - 미래의 모습은 제과제빵사, 비행기 기장,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힘들다는 참여자에게는 글로 쓰게 하거나 말로만 표현하도록 하여 참여도를 높임 - 비대면 활동에서 지루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만들기를 통해 활력이 생겼고, 자신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짐 - 활동 후 완성된 테라리움은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였는데 참여 청소년의 역량에 따라 수행 속도가 달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함
4. '소통하고 싶은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현재 학교 밖 생활을 하면서 공감받은 경험을 나누면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함 -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며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고 표현한 청소년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낌 - 나를 공감해주는 친구관계를 살펴보면서 친구들을 대부분 카톡으로 소통하고 대면으로 만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함 - 우정곡선(활동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친구와의 관계 변화를 알아보고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나누기하면서 활기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유형검사(활동지)를 통해 자신의 유형을 찾아보는 것을 신기해함 - 비폭력 대화 연습하기를 통해 평소의 나와 비폭력대화를 알고 난 후의 행동 변화에 대하여 나누기를 하였고, 청소년들은 비폭력 대화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함 - 스칸디나모스 액자 만들기-지도자가 시범을 보이며 만들기를 하였고 참여자들은 만들기에 열의를 보임

프로그램명	의견 및 개선사항
5. '함께하는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성 관련 동영상 시청토끼와 거북이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경주에 이긴다는 내용에 참여자들이 흥미를 보였고 소감문에도 이에 대한 느낌을 많이 적음 - 개미와 베짚이가 협동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글로 작성하도록 하자 그림을 잘 그리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 청소년은 글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함
6. '사회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광지, 맛집을 소개하면서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으나 대부분 자기 지역의 대표적인 곳 한 가지 정도는 설명함 - 우리 지역에 대한 소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도록 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함을 느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의 동아리 활동은 배구 동아리, 기타 동아리, 합창동아리 경험이 있음 - 동아리 활동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음악 동아리, 베이킹, 마술동아리 등의 활동에 관심을 보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연령이라 미래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대부분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이 들어가야함을 알게 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과 만족도 검사를 함

마. 시범운영 후 지도자 논의사항

비대면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이 종료된 후, 지도자, 연구진은 자체 평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시범운영을 진행한 지도자는 진행 경험과 평가자로서의 경험에 대해 나누었고, 다른 연구진, 전문가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조언과 도움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프로그램 장점 및 도움이 되었던 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접속하여 참여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부모님이나 학교 밖 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ZOOM 사용 환경에 대해 프로그램 시작 전에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참여자들의 가정으로 우편배달 후 도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도록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매회기 사회성 영역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하였고, 활동지, 매체 활

동, 만들기 등을 포함하여 자칫 컴퓨터에 앉아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루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비대면 활동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화상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이동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사회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2)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웠던 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진행 시 지도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중요하였다. 초기에 PPT자료와 동영상을 원활하게 연결지어서 진행하는 것이 서툴러 프로그램 중간 공백이 생겼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반복을 하면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다. 참여자가 마이크가 안되거나 우편으로 보낸 재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지도자가 대처할 수 없어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 친밀감을 쌓는 기회가 사라지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도 참여 청소년들끼리의 친밀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초기에는 참여 청소년 대부분이 쑥스러워하며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활동지 작성이나 만들기에서 수행속도가 청소년마다 다름으로 인해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서 집중도가 낮아지는 경향도 발생하였다. 스마트폰이 없는 참여자는 단체 카톡방에 참여를 하지 못해 회기별 평가, 만족도 평가, 완성된 작품을 올리는 것 등에서 부모님 폰으로 나중에 전달받는 불편함도 있었다.

3)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수행 및 변화 관찰

참여자들은 첫 회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였다. 참여 동기로는 엄마가 신청하라고 해서, 그냥 신청함, 꿈드림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프로그램을 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등이었고, 변화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자신감을 얻고 싶다. 자신을 알아가고 싶다. 등이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야겠다. 행동하는 것이 좀 괜찮아졌다. 쉽게 화내고 예민한 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감능력이 좋아진 것 같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사회정체감이 없었는데 생긴 것 같다. 등으로 표현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ZOOM 사용이 원활해지고, 참여자들의 자기개방과 참여도가 높아지면

서 지도자의 질문에 대한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다. 경직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활동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도 거침이 없어지는 등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4) 개선 필요 사항 및 제언

비대면 프로그램은 사전 준비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ZOOM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진행의 공백이 생기고,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낮아질 수 있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대처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교구재와 활동지 등을 미리 전달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컴퓨터에 계속 앉아 있으면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만들기뿐만 아니라 간단한 신체활동을 활용한다면 프로그램에 활기가 생기고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연령 사회성 향상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영상, 신체활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만들기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비대면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는 5명으로 진행되었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도자와 참여 청소년들의 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받은 후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의 부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도자 등의 피드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4. 시범 프로그램 양적평가

가.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

사회성 향상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대면집단, 비대면집단, 통제집단의 사회성 수준이 동질한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F=2.191(p<.094)$ 로 집단 대면집단 ($M=105.2$, $SD=5.63$), 비대면집단($M=113.6$, $SD=4.98$), 통제집단($M=111.2$, $SD=7.57$)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세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간 사전검사 동질성 검정에 대한 결과는 표 79에 제시하였다.

표 79. 집단 간 사전검사 동질성 검정결과

구분	<i>n</i>	<i>M</i>	<i>SD</i>	<i>F</i>	<i>p</i>
대면집단	5	105.2	5.63		
사회성 비대면집단	5	113.6	4.98	2.191	.094
통제집단	11	111.2	7.57		

나. 집단 간 사전·사후·추후검사 차이검정결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통제집단은 무처치한 후 K-독립표본 비모수검정 Kruskal-Wallis 분석을 실시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은 모집단의 특성을 따지지 않는 비모수적인 검정방법으로 독립된 세 집단 이상의 크기를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 Kruskal-Wallis 검정은 모든 자료를 평균순위로 나타내며 순위의 크기순으로 정렬한다. 평균순위는 평균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Kruskal-Wallis 검정은 평균순위 합을 구하는 것으로 크기의 차이가 없는 집단은 순위합도 비슷하며,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순위 합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본래 자료 고유의 값들은 순위만 남고 모두 상실되어 통계분석에 작용하지 않으므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배정민, 2015). Kruskal-Wallis 검정결과 유의하게 나타나면 Mann-Whitney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대면집단, 비대면집단, 통제집단의 집단 간 사전·사후·추후검사를 분석한 결과 사전검사의 집단 간 차이는 $p=.139$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p=.001$)와 추후검사($p=.002$)의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 평균순위는 비대면집단 청소년이 14.20으로 가장 높았으나 프로그램 제공 한 후의 사후검사결과는 대면집단이 16.60으로 가장 높았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약 2주 후 실시된 추후검사에서도 대면집단의 청소년이 가장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집단 간 사전·사후·추후검사의 차이검정결과는 아래 표 80에 제시하였다.

표 80. 집단 간 사전·사후·추후검사 차이검정결과

구분	평균순위			p	
	대면	비대면	통제		
사회성	사전	6.60	14.20	11.55	.139
	사후	16.60	16.10	6.14	.001**
	추후	16.30	15.30	6.45	.002**

주. ** $P < .01$ *** $P < .001$

표 80에 의하면 대면 집단과 비대면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 청소년의 사회성 수준은 비대면 집단이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참가 후에는 대면 집단의 사회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점수의 변화폭 또한 대면 집단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대면 집단과 비대면 집단 모두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대면 집단, 비대면 집단 순으로 평균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집단 간 사후 검사결과 비교

사회성향상 시범적용 프로그램의 사후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K-독립표본 비모수검정 Kruskal-Wall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른 사회성의 사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면집단은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의 차이 $t = -.106(p = 1.00)$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면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t = -3.120(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면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집단과 통제집단은 $t = -2.954(p = .002)$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대면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사후검사 검정결과는 아래 표 81에 제시하였다.

표 81. 집단 간 사후검사 검정결과

구분	평균순위	t	p	사후검정	
A	대면 ^a	5.60	-.106	1.00	a=b
	비대면 ^b	5.40			
B	대면 ^a	14.00	-3.120	.001**	a>c
	통제 ^c	6.00			
C	비대면 ^b	13.70	-2.954	.002**	b>c
	통제 ^c	6.14			

주. ** $P < .01$ *** $P < .001$

표 81과 같이 대면 집단, 비대면 집단,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효과성 검정결과 대면 집단과 비대면 집단 모두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가 있으며, 대면 집단과 비대면 집단의 차이는 없다. 즉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라. 집단 간 추후 검사결과 비교

시범적용 프로그램의 집단 간 추후검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K-독립표본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은 $t=-.212(p=.84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면 집단과 통제집단은 $t=-3.125(p=.000)$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면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집단과 통제집단은 $t=-2.560(p=.009)$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대면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추후검사 검정결과는 아래 표 82에 제시하였다.

표 82. 집단 간 추후검사 검정결과

구분		평균순위	t	p	사후검정	
사회성	A	대면 ^a	5.70	-.212	.841	a=b
		비대면 ^b	5.30			
	B	대면 ^a	14.00	-3.125	.000***	a>c
		통제 ^c	6.00			
	C	비대면 ^b	13.00	-2.560	.009**	b>c
		통제 ^c	6.45			

주. ** $P<.01$ *** $P<.001$

표 82의 결과에 의하면 대면 집단과 비대면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향상된 사회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유지하는 데도 유용한 프로그램임이 증명되었다.

5. 프로그램 수정보완

가. 대면 프로그램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의 시범 적용의 결과와 피드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첫째, 주제별 활동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개발된 활동을 없애기보다 일부 활동을 축소하거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집단이나 센터 특성에 맞추어 지도자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할 때 계절,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감 팔빙수 만들기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감 팔빙수의 요리 활동을 대체 할 수 있는 요리(예: 공감 샌드위치, 공감 주먹밥, 공감 꼬마김밥 등)를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악기 만들기’에서는 산만해지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1~2가지 악기를 만들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늘였다. ‘함께하면 행복해요’에서 맛집 리스트를 만들 때 자신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에 따라 그림 도구를 이용하여 그리거나 글로 표현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셋째, 회기별 과제 활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과제수행 경험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주제별 과제가 안내되도록 하고, 중요한 과제일 경우에는 다음 회기 도입 활동을 생략하고 과제 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회기별 제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청소년 입장에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제목으로 변경하였다. 프로그램 시범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명이 확정되지 않아 가칭 ‘더 Grow’라 명칭하였다. 각 주제 별 제목에서도 다소 청소년과 친숙하지 않은 사회성 관련 용어가 일부 사용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명은 더 자람(The Grow)로 명칭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 중 ‘소통 UP! GO!’에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영화 전체를 볼 수 없고,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 의사소통 관련된 영화를 다양하게 안내하여 지도자가 선택하여 영화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폭력 대화를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중등 연령에 맞는 비폭력 대화 연습 활동지를 매뉴얼에 첨부하여 안내하였다.

여섯째, 기타 세부적인 주제별 내용이나 활동 운영 방식 등을 변경, 활용의 팁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감정을 찾아라’ 에서 감정카드 활용게임으로 재미있게 감정을 찾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감정을 알기에는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 목록을 첨부하였다. ‘더 괜찮은 나로 UP’ 에서 음악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최신 유행하는 음악 목록을 안내하였다.

나. 비대면 프로그램

중등연령학교밖청소년 사회성향상 비대면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의 결과와 피드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첫째, 비대면 프로그램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매뉴얼 제작 시 추가하였다.

둘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의 활동성을 위해 신체활동을 도입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에 추가하였다.

셋째, 주제 관련 동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에 따라 참여자들이 직접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을 탐색하고 개념을 이해하도록 과제로 제시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넷째, 참여자들은 5회기에서 만화콘티를 짜는 것, 맛집 리스트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만화 콘티는 한 컷 정도의 만화로 그리거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맛집 리스트 작성은 생략하고 맛집에 대한 소개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다양한 매체활동을 원하고 있어 주요 영역마다 주제와 관련된 매체활동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V. 요약 및 논의

1. 연구의 요약

감염병으로 청소년의 발달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단체보다는 개인중심의 사고가 팽배해지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성이 확장되는 중등연령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고립되고 위축되어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관심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사회성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요인을 발달적 관점에 맞춰 분석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등연령 청소년은 저연령이나 고등연령 청소년들에 비해 집단을 구성하고 소속감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이중성을 가진다(Korpershoek et al., 2020). 관심이 사회와 사회적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바람직한 사회성에 대한 욕구도 강렬하다(김경민 등, 2022). 이러한 시기에 또래·학교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체계 내에서 배워 나갈 수 있는 학교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과 성장에 제한을 준다(Crespo-Molero & Sánchez-Romero, 2021).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개발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기획하고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과 중등연령 청소년 프로그램, 중등연령 사회성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사회성 구성요인을 추출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 전문가에게 FGI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성 요인을 살펴보았다. 넷째,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내용과 요구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면과 비대면 사회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여섯째, 시범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효과성 검증을 위해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회기별 만족도조사, 경험보고서, 지도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면집단, 비대면집단, 통제집단에게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시범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사회성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또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중등연령의 사회성 연구로 확장하여 문헌연구 진행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특성을 알아보고 사회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이 깊은 사회조망이론과 사회정체감이론을 살펴보았다. 사회조망이론은 타인과 관계에서 이해와 수용능력을 의미하고, 집단에 소속되어 역할을 찾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의미하는 사회정체감이론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이 깊은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등연령 청소년과 관련 깊은 사회성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등연령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성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등연령 청소년 사회성 연구에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사회성 요인은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임을 밝혔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 분석결과 진로개입, 학업중심 또는 학교복귀, 대인관계, 사회적응 등으로 체험과 캠프 중심의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었다(김가연, 2022; 양미진 등, 2007; 오혜영 등, 2011; 황순길 등, 2012). 국외의 경우 건강과 사회참여를 증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다(Vuori & Silvonen, 2005; Barry et., 2006; Barry & Nic Gabhainm, 2010). 이러한 문헌 연구결과에 의해 7개의 사회성 요인이 반영된 체험과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즐겁고 흥미롭게 참여 할 수 있는 내용요소를 반영하기로 기획하였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 실제로 요구되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인터뷰, 현장전문가에게는 FGI를 실시하고, 청소년 274명을 대상으로 사회성 수준과 취약한 사회성 요인을 알아보았다. 요구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비슷한 또래와 취미나 게임을 함께 하고 싶어했다. 또한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연대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대인관계가 확장되어야 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훈련과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 개인 뿐만아니라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대면에서는 여행이나 캠프 등 활동중심으로 구성하고 비대면은 학습이나 교육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하

였다. 설문조사결과는 공감, 의사소통, 안정감, 자기조절 순으로 사회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부모님, 친구와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8시 이전에 일어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자신의 사회성 점수는 7점이 가장 많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성은 의사소통, 공감, 자기조절 순이었으며, 향상시켜야 하는 사회성은 공감, 의사소통, 사회정체감 순이었다. 학교중단은 남자, 2008년생이 가장 빨리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의 청소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더 빨리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감과 협동성은 여자가 더 높고 자율성과 협동성은 무업형 청소년이 직업형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할 위한 측정도구를 타당화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성이 확인된 각 요인 문항들의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7개 하위요인 43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7개 하위요인은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의사소통이며 척도 전체 신뢰도는 .873이었다. 하위요인의 문항과 신뢰도는 공감 6문항 신뢰도 .743, 사회정체감 6문항 신뢰도 .793, 정서적 안정감 5문항 .717, 자율성 3문항 .682, 자기조절 9문항 .758, 협동성 3문항 .689, 의사소통 9문항 .71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원리 결정하고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요구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감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부모와 현장전문가들은 대인관계 확장과 의사소통 능력, 서적 안정감 향상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인터뷰에서 청소년과 부모, 현장전문가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차이가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헌연구와 요구조사, 연구방향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주제를 최종결정하였다. 최종결정한 7가지 주제는 정서적 안정감, 공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사회정체감이며, 각 주제들이 회기안에 충분히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집단의 역동을 활용한 게임, 매체 활동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비대면의 경우 디지털을 통해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화면으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에 개인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최종 프로그램은 또래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친사회적 규범 습득, 소속감 확보 등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과 사회정체감 형성의 효과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면 프로그램은 7개 주제영역을 반영하여 대면 프로그램 8회기를 구성하고 각 회기는 도입(20분), 활동(60분), 마무리(10분), 총 90분으로 구성하였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6개 주제영역 6회기 도입(10분), 활동(50분), 마무리(10분), 총 70분으로 설계하였다. 대면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내 감정은 내가 전문가,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더 괜찮은 나로 UP, 소통 UP! GO!, 함께하면 행복해요, GO 사회속으로를 제목으로 구성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알고 싶은 나, 괜찮은 나, 잘 지내고 싶은 친구, 소통하고 싶은 친구, 함께 하는 우리, 사회 속의 우리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 후 참여자의 회기별 평가자료와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질적분석하였고, 대면집단, 비대면집단, 통제집단에 사전·사후·추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시범적용 프로그램 질적분석결과, 대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전체회기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초기에는 서로 어색해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만들거나 조별활동을 서로 의논하고 협동하며 결과물을 완성해나갔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공감능력, 협동성과 자율성 등 전반적인 사회성 구성요인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준비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이해하고 흥미를 가졌으며, 참여자들을 인터뷰하며 친밀하고 편안해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회성 수준을 알고 프로그램 참여도를 더욱 높게 되었다. 실행단계에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며 감정의 중요성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는 등 서로 협동하고 결과물에 대해 칭찬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프로그램 초기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회성 점수를 5점으로 체크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8점에서 10점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은 감정조절을 알게 되었고 사회성이 성장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타인과 소통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했다. 자신을 돌아보고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며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자신을 알리는 행동도 적극적으로 되는 등 행동과 태도가 변화했다고 보고했다.

시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면 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공감 능력과 협동성, 자율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회기 동안 청소년들이 매일 만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지도자와 집단원 간 응집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조절을 알게 되었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타인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대면의 특성상 집단활동 중심보다 사회성에 대한 교육과 동영상 시청, 활동지 등을 통해 좀 더 인지적인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결과 대면집단, 비대면집단, 통제집단의 사전검사결과 동질성을 확보하였으며,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면집단과 비대면 집단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면집단과 비대면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대면집단과 통제집단, 비대면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향상되었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후검정에서도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사회성 수준은 사전검사결과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의 논의

본 연구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며 특히 사회성 향상에 관련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본 연구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이 활성화된 점을 반영하여 비대면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결과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요인은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으로 밝혀졌다(김경은, 2014; 신제인, 정경미, 2022; 심민정, 문화진, 2019; 정숙희 등, 2021). 또한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중등연령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요구조사를 설계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요인을 반영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설계는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등연령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와 연령을 따로 세분화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성 연구는 존재하나, 발달과정에서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는 중등연령 만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다각적인 자료와 프로그램은 추후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요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핵심구성원리와 척도를 도출하였다. 청소년과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요구조사결과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는 능력을 높여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이는 감정기복이 심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발달단계(박아청, 1996)와 관계 지어 볼 수 있다. 자아정체성 확립은 개인의 책임의식과 또래와의 협업,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본이 되며(정광희 등, 2015) 사회정체감의 초석이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인터뷰 게임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원도 소개하는 내용요소를 구성하여,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특성도 파악하여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기를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활동은 외로움과 같은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며 대인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어 구성원들과 일체감,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김상미, 남진열, 2001). 또한 사회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가는 활동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알고 이를 성장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보호자들은 현재 자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적이었으나 자녀가 또래관계에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공운정 등(202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중단을 자발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적응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교육과 다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고민과 두려움에 대해 부모개입을 계획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후 가정에서 지도하고 센터와 공조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활동과 또래의 생각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감정표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며 삶에서 중요한 도덕적 감정을

익히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되므로(Kim et al.,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적합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현장전문가들의 요구결과는 청소년이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놀이나 체험 등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단체활동에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 적응이 어렵고 진로에 대한 불안과 부모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요소도 첨가되기를 희망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좀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파악된 점에서 해석이 요구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위축되고 소외되어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김혜영, 2000; 성은모, 윤나래, 2016)와 일치하며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와도 맥락이 통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타인과의 소통에 기본이 되는 자기조절, 협동성, 사회정체감을 키울 수 있는 곡물악기 만들기, 침묵의 피구, 동아리 만들기 등의 내용요소를 구성하였다. 다른 사람과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응의 정서적 요인으로(김민정, 2018), 자기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문성원, 2003; 성한기, 2001) 학교 밖 청소년이 외부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수준과 부족한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는 중등연령 청소년의 사회성 연구를 검토하여 중등연령에서 가장 다수로 측정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최종 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성 척도는 총 43문항으로 공감, 사회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의 7개 하위요인으로 보통이다를 제외한 4점 Likert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보통이다를 제외한 이유는 동양문화권에서는 극단적인 응답을 자제하고 대부분 중간정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나무위키, 2023) 어느 쪽이든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사회성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중등연령 청소년에게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추후에 중등연령의 사회성과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회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로 활용하여 변화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

성을 검증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대면집단에는 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대면집단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각 집단의 크기가 5명에서 11명으로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사전집단 동질성 검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고 사전·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동질성 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전·사후·추후결과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의 차이는 없었으나, 대면집단과 통제집단, 비대면집단과 통제집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본 프로그램을 통해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이 타인의 느낌과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Gresham et al., 2011; Scheepers & Ellemers, 2019; Selman, 1980)됨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게 되어 타인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주었다. 이는 규칙에 따르고 질서를 유지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그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권옥현 등, 2021; 김나리, 2019; Parlangei et al., 2019). 따라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술을 학습시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의 요약과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 적용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대면집단 5명, 비대면집단 5명으로 인원이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중등연령의 경우 집단상담 크기는 6명에서 15명이 적당하나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중등연령으로 한정되어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집단구성원들이 가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비효율적일 수 있고 집단역동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이형득, 1992). 따라서 추후에는 집단역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집단크기로 구성하여 사회성 프로그램 관련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대면집단과 비대면집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대면 프로그램은 8회기, 1회기 90분으로 구성하였고, 비대면 프로

그럼 6회기, 1회기 70분으로 구성되었다. 각 시범 운영프로그램은 시범 적용의 시간 한계 상 3일 간 연속으로 집중 진행하여 각 회기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드백 시간이 부족하여 참여자의 평가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나 현장에서 실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고, 참여자와 피드백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 1회 2시간 이상 정도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의 운영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과제 제시와 이에 따른 피드백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서 비교집단을 구성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중 중등연령만을 대상으로 사회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사회성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중등연령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가치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넷째, 비대면 프로그램은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온라인플랫폼(ZOOM) 활용방법을 충분히 익힌 후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지 사전확인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행자는 화면공유나 음향 등 기능을 익히고 인터넷 환경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자의 경우 컴퓨터나 휴대용 PC 등에 문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집단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준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점검시간을 배정하고 집단원과 소통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 실시 후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부족하여 부모 등 가족과 함께 과제시행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부모나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어려워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의 효과성 검증에 부모의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자녀의 변화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경, 경험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부모 자신의 변화나 다짐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이다. 본 프로그램 중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 중에서도 학교는

중단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학교밖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성장이나 발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또는 지도자의 권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교밖청소년 중에서도 외부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무업형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보다는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모두에 참여의지가 없거나, 더욱 취약한 환경에서 사회성 문제에 당면해 있는 프로그램 적용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청소년은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를 먼저 권유하여 사회성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사회성 프로그램이 사회참여의 징검다리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와 현장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대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각지대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등연령 학교밖청소년 전체 집단 적용의 일반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근모, 이준기 (2015). 청소년 가출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115-144.
- 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잠재적 학교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19(1), 89-125.
- 강진령, 유형근 (2009). **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상담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강태신 (2009). 소년원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격 성향과 전두엽 계획 기능의 차이. **중앙사회과학연구**, 21, 1-23.
- 공운정, 정애경, 김영화, 김현령, 김혜랑, 이주은, 차민아 (2022). **저연령(만9세~12세)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8.
- 구자경 (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 권욱현, 허소정, 김영애, 이동훈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경험 탐색: Haslam의 사회정체성 모델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288-1288.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민, 최정원, 송지은 (202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화와 유형별 사회성발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2(2), 213-235.
- 김경은 (2014).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태블릿 PC 합주 활동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호 (2021). 청소년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의 매개 효과와 성별 차이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545-554.
- 김나리 (2019). 초기 청소년기 학습자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연극 공연 프로그램 적용 사례 연구. **예술교육연구**, 17(4), 77-101.

- 김동하 (2013).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관계와 비행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기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53-76.
- 김동혁, 조선령 (2016). 중학생의 체육수업 재미요인과 사회성발달 및 인성발달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821-832.
- 김만수 (2016). 태권도 수련에 따른 자기조절력과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성 발달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희 (2005). 탈학교 청소년의 탈학교 청소년의 집단 미술치료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이근매 (2013).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심리연구**, 3(2), 1-28.
- 김민정 (2018). 정서 촉진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교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학교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상미, 남진열 (200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희 (2019).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포럼연극 수업이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1), 275-282.
- 김수정 (2017). 대인관계에서 지각하는 자율성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경험 연구.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31-33.
- 김영옥, 장명립, 유희정 (2009). 유아 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 유아교육 연구**, 14(5), 297-324.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교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김종두 (2010). 초등학생 사회성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원교육**, 26(6), 161-181.
- 김종두, 정상목 (2022).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사회자본 형성과정 탐색 : 남자중학생 A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듀테인먼트연구**, 4(1), 23-38.
- 김준호, 안재식, 정경태 (2017). 청소년 택견 수련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성 발달 관

- 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5(2) (2017): 159-169.
- 김태준, 이미라 (2017).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6(1), 35-54.
- 김현주, 박재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중단 이전, 당시,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3), 119-130.
- 김현철, 황금주, 이일한 (2017). 온라인 게임 소비자의 자기효능감, 게임몰입 및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자기통제력의 역할 분석. **전자무역연구**, 15(2), 23-47.
- 김형태 (2017). **사회성**. 2017년 1월 28일. <http://holyabba.com/?p=19675>.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김혜진 (201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규 (2006). **대학생용 심리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삶의 질 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원 (2003).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I(K-SSRS: 중고생용 I)의 표준화: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35-258.
- 문종숙, 최공집 (2017).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사회적 기술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5(3), 119-128.
- 문찬수, 박정하, 이해나 (2012). 학생 개인 및 학교 특성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미래교육학연구**, 25(2), 1-21.
- 박경수(1993). **청소년 단체활동과 사회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군석, 한덕웅 (2004). 안정성, 합법성 및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달과 분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11-21.
- 박동진, 김나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 아존증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71-87
- 박소현 (2019). **학교 밖 위기청소년 개입에 대한 집단상담 연구동향 : 2002년~2018년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소현, 이수진 (2021). 학교 밖 위기청소년 개입에 대한 집단상담 연구 동향: 2002년~2020년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1), 277-310.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도 연구. **교육심리연구**, 10(3), 67-83.
- 박양규 (2015). 집단 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사회성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KJMT**, 9(2), 20-30.
- 박연심, 김주심, 전건이, 이영선 (2016). 대인관계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분노 조절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8(2) 219-236.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21-55.
- 박정민 (2015). **그림으로 이해하는 닥터배의 술술 보건의학 통계**. 서울: 한나래출판사.
- 배진욱(2021). **대학에 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봉렬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동욱 (2016). 청춘의 시간성. **한국문화연구**, 30, 7-30.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성은모, 윤나래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모형 개발. **아시아교육연구**, 17(3), 221-251.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손수향, 김준수, 원유미 (2021).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리그활동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 차이. **대한스포츠융합학회지**, 19(2), 43-54.
- 송광성 (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제인, 정경미(2022). 친사회적 사이버블 게임을 통한 청소년의 소외 인식과 도움행동의 탐색: 성별과 사회적 기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5), 415-435.
- 신효민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 경험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민정, 문화진.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주의 알아차림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 21, 10(6), 639-651.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학교중단청소년의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오은경 (2014).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12(2), 65-80.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이정실(2011). 학업 중단 청소년 학업 복귀 강화 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상담학 연구**. 163.
- 유성경, 이소래 (1998). **중도탈락학생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 연구2**.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유화영, 이종한 (2016).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통합교육과정연구**, 10(4), 49-69.
- 윤성근 (2013). **청소년이 스포츠활동 참여가 사회성발달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2010). **학교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병훈, 김하영 (2018).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회성 및 공격성의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4), 681-688.
- 이송희, 김린아 (2017).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와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269-277.
- 이수민, 노남숙 (2017). 인형을 활용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사회성과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을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5(2), 5-18.
- 이숙경 (2023). **색채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서 표현과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영, 남상인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개발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승희 (2015). 중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경험과 또래관계, 사회성발달 및 교육성취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4(3), 133-149.
- 이양주, 임봉우 (2020). 중학생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참여동기와 또래관계 및 사회성발달의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9(2), 76-94.
- 이에스더, 박미정(2013). 영상매체 활용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공학**, 16, 117-136.

- 이은해, 고윤주, 오원정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 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이재철 (2014).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1), 122-128
- 이정숙, 이현, 안운영, 유정선, 권선주 (2011). 분노관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분노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 105-126.
- 이정자, 유영숙, 정현주 (2011).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위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5(2), 53-63.
- 이진간 (2021). **중도입국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2020). 학교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사회성 향상을 위한 이야기치료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학회**, 16(4), 195-208.
- 임영식, 정경은, 진은설 (2014). (주)두산 청소년 정서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시간여행자 지원 프로그램. 서울: ARCON.
- 임우연 (2014). **충청남도 학교 밖 여자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전애란 (2019).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아카펠라 중심 음악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주희, 김혜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8(1), 293-313.
- 정관희, 조성재 (2023). 청소년의 마음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3), 308-313.
- 정광희, 현주, 박영숙, 전종희, 조덕주, 임현정, 유명화, 이현우 (2015).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II)-중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정미경, 김갑숙 (2013).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33-160.
- 정민, 김동진 (2020). 학교농구스포츠클럽 참여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및 사회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8(3), 419-426.
- 정범모. (1971). **인성검사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정숙희, 이가영, 박종석, 안기완 (2021).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회성 및 숲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농업생명과학연구**, 55(6), 23-30.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건상, 이승배 (2017).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발달의 관
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83-101.
- 조규필, 김수진 (2015).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청소년상
담연구**, 24(2), 387-416.
- 조미카, 구성희 (2020). 문화예술 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 확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부
산진구 청소년 예술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27, 311-342.
- 조아미, 이진숙 (2014). 학교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조정미, 김미점, 김장희 (2018). 교류분석 재결단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불안
과 생애목표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25(3), 525-542.
- 조정은 (2017). 학교 음악프로그램이 성향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학술세
미나 및 연수회**, 269-276.
- 조진옥, 명소연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
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 조현민, 최영준 (2015).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중학생의 교우관계, 사회성 및 학교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지**, 24(6), 833-843.
- 조현정, 강원국, 김옥진 (2020). 동물매개치료가 학교적응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47-71.
- 조혜정, 홍다영 (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35-61.
- 주희현, 서경현 (2013).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청
소년학연구**, 20(3), 187-207.
- 지복희 (2011).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경 (2016). 청소년의 사회갈등 인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소속감
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2(1), 283-305.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2022).
- 최동선, 이상준 (2009). **학교 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 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성미 (2022). **사회성 회복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희 (2020). **학교중단 청소년의 특성 연구-학교요인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옥채, 안정화 (202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양서원.
- 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 (2022).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정희, 김선웅 (2015). 청소년의 체력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체육연구**, 11(1), 43-52.
- 하여진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정서 발달양상과 지원방안. **청소년복지연구**, 24(4), 1-22.
- 한국교육개발원 (2022).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위기 개입 매뉴얼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학교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교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난희, 김혜숙 (2014).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놀이중심 자기표현프로그램 개발. **초등상담연구** 13(2), 245-266.
- 한재욱 (2018) **체험적 목공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혜 (1997).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최현정 (2018). 인문예술통합교육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5(1), 65-78.
- 홍혜전 (2020). 장애무용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지**, 20(1), 1-11.
- 황선환, 김홍설 (2014).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1), 705-713
- 황순길, 정현주, 김범구, 양대회, 이은경 (2012). 학교중단청소년 대상의 기숙형 대안캠프 효과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2), 223-257.
- Abrams, D., & Hogg, M. A. (2006).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 Routledge.

- Bames, H., & Olson, D. H. (1982). PClrell-dolescer cohnicction,/hily inver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esoa.
- Beyers, J. M., Loeber, R., Wikström, P. O. H., & Stouthamer-Loeber, M. (2001). What predicts adolescent violence in better-off neighborhood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369-381.
- Blos, P. (1983). The contribution of psychoanalysis to the psychotherapy of adolescents.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38*(1), 577-600.
- Caldarella, P. & Merre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2), 264-278.
- Crespo-Molero, F. & Sánchez-Romero, C. (2021). The repercussion of severe mental disorder at school: early school dropout. *Culture and Education*, *33*(1), 134-159.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S. (2003). Ontingencies of Self Worth in College Students :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 Dan Richmonda, Jim Sibthorpb, John Gookinc, Sarah Annarellac and Stephanie Ferrid(2017) Complementing classroom learning through outdoor adventure education: out-of-school-time experiences that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Adventure Education And Outdoor Learning*.
- Durlak, J. A., Weissberg, R. P., & Pachan, M. (2010). A meta-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294-309.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3rd ed). New York: Norton.
- Fitzgerald, D. P., & White, K. J. (2003). Linking children's social worlds: Perspectivetaking in parent-child and peer contex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5), 509-522.
- Greenaway, K. H., Cruwys, T., Haslam, S. A., & Jetten, J. (2016). Social Identities Promote Well-Being Because They Satisfy Global Psychological Need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3), 294-307.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inneapolis: Pearson Assessments.

- Gresham, F. M., Elliott, S. N., Vance, M. J., & Cook, C. R. (2011). Comparability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to the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content and psychometric comparisons across elementary and secondary age level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6*(1), 27-44.
- Hammond, C., Linton, D., Smink, J., & Drew, S. (2007). *Dropout Risk Factors and Exemplary Programs*. Clemson, SC: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 Communities In Schools, Inc.
- Hamre, B. K., & Pianta, R. C. (2005). Can instructional and emotional support in the first-grade classroom make a difference for children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 Development, 76*(5), 949-967.
- Hills, P., & Argyle, M. (2001). Emotional stability as a major dimension of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8), 1357-1364.
-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CA: Sage Publications.
- Kim, H. Y., LaRusso, M. D., Hsin, L. B., Harbaugh, A. G., Selman, R. L., & Snow, C. E. (2018). Social perspective-taking performance: Construct, measurement, and 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engage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7*, 24-41.
- Korpershoek, H., Canrinus, E. T., Fokkens-Bruinsma, M., & de-Boer, H. (2020).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belonging and students' motivational, social-emotional, behavioural, and academic outcomes in secondary education: A meta-analytic review.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35*(6), 641-680.
- Leung, A. S. M. (2008). Interpersonal conflict and resolution strategies: An examination of Hong Kong employees. *Team Performance Management, 14*(2), 165-178.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5), 551-558.
- Parlangeli, O., Marchigiani, E., Bracci, M., Duguid, A. M., Palmitesta, P., & Marti, P. (2019). Offensive Acts and Helping Behavior on the Interne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oral Disengagement, Empathy and Use of Social Media in a Sample of Italian students. *Work, 63*(3), 469-477.

- Repetti, R. L., Taylor, S. E., & Seeman, T. E. (2002). Risky families: family social environments and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offspring. *Psychological bulletin*, *128*(2), 330.
- Rumberger, R. W.(2004). Why students drop out of school: In Gary Orfield(Ed), *Dropouts in America: Confronting the graduation rate crisis*.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Scheepers, D., & Ellemers, N. (2019).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in action: Evidence-based interventions from theory to practice, 129-143.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hechtman, Z. (2004). Grou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Current Practice and Research. In J. L. DeLucia-Waack, D. A. Gerrity, C. R. Kalodner, & M. T. Riva (Eds.), *Handbook of grou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p. 429-444). New York: Sage Publications Ltd.
- Stonequist, E. V. (1973). *The Marginal Man: A study in Personality and Culture Conflict*. New York: Russel & Russel.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r (2nd ed.)* (pp. 7-24). Chicago, IL: Nelson-Hall.

부 록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 질문지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상 면접 질문지
 3.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 대상 FGI
 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요구조사 설문지(척도구성을 위한 문항 포함)
 5.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회성 검사 최종 문항
 6.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교구재
 7. 회기별 평가 및 종합평가
-

[부록 1]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 질문지

질문영역	질문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중단에 대한 탐색</p>	<p>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가정에 상황은 어떠했나요? -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학교에서 문제는 없었나요?(일탈 및 비행탐색)
	<p>학교를 그만 둔 당시 경험은 어떠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학교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성적은 어떠했나요?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또래관계, 선생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학교를 그만 둘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p>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은 어떠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 최근에 누구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나요? - 학교를 그만 둔 후 학업과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나요? -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 한 적은 없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 - 중등연령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에게 어떠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관점 관계 (사회적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사회환경 적 요소, 미래 탐색)</p>	<p>부모님(보호자)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보호자)과 어떻게 의견을 나누나요? (상호작용이 어떠한가요?) - 부모님(보호자)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학교중단 후 부모님(보호자)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을 하나요? - 학교를 그만 둔 후 가족들과는 서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p>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둔 후 학교 다닐 때의 친구들 관계는 어떠한가요? - 현재 친구관계는 어떠한가요?혹시 이성친구는 있나요? -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있나요? -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나요? - SNS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관계는 어떠한가요? -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의 차이점과 어디가 더 친근한가요?
	<p>꿈드림 센터 이용과 센터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 꿈드림 센터 선생님은 나를 믿어주고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나요?

질문영역		질문 내용
	4. 그 밖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p>그 밖의 다른 사람과의 대해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친해진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계기로 친하게 되었나요? -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주로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하나요? - 친한 사람들과 언제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은가요? - 학교를 그만둔 후 주변 사람(선생님, 친척등)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5. 사회환경적 요소	<p>학교를 그만둔 후 주위 환경에 대해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활 환경은 어떠한가요?(가정환경/경제적수준/가족구성원등) - 자신이 안전한 환경(지역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 학교를 그만 둔 후 주변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 사회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교육지원, 의료지원, 활동지원등)? - 하루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소셜미디어)은 얼마나 하나요? 주로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나요?
	6. 미래에 대한 탐색	<p>진로를 위한 활동에 대해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적성과 미래 진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학교를 떠난 것으로 인해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나요? -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나요?
사회성 탐색	인지적요소	<p>다른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편인가요(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을 잘 공감해주나요)? (공감) -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편인가요? (수용) - 사회 속에서 (센터나 속해 있는 집단)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요?(사회정체감)
	정서적요소	<p>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과 성향을 보이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편인가요? (자율성) -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예 주도적역할, 도와주는 역할, 따라하는 역할등)(리더십) - 자신은 맡은 일에 대해(또는 목표가 주어지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인가요?(근면성) - 자신이 스스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느끼나요?(정서적 안정감)
	행동적요소	<p>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사교적인 편인가요? 다른 사람과 활동을 할 때 친밀감을 잘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나요?(사교성) -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했던 작업들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지시는 잘 따랐나요?(협동성)

질문영역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야할 일이 생기면 적극적이며, 부지런하게 실천하려고 하나요? (활동성) - 나는 또래나 선배, 선생님들과 쉽게 친해지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는 편인가요?(대인관계) - 다른사람과 소통에 있어 주제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표현을 하는 정도는 원활한 편인가요?(의사소통) - 자기조절이 잘 되나요? (화가나는 상황이나 갈등상황,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 등 자기조절이 필요한 상황) (자기조절) -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주장하는 편인가요? (주장성) - 내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도는 어떤가요? (책임성) - 법이나 규칙에 대해 잘 지키고 있나요?(준법성)
<p>중등연령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되는 것, 원하는 것</p>	<p>학교를 그만둔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 그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p>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p>	<p>꿈드림 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드림 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 꿈드림 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나요?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나요? (그 이유는?) <hr/> <p>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원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있다면 효과는 어떠한가요?) - 사회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 원하는 프로그램의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대면/비대면, 전체횟수, 한 회기 시간, 한 주에 몇 번 등) -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 중 선호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예, 보드 게임, 미술도구, 영화보기, 짧은 영상 보기, 신체활동 등) - 부모님과 과제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가요? - 프로그램 진행 중 하기 싫은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프로그램을 참여 후 보상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예, 기프티콘, 상장, 프로그램 수수료등) -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또래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것 인가요?

[부록 2]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상 면접 질문지

질문영역	질문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중단에 대한 탐색</p>	<p>학교중단 원인</p> <p>자녀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떤 심경이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 전 가정, 학교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 언제부터 학교중단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나요? - 자녀의 학교중단 원인은 무엇인가? 학교중단 시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학교중단 시 계획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p>학교중단 당시의 경험</p> <p>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떠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 - 학교생활에서 자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자녀의 또래, 선생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자녀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자녀가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나요?
	<p>학교를 그만둔 현재 생활</p> <p>학교를 중단한 이후 자녀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학교중단 전과 중단 이후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자녀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미디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합니까? - 자녀가 최근에 누구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나요? - 자녀가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 한 적은 없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 - 중등연령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에게 어떠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 자녀의 생활 태도에서 부모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사회환경적 요소, 미래탐색)</p>	<p>1. 자녀와의 관계</p> <p>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어떻게 반응 하시나요? -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학교중단 후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을 하나요? - 가족들은 학교를 그만둔 자녀와 서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p>2. 친구 관계</p> <p>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학교 중단 전 친구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요? - 자녀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자녀가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있나요? - 자녀가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나요? - 자녀는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만남을 가지나요? - SNS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관계는 어떤가요?

질문영역	질문 내용
3. 꿈드림 센터 이용 및 실무자와의 관계	<p>자녀가 사회지지체계 등을 이용하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꿈 드림 센터를 이용하고 있나요? 이용한다면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 꿈 드림 센터의 선생님과 관계는 어떠한가요?
4. 그 밖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p>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후 어떤 사람들을 만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친해진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계기로 친하게 되었나요? -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주로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하나요? - 자녀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나요? 새로운 만남이 있다면 어떤 경로로 만나나요?(sns등 미디어를 포함) 잘 지내는 편입니까? - 또래 외에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5. 사회환경적 요소	<p>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후 주위 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 가정환경은 어떠한가요? (경제 수준, 가족 구성원, 등) - 주위의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 사회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 의료지원, 활동 지원, 등) - 자녀가 학교중단 이후 무슨 일을 하려고 하거나 고민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나요? - 자녀가 하루에 휴대폰 소셜미디어는 얼마나 하나요? 주로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나요?
6. 미래에 대한 탐색(자녀의 진로에 대한 계획, 바라는 바)	<p>진로를 위해서 자녀가 어떤 활동을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자녀의 진로에 대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학교를 떠난 것으로 인해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나요? - 현재 자녀가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 자녀의 진로 경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 자녀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유, 노력)
사회성 탐색	<p>자녀가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편인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을 잘 공감해주나요)?(공감) - 자녀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편인가요? (수용) - 자녀는 소속된 사회 내 집단 속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회정체감)

질문영역	질문 내용
정서적요소	<p>자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과 성향을 보이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편인가요? (자율성) - 자녀가 친구와 함께 할 때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있나요?(리더십) - 자녀는 맡은 일에 대해(또는 목표가 주어지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실행하는 편인가요? (근면성) -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나요? (사람들과 만날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침착한 편인가요)?(정서적 안정감)
행동적요소	<p>자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사교적인 편인가요? 다른 사람과 활동을 할 때 친밀감을 잘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나요?(사교성) - 자녀는 친구들과 잘 협동하는 편인가요?(협동성) - 해야할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실천하려고 하나요? (활동성) - 자녀는 또래나 선배, 선생님들과 쉽게 친해지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는 편인가요?(대인관계) - 자녀는 다른사람과 소통에 있어 주제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표현을 하는 정도는 원활한 편인가요?(의사소통) - 자녀는 자기조절이 잘 되나요? (화가나는 상황이나 갈등상황, 또는 스마트폰사용이나 게임 등 자기조절이 필요한 상황) (자기조절) -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 편인가요?(주장성) -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나요?(책임성) - 자녀가 법과 규칙과 관련하여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하나요?(준법성)
중등연령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되는 것, 원하는 것	<p>학교를 그만둔 자녀에게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 대해 특별히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p>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떠한 도움을 원하시나요? - 자녀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이나 서비스 등은 무엇이고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녀에게 어떠한 도움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나요? - 원하는 프로그램의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대면/비대면, 전체횟수, 한회기 시간, 한주에 몇 번 등) -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록 3]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 대상 FGI

질문영역	질문 내용
학교 중단에 대한 탐색	<p>학교중단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근무 기간, 주요 업무 및 역할 등)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성격적 특성, 가정환경, 또래관계, 학업 등
	<p>학교중단 당시의 경험</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할 당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친구들, 주변인들과의 경험 등
	<p>학교를 그만둔 현재 생활</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의 생활은 어떠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생활 혹은 무질서한 생활 등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사회환경적 요소, 미래 탐색)	<p>1. 부모님 (보호자)과의 관계</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님(보호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관계,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 방임 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부모님(보호자)의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정서적, 경제적 지원 등)
	<p>2. 친구관계</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어떠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친구관계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p>3. 꿈드림센터 이용 및 실무자와의 관계</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관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센터의 실무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친밀함, 형식적 관계 등) -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지켜야하는 태도나 약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p>4. 그 밖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과 관계는 어떠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만나는 사람들 /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p>5. 사회환경적 요소</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형태,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형편 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유해환경, 지지환경)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디지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긍정적, 부정적)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디지털 활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질문영역		질문 내용
	6. 미래에 대한 탐색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진로에 대한 관심, 진로 고민 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p>
사회성 탐색	인지적요소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참여 시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공감)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어느정도인가요?(수용)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속 정체감은 어떠한가요? -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집단 내에서의 자기 역할 등을 잘 인식하며, 빠르게 적응하는 편인가요?(사회 속의 나에 대한 정체감, 사회정체감)</p>
	정서적요소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적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참여 시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편인가요?(자율성) -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참여 시 청소년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편인가요?(리더십)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나요?(근면성) - 평소 청소년의 정서는 안정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 침착하게 정서적균형은 잘 유지하며 참여하는편인가요?(정서적 안정감)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p>
	행동적요소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행동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교성은 어떠한가요? 새로운 사람들과 편안하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잘 어울리는 편인가요?(사교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규칙에 따라 목표 행동을 할 때 서로 잘 협력하나요?(협동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해야할 일이 생기면 실천을 바로 하는 편인가요?(활동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나 선배, 선생님들과 쉽게 친해지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나요?(대인관계)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이 원만한 편인가요?(의사소통)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상황 시 자신을 통제하고</p>

질문영역	질문 내용
	<p>조절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자기조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주장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어진 활동이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는 편인가요?(책임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법, 규범이나 규칙 등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준법성)
<p>중등연령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되는 것, 원하는 것</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사회성발달 저해요인)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사회성발달 도움요인)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p>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청소년)</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한 사회성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장점, 부족한 부분 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주장, 자아정체감 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개인/집단, 대면/비대면, 전체 회기수, 회기당 시간, 주당 회기, 운영 시간대, 장소 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예, 보드게임, 미술도구, 영화보기, 짧은 영상 보기, 신체활동 등)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프로그램 참여 방해요인)
<p>부모(보호자)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면/비대면)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었던 지원</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지원은 어떤 것이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적 지원, 학업 및 검정고시 준비, 진로 정보, 대인관계 기술 등

질문영역	질문 내용
<p>전문가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p>	<p>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장전문가들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장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 프로그램 운영에서 대면활동과 비대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교 밖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보람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부록 4]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요구조사 설문지

1. 인구학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지원하고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익명이 보장되며 청소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본 연구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내용은 잘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정답이 없으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고 생각과 비슷하거나 가까운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며 응답과정에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낄 경우, 즉시 중단하셔도 됩니다.

이 설문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정인원을 초과 할 경우 자동 마감됩니다. 설문참여를 모두 완료한 청소년에게는 핸드폰으로 모바일상품권(편의점상품권, 5,000원)을 지급해 드리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상품권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원치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담당 연구자 : 임세영(대구대학교 청소년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재연(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 교수)

설문 참여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중등연령 청소년:**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자신에 관한 사항에 V표시해 주세요.

1) 성별 여자 남자

2) 귀하는 몇 년생 인가요?

2008년 2009년 2010년

(기타 2007년 2011년 직접 기재)

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입해 주세요(예: 경상북도 칠곡군)

()

4)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언제인가요?

학교에 입학하지 않음 초등학교 때 중학교1학년

중학교2학년 중학교3학년

5) 현재 진로준비는?

하고 있다 아니다

앞의 질문에 '있다'로 응답한 경우 현재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안학교 검정고시 유학준비 취업준비

기타 ()

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누구인가요(모두 선택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새아버지 새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친척

기타()

7) 우리집의 경제상황은 어떤가요?

매우어려움 어려움 좋음 아주 좋음

2.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의미가 없어서 학습의 어려움 질병이나 심리적 문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친구들과과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권유 유학 기타()

2) 학교를 그만 둘 때 가장 걱정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까봐 진로문제 사회적응의 두려움

부모님 반대 친구관계 단절 주변사람들의 인식

- 기타()
- 3)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검정고시 준비 유학준비 대안학교 입학
홈스쿨링 취업이나 사업준비 자기계발활동
은둔하기 계획없음 기타()
- 4)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친구들과의 갈등(다투거나 속상했던 일)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다 없었다
 앞의 질문에 '있었다'로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5) 학교를 그만 둔 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을 무엇인가요?
부모와의 갈등 학교친구와의 관계단절 진로설정의 어려움
편견 및 선입견으로 인한 무시 일자리 찾기 어려움 의욕없음
없음 기타()

3. 다음은 대인관계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 친구,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 1)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매우 나쁜편이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아주 좋은편이다
- 2) 학교를 그만 둔 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있다 없다
 '있다'로 응답한 경우,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아주 좋아졌다
- 3)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친 간섭 용돈 등 물질적 제한 무시와 방임
자포자기 주변인식에 대한 의식 일방적 의사소통
형제자매와의 비교 학업과 진로 대함에 압박 문제없음
기타()

●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 1)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매우 나쁜편이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아주 좋은편이다
- 2) 만나는 친구가 있나요? 예 아니오
- 3)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있나요?
 예 아니오

- 4) 친구는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매일 2-3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 정도
2주일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의 만나지 않는다
- 5)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온라인 포함)
하루에 여러번 매일 1-2번 2-3일에 한번 1주일에 1-2번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 6) 친구들과 주로 연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직접만났을 때 대화 부모님 통해서 연락 전화
SNS(예, 카카오톡 등) 기타()
- 7) 친구 이외에 다른 친한 사람(형/누나/언니/오빠 혹은 동생)은 어디에서 만나나요?
학원 종교 모임(교회, 절, 성당 등) 꿈드림
온라인/게임/인터넷/SNS 지역아동센터 동네이웃
친척 없음 기타 ()
- 8) 친구관계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9) 친구관계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꿈드림센터 이용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 1) 꿈드림센터는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있나요?
주1-2회 주3-4회 월1-2회 월3-4회 방문이용안함
- 2) 꿈드림센터 선생님과 관계는 어떤가요?
매우 나쁜편이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아주 좋은편이다

4. 다음은 현재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시간을 적어 주세요)

일과	기상	식사			취침
		아침	점심	저녁	
시간					

- 1) 최근 1달간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검정고시 학원수강 꿈드림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취미, 취업 등)
아르바이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집안일도움
기타()

2)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학교로 복교 검정고시를 통한 진학 취업이나 사업준비
 유학준비 대안학교 입학 취미활동
 계획없음 기타()

3)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 있다 없다
 앞의 질문에 '있다'로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4)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 경제적지원(학원비, 취미활동비, 교통비, 병원비 등) 문화(스포츠, 연극·영화, 여행 등)
 심리·정서적지원(심리상담, 가족상담, 병원치료 등)
 진로 및 사회적응(직업정보 및 활동, 자격증취득 등)
 없음 기타()

5. 사회성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1) 현재 귀하의 사회성은 0점-10점 중에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0	1	2	3	4	5	6	7	8	9	10

2) 다음은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요소와 항상 시켜야 하는 구성요소를 1위에서 7위까지 순위를 정해 주세요(1위-7위).

항목	공감	사회정체감(소속감)	정서적안정감	자율성	자기조절	협동성	의사소통
중요한 요인							
항상이 필요한 요인							

3) 사회성 발달을 위해 귀하가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중복체크가능)

-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자기계발활동
 청소년자치활동(위원회, 꿈드림 청소년단 등) 문화체육활동(스포츠, 음악, 여행 등)
 사회성관련교육 기타()

6.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 3) 위의 질문에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직접 써주세요.
(예: 바리스타 자격증취득)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사회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이와 관련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표시해 주세요(중복체크가능).

진행방법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비대면(온라인)	<input type="checkbox"/> 대면/비대면 모두 괜찮음		
진행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집단	<input type="checkbox"/> 캠프		
빈 도	<input type="checkbox"/> 주1회	<input type="checkbox"/> 주2회	<input type="checkbox"/> 주3회	<input type="checkbox"/> 주4회	<input type="checkbox"/> 주5회
1회당시간	<input type="checkbox"/> 1시간	<input type="checkbox"/> 2시간	<input type="checkbox"/> 4시간	<input type="checkbox"/> 4시간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여가능요일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input type="checkbox"/> 토
참여희망시간	<input type="checkbox"/> 10시이후	<input type="checkbox"/> 13시이후	<input type="checkbox"/> 15시이후	<input type="checkbox"/> 기타()	

- 1) 프로그램에 참가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놀이나 활동은 무엇인지 가능한 많이 써주세요.
()

2. 척도구성을 위한 사회성 척도

요인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감	1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말로 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2	문제거리나 말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일에 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훌륭해’ ‘멋있어’ 등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4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①	②	③	④
	5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혼란 사태에 있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6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을 경우 그것에 관해 친구에게 표현을 하고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7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이나 게임, 씨클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자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8	부탁을 들어달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괴롭히려 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사회정체감	14	나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또래 집단의 전형적인 멤버라고 할 수는 없다.	①	②	③	④
	16	또래 아이들은 나 자신의 본보기가 된다.	①	②	③	④
	17	또래 아이들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또래집단 아이들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9	또래집단 아이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거의 같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또래집단의 아이들과 잘 맞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또래집단에 강한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정서적 안정감	22	나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23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어찌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요인	번호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4	나는 내가 한 일을 자주 후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감정에 따라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자율성	27	주위 사람들은 나를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28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남에게 의존하려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지시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자기 조절	32	누군가가 일을 맡기면 믿는 만큼 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3	하는 모든일들에 대한 완성도가 들쭉날쭉함이 없이 거의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34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35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6	해야 할 일을 곧잘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37	누군가가 질책하면 아무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둘러대곤 한다.	①	②	③	④
	38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9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빼먹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0	해야 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1	남의 물건에 손을 댄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2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3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44	길이나 주변을 잘 살핀다.	①	②	③	④
	45	이것저것 생각나는 말을 늘어 놓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한 번에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6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①	②	③	④
	4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의 깊은 편이라고들 한다.	①	②	③	④
	48	친구들은 규칙을 잘 지키거나 협동하는 면에서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9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이것저것 손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0	나는 때로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51	행동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2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부록 5]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회성 검사 최종 문항

하위 요인	문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공감	1. 문제거리나 말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일에 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2.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①	②	③	④
	3.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혼란 상태에 있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을 경우 그것에 관해 친구에게 표현을 하고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5. 부탁을 들어달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사회 정체감	7. 나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 멤버라고 할 수는 없다.	①	②	③	④
	9. 또래 아이들은 나 자신의 본보기가 된다.	①	②	③	④
	10. 또래 아이들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또래집단 아이들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또래집단 아이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거의 같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또래집단의 아이들과 잘 맞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또래집단에 강한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정서적 안정감	15. 나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16.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어찌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내가 한 일을 자주 후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감정에 따라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자율성	20. 주위 사람들은 나를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자기 조절	23. 누군가가 일을 맡기면 믿는 만큼 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4.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5.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6.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27. 길이나 주변을 잘 살핀다.	①	②	③	④
	28.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의 깊은 편이라고들 한다.	①	②	③	④
	29.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이것저것 손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0. 행동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1.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협동성	33. 사람들과 함께 해야하는 과제나 기타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마친다.	①	②	③	④
	33. 어른들의 지시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34. 토론에서는 지나치게 과격해지거나 무례하지 않은, 차분하고 교양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의사 소통	35.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36. 친구의 잘못을 불쾌하지 않게 말 해 줄 수는 없다.	①	②	③	④
	37.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싫어'라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8.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39.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①	②	③	④
	40. 나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41.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2. 친구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43.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그냥 포기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전 체					

주. 역채점 문항

[부록 6]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교구재

1. 사회성 카드

<p>인지영역</p> <p>공 감</p>	<p>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p>	<p>인지영역</p> <p>수 용</p>	<p>상황이나 행동, 감정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p>
<p>인지영역</p> <p>자아 정체감</p>	<p>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내가 바라는 것 등)</p>	<p>인지영역</p> <p>사회 정체감</p>	<p>사회 속의 어떤 집단에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안정감</p>
<p>인지영역</p> <p>자기 가치감</p>	<p>자신이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믿음.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는 것</p>	<p>인지영역</p> <p>사회적 유능감</p>	<p>사회적 관계 속에서 친구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느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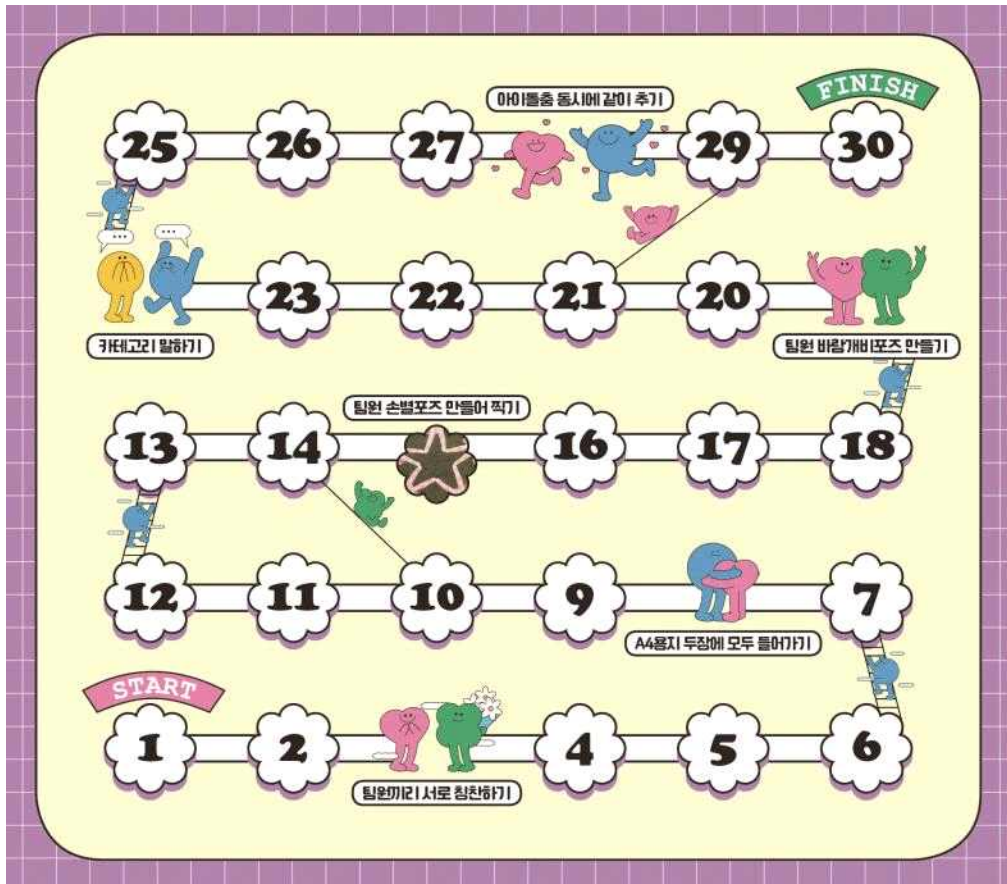
<p>정서영역 정서적 안정감</p>	<p>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며 평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p>	<p>정서영역 리더십</p>	<p>집단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친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서 능력</p>
<p>정서영역 근면성</p>	<p>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p>	<p>정서영역 자율성</p>	<p>어떤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p>
<p>행동영역 사교성</p>	<p>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것</p>	<p>행동영역 협동성</p>	<p>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도울 줄 알고, 집단에 협조하며 규칙을 잘 따르는 것</p>
<p>행동영역 자기조절</p>	<p>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고 원만하게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p>	<p>행동영역 대인관계</p>	<p>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p>

<p>행동영역</p> <p>주장성</p>	<p>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p>	<p>행동영역</p> <p>책임감</p>	<p>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p>
<p>행동영역</p> <p>준법성</p>	<p>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법률을 잘 지키려는 것</p>	<p>행동영역</p> <p>의사소통 능력</p>	<p>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고 원만하게 전달하는 능력</p>
<p>행동영역</p> <p>문제해결 능력</p>	<p>문제를 상황에 맞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p>	<p>행동영역</p> <p>갈등해결 능력</p>	<p>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p>
<p>행동영역</p> <p>친사회적 행동</p>	<p>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등)</p>		

2. 젠가게임-미션 스티커

자신의 장점 3개 말하기	'나는 내가 좋아' 3번 외치기
좋아하는 것 말하기	3초 내에 좋아하는 연예인 3명 말하기
친구들 웃기기	이상형 친구 말하기
코끼리코 5바퀴 돌고 장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나는 행복하다' 5번 외치기	왼쪽에 있는 친구 장점 말해주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 칭찬하기	'나는 할 수 있다' 3번 외치기
코끼리 코 5번 돌고 자리에 앉기	왼쪽 2번째 친구 취미 물어보기
오른쪽 3번째 친구 칭찬 2가지 하기	만원버스에서 방귀냄새 참는 표정짓기
5초간 막춤 추기	왼쪽 3번째 친구에게 '널 만나 반갑다' 인사하기
오른쪽 친구와 좋아하는 음식이름 주고받기	자신 PR하기
소중한 사람 3명과 이유 말하기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말하기
백만장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바로 앞 친구에게 '예쁘다(멋있다)'말하기
'친구' 2행시 짓기	손하트 만들어서 보여주기
축구선수 골 세레머니 하기	자신의 꿈 말하기
오늘 제일 즐거웠던 일 말하기	모델 걸음 걸기
나의 보물 두 가지 말하기	화폐에 있는 위인 3명 말하기
귀여운 척하기	개코원숭이 흉내 내기
나의 보물 두 가지 말하기	모든 사람들과 악수하기
친구에게 3번 절하기	사랑합니다 3번 외치기
모든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하기	개구리 제자리 뒹꾸기 2번 하기

3. 협동 사다리게임



[부록 7] 회기별 평가 및 종합평가

1.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청소년용)

참여자용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연령	①13세 ②14세 ③15세 기타 ()세			
성별	①여자 ②남자			
☞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②	③	④
2.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자료(활동지, 교구재 등)는 흥미롭고 도움이 되었나요?	①	②	③	④
3. 프로그램의 시간과 횟수는 적당했나요?	①	②	③	④
4.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만족스러웠나요?	①	②	③	④
5.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사회성 성장에 도움이 되었나요? (앞으로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6.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싶은가요?	①	②	③	④
7. 프로그램 중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있다면 제목이나 기억나는 활동을 적어주세요.				
8. 프로그램 중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웠던 내용이 있었나요? 있다면 제목이나 기억나는 활동을 적어주세요.				
9. 프로그램 중 바꾸었으면 하는 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 회기별 프로그램 평가 및 참여 경험 소감문

성별:

나이:

이름:

프로그램명				
일 시				
장 소				
질문	평가			
오늘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및 활동은 사회성 성장에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경험	내가 했던 사회성 활동에 대한 경험			
	활동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나에게 도움이 된 점			
나의 소감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점			
	좋았거나 즐거웠던 점			
	자신의 변화한 점 (사회성과 관련하여)			
현재 내 사회성 점수는 1~10점 중 몇 점인가요?	() 점			

3. 대면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평가(전문가용)

프로그램 제목	평가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어서와 사회성은 처음이지! (사회성)	프로그램은 회기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고 진행하기가 수월했다.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				
	수정보완사항 : 사회성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변화 :				

- 집단 회기를 시작할 때 지난 회기에서 느낀 것과 배운 것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바를 나누고 이번 회기에 경험하고 싶은 것에 대해 나눈다. 지도자는 지난 회기에 느꼈던 생각, 관찰 내용 등에 대해 다룬다.
- 집단 회기를 마무리할 때는 해당 회기에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집단원들이 느낀 부분에 대해 나눈다. 집단구성원들에 대해 인정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누고 필요한 경우 과제를 주어 수행해오도록 한다.

4. 비대면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평가(전문가용)

프로그램 제목	평가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알고 싶은 나' /사회성 이해 및 정서적 안정감	프로그램은 회기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고 진행하기가 수월했다.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				
	수정보완사항 : 좀 사용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함 사회성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변화 : 사회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에는 연령이 어리고 교육보다는 활동을 통한 이해가 도움이 됨				

- 집단 회기를 시작할 때 지난 회기에서 느낀 것과 배운 것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바를 나누고 이번 회기에 경험하고 싶은 것에 대해 나눈다. 지도자는 지난 회기에 느꼈던 생각, 관찰 내용 등에 대해 다룬다.
- 집단 회기를 마무리할 때는 해당 회기에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집단원들이 느낀 부분에 대해 나눈다. 집단구성원들에 대해 인정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누고 필요한 경우 과제를 주어 수행해오도록 한다.

Abstract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kills improvement program for middle-aged out-of-school youth

The number of students dropping out of school in 2022 has increased by 33.5% in just one year, raising social interest. It is predicted that students are discontinuing their studies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rises and difficulties in continuing studies while taking remote classes due to the infectious disease COVID-19. In the case of middle school-aged youth, there was an increase of about 2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 severity of the problem also came to the fore. Middle school age is the ag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is 13 to 15 years old. If children stop attending school during this period, their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eachers they meet every day will be severed, which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developmental tasks. In the development process, middle-aged children, unlike younger children, show a more active will to break away from their parents' influence and seek to form social groups and expand social relationships by belonging to those groups. Out-of-school youth of secondary age, who must expand social relationships and take the socialization process seriously,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improve social skill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 specialized social skills program for out-of-school youth of secondary age was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in depth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age out-of-school youth and the social factors needed during this period, and develops a program that can systematically intervene in the social factors required by youth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 program to improve the social skills of middle-aged out-of-school youth was develop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Additionally, the social skills scale was reorganiz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irst,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program were reviewed to plan the program and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Through a literature study, we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cause secondary-age out-of-school youth to drop out of school and the types of out-of-school youth. In addition, the sociality of secondary-age out-of-school youth was def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condary-age out-of-school youth were explained through social perspective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ity of secondary-age out-of-school youth.

Secon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e analyzed out-of-school youth programs, middle school youth programs, and middle school age social skills programs to extract social skills component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rograms. Existing studies have explored intervention programs for out-of-school youth of secondary age. Although there were many programs for out-of-school youth, it was difficult to find programs specialized for secondary-age youth. Additionally, programs related to social skills were even more lacking. Accordingly, studies related to social skills and domestic and foreign program studies were analyzed by adjusting the age to middle school 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n social factors were extracted: empathy, stability, autonomy, self-regulation,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social identity. The content elements of the program were mostly activity-centered, such as games, experiences, and camps, and it was revealed that it consisted of interventions on social components such as empathy, self-regulation,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social identit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plan a program that focuses on experiences and activities that reflect the seven social factors to help youth develop and Grow and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in a fun and interesting way.

Third, to construct the program, FGI was conducted on middle-aged out-of-school youth, their guardians, and on-site experts at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to derive implications,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74 youth to find ou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As a result of the demand survey, teenagers hoped to understand themselves, play games with peers, and share hobbies. Through this, we aimed to increase social identity by building confidence and solidarity. Guardians we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s limi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peers, and had demands for

communication training and emotional stability. Field experts reflected factors that could affect both youth and parents and proposed programs centered on learning and education, mainly focusing on activities such as travel and camp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desired that the program be held once a week for more than 2 hours and after 10 o'clock. Regarding the timing of school drop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males were found to drop out of school earlier, and the older they were, the earlier they dropped out of school.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living in large cities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adolescents quit school earlier. Unemployed youth showed lower autonomy and cooperation than employed youth,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ociality according to family type or economic level.

Fourth, we structured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social programs by reflecting the content extra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of demand surveys, and obtained advice from experts to derive a pilot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a demand survey conducted among youth, guardians, and field experts, the program's goals and core organizing principles were determined.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needs survey, the program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mselves, learn how to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others, and acquire problem-solving and social skills by improving empathy and social bonds. It is designed to enable children to express and control their emotions appropriately, thereby forming a positive self-image, learning the rules and norms of the group, and forming a sense of social identity by securing a sense of belonging to the group. To achieve this goal, the face-to-face program consisted of 8 sessions by planning 7 topic areas, and each session consisted of an introduction (20 minutes), activities (60 minutes), and conclusion (10 minutes) for a total of 90 minutes. Welcome to the details of the face-to-face program. It's my first time being social, but I'm always proud, we have empathy, we can do things on our own, we're better, we're improving, communication is UP! GO!, We're Happy Together, and GO Into Society. The non-face-to-face program was designed with 6 sessions in 6 topic areas: introduction (10 minutes), activity (50 minutes), and conclusion (10 minutes), for a total of 70 minutes. The details of the non-face-to-face program are composed of the me who wants to know, the me who is okay, the friend I want to get along with, the friend I want to communicate with, us together, and we in society.

Fifth,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to construct a scale that could verify program effectiveness. The survey was factor-analyzed to construct a scale that could verify program effectiveness. To confirm the suitability of the social skills test model,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phericity test between items were checked. The factors whose suitability was confirmed confirmed the commonality of the items. Through this process, empathy (6 items), social identity (6 items), stability (5 items), autonomy (3 items), self-regulation (9 items), cooperation (3 items), and communication (9 questions). A total of 43 questions were composed of 7 sub-factors of communication (3 questions) and communication (9 questions). The reliability of the items was investigated as .743 for empathy, .793 for social identity, .717 for stability, .662 for autonomy, .758 for self-regulation, .689 for cooperation, and .713 for communication, and the overall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873.

Sixth,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consisted of a face-to-face group, a non-face-to-face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program was provided to the face-to-face group and the non-face-to-fac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untreated.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conducting a satisfaction survey, experience report, and leader evaluation for each session to th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pilot application program.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th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face-to-face program were awkward at the beginning of the session, but showed anticipation, and formed clos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in the latter half of the program. However, when creating a club, they showed a lack of self-determination, as they had to get permission from their parents.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on-face-to-face program reported that they learned how to control their emotions, improved social skills, and learned how to recognize and compensate for their shortcomings while communicating with others. They reported that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y became more self-reflective and learned, and their confidence increased. As they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y felt that they were gradually becoming more positive, and they reported that their behavior and attitude had changed, such as their facial expressions becoming softer and their actions to promote themselves more proactive.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homogeneity of the pre-test results of each group was confirmed, an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for the face-to-face group and the non-face-to-face group,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face-to-face group and the non-face-to-face group. ,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face-to-fac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the non-face-to-fac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follow-up test results for adolescents in th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groups showed that the program effect was maintained well compared to the pre-test. This confirms that the social skills improvement program developed and applied through this study helped improve the social skills of middle-aged out-of-school youth.

* Keywords: Secondary-age out-of-school youth, Sociability, Social improvement program, Social skills scale